

기호학 연구 제64집

기호학 연구 제64집
Semiotic Inquiry No. 64



한국기호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2020

차례

김호영 : 디제시스적 미장아범으로서의 이차프레임 - 반 에이크와 다 메시나의 회화를 중심으로	7
윤나라 : 인공지능의 탈신화화 - 다큐멘터리 〈알파고〉와 강/약 인공지능 개념을 중심으로	37
이향애 : 제주 무속 신화 속 쫓겨난 딸들의 신직 좌정과 문화적 의미	65
전형연 · 왕치현 · 오장근 · 김상원 · 이경호 : 빅데이터의 감성가치 도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 연구	95
지승학 : 딥러닝 자연어처리(NLP)와 일반수사학(General Rhetoric)과의 융합적 접점 분석 - 그룹 뮤(Groupe μ)의 『A General Rhetoric』을 중심으로	121
최용호 : 프랑수와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의 관점에서 본 사르트르의 『닫힌 방』의 의미론적 구조	151
황영삼 : 퍼스 포함구조 기반 의미생산과 도시장소 시험적용	193

디제시스적 미장아빔으로서의 이차프레임

－ 반 에이크와 다 메시나의 회화를 중심으로

김호영*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이차프레임과 디제시스의 공간적 확장
 - －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 III. 이차프레임과 디제시스의 심층적 확장
 - － 다 메시나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 IV. 맺음말

국문초록

회화에서 이차프레임은 시각적 미장아빔의 기능 뿐 아니라 디제시스적 미장아빔의 기능을 수행한다. 디제시스적 미장아빔으로서 이차프레임은 그림 고유의 세계를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키며, 그로부터 현실 세계와 변별되는 회화 고유의 세계를 증대하는 효과를 산출한다. 디제시스적 미장아빔 작업은 이미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 중 다음 두 작품에 주목한다.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1434)와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1474-1475). 먼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거울-이차프레임은 그림 전체를 이중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 거울의 존재로 인해 그림 속 오브제들의 의미는 이중적 차원으로 확대되는데, 부르주아의 일상을 나타내는 사실적 모티브로 기능하는 동시에 결혼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거울-이차프레임은 그림의 바깥과 안을 서로 교통하게 하면서 회화의 영역을 프레임 바깥까

* 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zizou@hanyang.ac.kr

지 연장시키고, 이를 통해 회화의 디제시스 자체를 무한히 확장 가능한 하나의 고유한 세계로 변환시킨다. 한편,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서 창문-이차프레임은 인물의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이미지를 유사성을 내포한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따라서 그림의 디제시스는 프레임 바깥으로 확장되기보다는 그림 속 인물의 정신세계로 혹은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정신세계로 심화되어 확장되며, 회화 이미지는 색과 형태로 구성되는 물리적 실재일 뿐 아니라 관람자의 상상과 정신작용이 더해져 형성되는 정신적 실재로 기능한다. 즉 반 에이크의 작품에서처럼 그림의 디제시스가 프레임 바깥의 비가시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정신세계 속으로, 즉 가시적 이미지에 비가시적 이미지가 더해져 구축되는 더 포괄적인 이미지의 세계로 확장된다.

열쇠어 : 이차프레임, 디제시스적 미장아빔, 얀 반 에이크, 안토넬로 다 메시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I. 들어가는 말

모든 경우에서 불안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동일한 효과가 획득된다. 바로 시각적이고 디제시스적이며 수사학적인 미장아빔 효과다. 이러한 시각적, 디제시스적, 수사학적 미장아빔에서 ‘이차’ 프레임은 표면에 구멍을 뚫는 동시에 그 표면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¹⁾

회화에서 이차프레임(cadre second, second frame)은 형식상 ‘시각적 미장아빔(mise-en-abyme visuelle)’에 해당한다. 이차프레임이란 기본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림 안에 삽입된, 프레임과 유사한 형태의 오브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²⁾ 가령, 창(窓), 문, 거울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시각적 미장아빔으로서 이차프레임은 그림 안에 깊이감이나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기능에서부터 오브제들 또는 인물들 사이의 균형이나 구

1) Jacques Aumont, *L'oeil interminable*, Séguier, 1989, p.124.

2) 이차프레임은 ‘이중프레임링(surcadrage)’ 작업을 전제로 한다. 이차프레임과 이중프레임링에 대한 설명은 Jacques Aumont, *Image*, Nathan, 1990, pp.116~118 ; Jacques Aumont & Michel Maire, *Dictionnaire théorique et critique du cinéma*, Nathan, Paris, 2004, p.198 등을 참조할 것.

도를 만들어내는 기능, 시선의 유혹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차프레임은 때때로 그보다 좀 더 복잡적이고 심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의미작용 범위를 확장하고 작품의 표현 양식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수사학적 미장아빔(mise-en-abyme rhétorique)’³⁾ 효과가 그것이다. 수사학적 미장아빔으로서 이차프레임은 그림의 일차프레임이 강조하는 것과 다른 대상을 둘러싸고 강조함으로써 화면 내의 시각적 중심을 분산시키고, 외부 이미지를 내부로 끌어들이어 외부와 내부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이질감을 생성하기도 하며(창문의 경우), 프레임 바깥으로부터의 시선을 화면 안에 담아내기도 한다(거울의 경우). 그리고 이를 통해 동일한 사물이나 인물에 이중적 혹은 복합적인 의미작용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나아가, 회화에서 이차프레임은 사물이나 인물을 가두는 기능을 넘어 그림 안에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창문 또는 거울 같은 이차프레임들을 통해 형성되는 제2의 그림들은 위에서 언급한 시각적 미장아빔이나 수사학적 미장아빔 효과 외에도 일종의 ‘디제시스적 미장아빔(mise-en-abyme diégétique)’³⁾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디제시스적 미장아빔 효과란 프레임 안의 프레임 형식을 통해 그림 고유의 세계를 심화시키거나 확장하는 효과, 즉 현실 세계와 변별되는 회화 고유의 세계를 증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⁴⁾

3) 본 논문의 디제시스 개념은 1950년 안느 수리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을 따른다. 수리오에 따르면, 디제시스란 “예술 작품의 세계, 즉 하나의 예술 작품을 통해 제시된 세계”를 의미한다. Anne Souriau & Etienne Souriau, *Vocabulaire d'esthétique*, PUF, 1990, p.581의 설명 참조.

4) 회화에서 창, 문, 거울 같은 프레임 안의 프레임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무수히 많으나, 그것을 ‘이차프레임’이라는 하나의 고유한 미학적 형식으로 간주하면서 논문의 핵심 주제로 탐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시각적 미장아빔 혹은 수사학적 미장아빔으로서의 이차프레임의 기능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며, 디제시스적 미장아빔으로서의 이차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회화에서 이차프레임이 수행하는 디제시스적 기능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논한 국내외 선행 연구로는 Deepak Ananth, “Frames within frames: on Matisse and *The Orient*”, *The rhetoric of frame*, edited by Paul Duro, Cambridge

본 논문은 이차프레임을 통한 이러한 디제시스적 미장아빔 작업이 이미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다양한 디제시스적 미장아빔 사례들 중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프레임의 물리적 외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화의 세계를 프레임 너머 영역까지 확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회화를 물리적 실재와 정신적 실재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승화시킨 경우이다. 전자의 예로 15세기 전반 플랑드르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Portret van Giovanni Arnolfini en zijn vrouw>(1434)을 검토할 것이며, 후자의 예로 15세기 후반 이탈리아 회화를 대표하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Antonello da Messina)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San Girolamo nello studio>(1474-1475)를 검토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서든, 이차프레임의 존재 덕분에 회화의 영역은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차원으로 확대되며 관람자의 상상력의 개입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Ⅱ. 이차프레임과 디제시스의 공간적 확장 -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1. 거울 속의 거울로서의 이차프레임

반 에이크에게 회화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그는 “그림 전체가 가시적인 세계의 거울이 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미세한 세부까지

University Press, 1996 ; Jacques Aumont, *L'oeil interminable*, Séguier, 1989 ; Pascal Bonitzer, *Décadrages : peinture et cinéma*. Paris: Ed. Cahiers du cinéma, 1985 ; Jean-Luc Marion, *La Croisée du visible*, Éditions de la Différence, PUF, 1991 ; 김호영, 「초기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이차프레임의 의미작용 연구 - 마사초의 <성삼위일체>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28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0 등이 있다.

표사하면서”⁵⁾ 실제 혹은 자연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때문에, 그는 대담한 윤곽선과 섬세한 명암처리를 통해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던 동시대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자질구레한 물건들이나 보석, 꽃, 의상 같은 일상의 ‘사물’들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또한 다른 북유럽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그림은 당시 사회의 주요 세력이자 화가의 주요 후원자로 떠오르고 있던 부르주아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 반 에이크는 <날개가 펼쳐진 헨트 제단화 Ghent Altarpiece (Open)>(1426-1432) 등을 통해 종교화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지만, 다양한 오브제들을 통해 부르주아 계층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역할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⁶⁾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도판 1)은 플랑드르 브뤼헤에 정착한 이탈리아 금융업자 조반니 아르놀피니 부부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일상 사물들에 대한 그의 세심한 관찰과 정밀한 묘사를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반 에이크는 ‘유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화가들 중 하나다. 당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화가들은 원근법을 통해 회화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루어냈지만 채색 방식은 여전히 템페라나 프레스코에 의존하고 있었다. 템페라화와 프레스코화는 각각 계란노른자와 회반죽을 안료의 주성분으로 삼았는데, 두 재료 모두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림을 그려야 했고 따라서 정밀한 묘사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두 재료 대신 린시드유를 점착제로 사용한 유화는 마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다 여유 있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나아가 무한한 수정도 가능했다. 또 테레빈유를 가미해 물감의 묽기를 조절하면 투명한 느낌과 물체의 광택, 하이라이트 등도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었다.⁷⁾

5) E.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이종승 역, 예경, 2012, 239쪽.

6) 스테파노 추피, 『신과 인간: 르네상스 미술』, 하지은·최병진 역, 마로니에북스, 2011, 79쪽.

7) 반 에이크의 유화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고프리치, 앞의 책, 240쪽과 김태진, 『아트인문학 :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카시오페아, 2017, 91쪽 참조.

반 에이크는 유화를 통해 템페라화나 프레스코화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정밀한 묘사를 실행하는 데 성공한다. 그를 비롯한 플랑드르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들의 색상, 질감, 온도, 광채, 입체감 등을 그림 안에 실재와 거의 동일하게 표현해냈고, 회화 이미지를 단순한 시각 언어를 넘어 우리의 “촉각에 호소하고 촉각을 자극하는”,⁸⁾ 손으로 거의 만지는 듯한 느낌의 촉각 언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판 1] Jan Van Eyck,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오크 화판에 유화, 1434, 60 x 82.2 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도판 2] Jan Van Eyck,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오크 화판에 유화, 1434, 60 x 82.2 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삽입된 일상 오브제 중 하나이자 이차프레임인 작은 ‘볼록 거울’(도판 2)은 화가의 이러한 정교한 사물 묘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림을 현실의 거울로 간주했던 화가의 관점을 상기해보면 일종의 ‘거울 속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이 볼록 거

8)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역, 열화당, 2012, 104~105쪽.

울은, 그림 속 두 주인공의 뒷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 앞의 두 사람, 즉 푸른 옷을 입은 화가와 그의 동행인을 보여준다. 또한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액자의 작은 톱니 원들에는 예수가 사망한 날 벌어진 열 가지 사건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울 속 이미지는 그림의 맞은 편 공간, 즉 방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창문으로 들어와 실내로 퍼지는 빛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심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과 정원까지 재현해낸다.⁹⁾ 한 마디로, 이차프레임으로서 이 작은 거울은 당시 유화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밀한 묘사가 가능한지를 과시하기 위해 삽입된 특별한 회화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의미의 이중화를 위한 이차프레임

이차프레임으로서 거울은 화가가 그림을 통해 실행한 교묘한 ‘의미의 이중화’ 작업에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 그림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림의 주제다. 한편으로 그림은 두 남녀가 손을 맞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결혼한 어느 부부의 초상화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에 대한 상반된 두 해석은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 왔는데, 화가가 따로 그림의 제목이나 그림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일단, 결혼 서약을 다룬 그림이라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에 따르면, 그림이 제작된 후 1~2세기 안에 발표된 문헌들은 대부분 이 그림이 결혼 서약을 다루고 있다고 증언한다. 가령, 1569년에 출판된 마르쿠스 판 베르네위크(Marcus van Vaernewyck)의 글과 1604년 카렐 페르만더(Carel Vermander)가 출간한 반 에이크의 전기에는 “피데스에 의해 van Fides”라는 동일한 표현이 삽입되어 있

9) 김태진, 앞의 책, 90쪽.

다.¹⁰⁾ ‘fides’는 본래 ‘믿음, 신용, 약속’ 등을 뜻하는 라틴어로 중세에는 ‘결혼 서약’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파노프스키는 반 에이크의 그림이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두 남녀’를 그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림의 중앙 상단 벽면, 즉 거울 위 벽면에 적힌 “Johannes de Eyck fuit hic. 1434”라는 문장이다. 이는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있었다.”를 뜻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증인이 결혼식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으로 이 그림을 일종의 “회화적 결혼증명서”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¹¹⁾ 셋째, 그림 속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들이다.¹²⁾ 이 사물들은 물론 당대 부르주아 생활 풍속을 나타내기 위해 화가가 선택한 대상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까지 지속되어온 결혼의 주요 도상을 담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천정의 상들리에에서 타오르고 있는 ‘초’는 당시 결혼식에서 항상 요구되어왔던 것으로 일종의 ‘결혼용 초’를 상징하고, 침대 옆 안락의자의 ‘성 마가레트’ 목조조각 장식은 ‘출산의 여신’인 성인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 신부 발치의 작은 ‘개’는 중세와 르네상스 종교화에서 ‘정절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고, 벗겨진 채 놓여 있는 ‘나무 신발’은 이 상황의 경건함과 신성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 그림을 결혼한 부부의 초상화로 간주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¹³⁾ 첫째, 박성은에 따르면, 그림에서 신랑이 왼손으로 신부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자세는 15세기 유럽 사회에서 중요한 결혼 형식으로 통용되던 자세와 어긋난다. 바로 ‘덱스트라룸 이운치오(dextrarum iunctio)’

10) 자세한 내용과 문헌 정보는 Erwin Panofsky, “Jan van Eyck’s Arnolfini Portrait”,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64, No. 372, 1934, pp.117~118 참조.

11) Ibid., p.124. 그밖에도, 파노프스키는 신랑의 엄숙한 태도와 결혼식 구도를 취한 두 사람의 포즈, 브뤼헤에 두 사람의 양가 친척이 없었다는 사실 등도 이 그림이 회화적 결혼증명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본다.

12) 그림 속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Ibid., pp.126~127와 스테파노 추피, 앞의 책, 79쪽 참조.

13) 이 관점은 박성은의 논문에 기반을 둔다. 박성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2, 서양미술사학회, 2010, 35~55쪽.

자세인데, 이는 ‘신랑, 신부가 서로의 오른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시대부터 동전, 석판, 묘비, 벽화 등을 통해 줄곧 전해져 왔다.¹⁴⁾ 둘째, 파노프스키는 신랑이 손을 들고 있는 자세가 결혼 서약 자세인 ‘피데스’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지만, 피데스란 ‘피데스 레바타(fides levata)’의 줄임말로 엄밀히 말해 ‘신랑, 신부가 각자 왼손을 들고 결혼 서약을 하는 자세’를 뜻한다. 그림에서 신랑은 오른손을 들고 있기에 이 역시 결혼 서약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셋째, “12세기 이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교회 앞에서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¹⁵⁾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부르주아 가정의 실내다. 넷째, 파노프스키의 해석과 달리, 그림 속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물들은 단지 아르놀피니 부부가 속한 부르주아 계층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일 수 있다. 가령, 작은 ‘개’는 추운 날 침대에서 주인의 발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충성스러운 동물이고, 끝이 뾰족한 ‘신발’은 “15세기 플랑드르 상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신발”¹⁶⁾의 형태이며, 붉은 직물 커튼이 쳐진 커다란 ‘침대’는 당시 플랑드르에서 귀족이나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재산 품목이다. 또 베네치아 풍의 ‘상들리에’와 베네치아 양식으로 제작된 ‘볼록 거울’은 당시 플랑드르와 이탈리아 간의 물질 교류를 보여주는 오브제이자 소유자인 “조반니 아르놀피니의 경제적 부의 상태를 상징하는 대표적 아이템”¹⁷⁾이며, 특히 “뿔처럼 생긴 트뤼포 위에 흰색 면직물을 쓰고 있는” 여성의 ‘머리 장식’은 당시 기혼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 그림이 결혼식 장면이

14) 당시 신부의 사회적 계급이 신랑의 계급보다 낮을 경우 신랑이 왼손으로 신부의 오른손을 잡는 ‘귀천상혼’ 서약이 가능했지만, 그림 속 두 인물은 모두 동일한 이탈리아 상인 계급 출신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글, 40~42쪽 참조.

15) 같은 글, 44쪽.

16) 같은 글, 46쪽.

17) 구지훈,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를 통해 본 토스카나와 플랑드르 간의 사회적, 예술적 상호 교류」,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2018, 10쪽.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¹⁸⁾

이처럼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해왔지만, 일차적으로는 후자가 더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결혼식 장면을 그린 것이라 하기에는, 당대 일반적으로 실행되던 다수의 결혼 관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브뤼헤에 정착한 이탈리아 상인 조반니 아르놀피니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문한 ‘부부 초상화’라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그림 속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물인 ‘거울-이차프레임’이 이러한 가정을 다시 미궁에 빠뜨린다. 단순히 아르놀피니의 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보기에는, 거울 속 이미지가 너무나 명백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속 화가와 동행인은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두 남녀 앞에서 분명 어떤 서약의 증인 자세로 서 있다. 그리고 거울 바로 위 벽에 새겨진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문장은 화가와 동행인이 매우 중요한 사건의 증인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¹⁹⁾ 게다가, 고프리치의 지적처럼, 두 남녀는 서로 오른 손을 잡고 맹세하는 텍스트라룸 이운치오 자세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즉 남자가 오른손을 들어 간단히 결혼 서약을 한 후, 왼손으로 여자의 오른손을 끌어와 그 위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남자의 왼손이 여자의 오른손을 맞잡기보다 밑에서 위로 받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 근거가 된다. 요컨대, 파노프스키의 표현처럼 이 그림을 회화적 결혼 증명서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타국에 있어 양가 친척을 초청할 수 없는 두 남녀의 간소한 결혼 서약을 그린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

18) 박성은, 앞의 글, 49~50쪽.

19) 반 에이크는 자신의 그림에 자주 서명이나 문구를 남겼으나, 그것은 대개 액자 위이거나 액자에 인접해 있는 그림 속 난간 위였다. 즉 이 그림에서처럼 그림의 한복판에 문구를 남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종희, 「안토넬로 다 메시나와 플랑드르 회화」,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6, 서양미술사학회, 2007, 18~19쪽 설명 참조.

결국, 그림의 주제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관람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울-이차프레임은 그림 전체를 이중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 거울의 존재로 그림이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림 속 모든 오브제들의 의미가 이중적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은 개는 부르주아 일상을 나타내는 대상일 수도 있고 정절을 상징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상들리에에는 아르놀피니의 부를 과시하는 지표인 동시에 결혼의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지표일 수 있으며, 붉은색 가구들 역시 부부의 부를 나타내는 사물이자 출산의 여신을 기리는 결혼의 도상일 수 있다. 즉 그림 속 오브제들은 “단순히 사실적인 모티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림 안에는 “안반 에이크의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중세의 상징주의와 근대의 사실주의가 너무도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다”.²⁰⁾ 르네상스 초기 작품답게 “상징적 가치를 지닌 사물과 사실적인 묘사 사이의 양가성”²¹⁾이야말로 이 그림이 지니는 가장 큰 매혹일 수 있는 것이다.

3. 부조 효과와 디제시스의 확장

일반적으로, 모든 시각예술에서 ‘거울’은 창문과 함께 이차프레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브제에 해당한다. 이차프레임으로서 거울은 창문과 기본적인 특징들을 공유하지만, 그것의 ‘반사’ 성질을 통해 프레임 바깥의 일부를 화면 안에 담아냄으로써 창문과 변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외화면(hors-champ)’이라고도 불리는 프레임 바깥 영역의 삽입을 통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면 영역(화면/외화면)을 공존시킬 수 있는 것이다.²²⁾ 사방으로 펼쳐진 외화면을 프레임 안에 끌어들이 수 있는 기능 덕분에, 거울은 창문이 만들어내는 깊이감

20) Erwin Panofsky, Op. cit., p.127.

21) 스테파노 추피, 앞의 책, 79쪽.

22) Jean Mitry, *La sémiologie en question*, Les éditions du Cerf, 2001, p.88.

과는 전혀 다른, 보다 더 입체적인 깊이감을 창출해낸다.²³⁾ 또한 거울이 관람자 혹은 관객이 위치한 방향의 외화면 영역을 화면 안에 담아낼 경우, 거울 속 이미지는 종종 등장인물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거울 속 인물의 시선 자체가 “화면 밖으로부터의 시선 (regard hors-champ)”,²⁴⁾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 내지는 성찰의 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 에이크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이차프레임으로서의 거울의 기능들을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우선, 거울은 전경의 두 인물에게 집중되는 관람자의 시선을 거울 속 인물들에게로 옮겨가게 하면서 그림의 시각적 중심을 분산시키고, 나아가 두 이미지 영역(거울 속 영역과 거울 밖 영역)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시킨다. 또한 관람자가 위치한 지점의 외화면 영역을 그림 안에 담아냄으로써, 단순한 원근법적 깊이감이 아니라 관람자가 더 깊게 동화될 수 있는 보다 입체적인 공간감을 창출해낸다. 아울러, 거울-이차프레임 안에는 두 주인공의 뒷모습과 함께 그림의 일차프레임이 포획하지 못한 두 인물(화가와 동행인)이 추가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거울 이미지는 서약을 맺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두 인물의 시선과 두 인물을 서약의 증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부의 시선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이는 화가의 자리에 위치하는 관람자 역시 부부의 서약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옹(Jean-Luc Marion)은 이 작품에서 거울-이차프레임이 ‘부조(relief) 효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부조 효과란 ‘가시적인 것(visible)’과 ‘비가시적인 것(invisible)’ 사이에서 일어

23) Ibid., p.91.

24) 시각 예술에서 거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외화면의 시선”을 화면 안에 삽입시켜 화면과 외화면 사이의 교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는 J. Aumont, A. Bergala, M. Marie, M. Vernet, *Esthétique du film*, Nathan, 1983, pp.15~19를 참조할 것.

나는 일종의 역설 효과로, “비가시적인 것이 증가할수록 가시적인 것의 의미가 더욱 심화되는”²⁵⁾ 현상을 가리킨다. 이 그림에서 거울은 프레임의 바깥 영역을 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재현되지 않는 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현된 공간의 의미를 더 심화하고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림이 그것의 일차적 공간을 넘어 “전면의 또 다른 공간으로, 마주보는 전면의 공간을 향해 스스로 열리도록”²⁶⁾ 만드는 것이다. 거울은 그림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반사’라는 방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비가시적인 것들과 가시적인 것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림의 내부 영역과 바깥 영역 모두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둘 모두를 의미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회화의 세계를 더욱 더 넓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 이미지 차원에서 이 그림은 부부의 초상화이지만, 비가시적 이미지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그림의 주제는 결혼 서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거울 속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부조 효과가 “가시적인 것의 혼돈을 팽창시키고, 정렬하여, 조화로운 현상으로 나타내는”²⁷⁾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회화에서 이차프레임은 화면의 깊이감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이미지를 가두어 강조하는 기능 외에도, 종종 그림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거울이 이차프레임으로 사용될 경우, 거울-이차프레임은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을 교통하게 하면서 그림의 영역 자체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회화의 ‘디제시스’를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세계로 변환시킨다. 마치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된 회화 고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5) Jean-Luc Marion, *La Croisée du visible*, Éditions de la Différence, PUF, 1991, p.17.

26) Ibid., p.21.

27) Ibid., p.17.

Ⅲ. 이차프레임과 디제시스의 심층적 확장 - 다 메시나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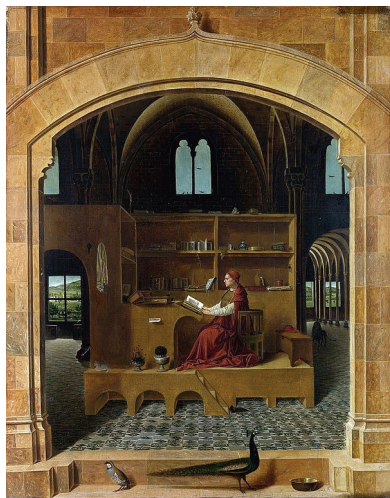
1. 프레임의 연쇄 - 깊이감의 강화와 시선의 유혹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연구실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도판 3)는 서재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성인(聖人)의 모습을 보여 준다.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라틴 4대 교부’로 불리는 성인 중 한 사람으로,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어 역본 성서를 번역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림에서 표현된 고요하고 단출한 서재의 풍경과 독서에 집중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은 학문의 탐구자로서의 성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이차프레임들이다. 먼저 그림의 전경에는 건물의 ‘아치형 입구’가 이차프레임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원경에 보이는 작은 ‘창문들’이 이차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우측 측면에서는 좁은 ‘아치 기둥들’이, 좌측 측면에서는 반쯤 가려진 서재의 ‘아치형 통로’가 아치형 입구와 창문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차프레임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 성인이 앉아 있는 사각형의 ‘서재’도 전경의 아치형 입구 안에 놓인 또 다른 이차프레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이차프레임 안에 다른 이차프레임이 배치되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차프레임이 놓이는 구성은 기본적으로 그림의 깊이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지하다시피, 다 메시나는 플랑드르 회화에 심취했던 나폴리 화가였을 뿐 아니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등의 영향을 받아 입체감과 공간감 표현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였다.²⁸⁾ 이 그림에서도 그는 그림의 전경에서부터 정확한

28) 고종희, 앞의 글, 16~17쪽.

비율로 축소되는 숙련된 중앙투시법을 구사하는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차프레임들의 연쇄가 이러한 중앙투시법이 만들어내는 깊이감을 한층 더 강조한다.



[도판 3] Antonello da Messina,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캔버스에
유화, 1474-1475, 45.7 cm × 36.2 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도판 4] Antonello da Messina,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캔버스에
유화, 1474-1475, 45.7 cm × 36.2 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그런데 원경의 창문들 중 ‘왼쪽 작은 창문’(도판 4)은 단지 깊이감의 강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작은 창문은 이차프레임으로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시선의 유혹’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선의 유혹은 프레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차프레임에 내재된 본질적 기능이다. 이차프레임은 그림의 본래 프레임과 유사한 형태를 그림 안에 반복함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본래 프레임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들면서 프레임 안의 프레임에 갇힌 어떤 특정 요소에 주목하게 한다.²⁹⁾ 그림에서 가장 멀고 깊은 원경의 이미지

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작품에서는 길이 4센티 x 폭 3센티의 아주 작은 공간을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창문 속 풍경은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조르주 페렉(Georges Perec)이 『인생사용법 *La Vie mode d'emploi*』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 작은 창문 너머로 관람자는 “작은 흰 구름들이 흩어져 있는 옅은 푸른색 하늘, 포도나무로 덮인 사면들이 부드럽게 물결을 이루는 언덕의 지평선, 성, 두 개의 길과 그 교차로를 다갈색 말을 타고 달리는 붉은색 복장의 기사, 묘지와 거기서 삼을 들고 무덤을 파고 있는 두 명의 인부, 실편백나무, 올리브나무, 미루나무들로 둘러싸인 강과 그 강가에 앉아 있는 세 명의 낚시꾼,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인물이 타고 있는 조각배로 이루어진 풍경”³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의 전체 구도 및 색과 빛의 구성도 작은 창문 속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먼저, 성인이 앉아 있는 ‘서재’는 초정밀의 풍경을 담고 있는 이 원경의 이차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 그림의 액자와 직접 맞대어 있는 아치형 입구를 제외하면 서재는 그림의 이차프레임들 중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이차프레임이며,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강조된다. 그런데 서재의 색조, 명암, 형상은 작은 창문 속 풍경의 색조, 명암, 형상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아치형 입구의 색조와 거의 유사한 목재의 갈색 색조와 성인의 탁한 자줏빛 의상은 창문 너머의 녹색 풍경 및 푸른 하늘의 색조와 대비되고, 서재 전체를 삼분의 일 가량 덮고 있는 어두운 그들은 창문 속 풍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밝은 명도의 대기와 대조된다. 또 거의 직각의 형태로 앉아 있는 성인의 안정되고 균형 잡힌 자세는 말을 타거나 나룻배를 젓는 창문 밖 인물들의 역동적인 자세와 상반되는 느낌을 전달한

29) Martine Joly, *L'image et les signes. Approche séiologique de l'image fixe*, Nathan, 1994, pp.110~111.

30) Georges Perec, *La Vie mode d'emploi*, Hachette, 1978. p.309. 페렉은 그의 에세이 *Espèces d'espace*(1974)에서도 이 그림의 형식과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Georges Perec, *Espèces d'espace*, Galilée, 1974, pp.117~118).

다. 즉 무겁고 어둡고 정적인 서재의 느낌이 가볍고 밝고 동적인 창문 너머 풍경의 느낌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조는 우리의 시선을 중앙의 서재로 인도한 다음, 자연스럽게 서재 너머 원경의 창문 속 이미지로 향하게 만든다.

다음, 원경의 오른쪽 측면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치형 기둥들’도 좌측의 작은 창문 속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치형 기둥들은 얼핏 오른쪽 원경의 창문을 가리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역할은 이미지의 연쇄를 통해 관람자의 시선을 화면의 더 깊은 곳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아치형 기둥들의 연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위를 그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왼쪽 창문의 조밀한 이미지들을 찾아가게 만든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늘 속에 놓여 있는 ‘건물 상단의 창문들’ 역시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이미지를 담고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왼쪽 아래 창문에 쏠리도록 만든다.

요컨대 다양한 이차프레임들의 교묘한 배치와 연쇄에 힘입어, 그림 속 좌측 원경의 ‘작은 창문’은 매우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의 유혹이라는 이차프레임의 핵심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의 유혹을 통해 화가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화가는 이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차프레임들을 배치하고 서재 안의 성인과 작은 창문 너머의 조밀한 풍경을 대조했을까?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추론을 검토해본다.

2. 정신의 풍경으로서의 이차프레임

먼저, 작은 창문 속 이미지는 독서 중인 성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림 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차프레임은 성인의 서재다.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그림의 제목 자체가 그것을 입증하며, 그에 걸맞게 서재는 그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 입구라는 또 다른 이차프레임에 의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림 안에서의 멀고 가까움과 상관없이, 또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작은 창문과 서재라는 두 이차프레임은 색조, 명도, 인물의 자세 등의 차원에서 분명한 대조를 드러낸다.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두 이차프레임 사이의 이러한 대조는 한가롭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주변 환경의 시간(외적 시간)과 그러한 주변 환경과 단절된 채 고독 속에서 학문에 열중해야 하는 성인의 시간(내적 시간) 사이의 대립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서재가 위치한 수도원 건물의 적막하고 텅 빈 내부 공간과 달리, 창문 너머 바깥에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락, 여유, 일상 등과 단절된 채 “금욕, 고립, 고행”을 택하고³¹⁾ 빛의 세계(실외) 대신 어둠의 세계(실내)를 택하여 학문 탐구라는 외로운 고행을 수행하고 있는 성직자의 ‘내적 갈등’이 두 이차프레임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다양한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도 암시되는데, 가령 두 개의 빛의 원천이 작품 안에서 서로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는 독특한 조명 구성도 그 예에 해당한다. 즉 전경에서 아치형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후경에서 작은 창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서로 뒤섞이며 그림 안에 복잡한 명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³²⁾ 또, 부정적 함의를 내포한 오브제들- 자고새(악마의 새), 고양이(악마의 화신), 꺼진 램프, 창밖의 인간적 풍경(유혹, 방탕, 타락) 등 -과 긍정적 의미를 지닌 오브제

31) 실제로,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에우스토키움 성녀에게 보낸 편지(384년)에서 “광야에서의 금욕적 삶과 고립된 삶, 고행”을 천국에 이르기 위해 자신이 택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설명은 Penny Howell Jolly, “Antonello da Messina’s ‘Saint Jerome in His Study’: An Iconographic Analysis”, *The Art Bulletin*, vol. 65, n° 2, juin 1983, p.243 참조.

32) Mauro Lucco, *Antonello de Messine*, Hazan, 2011, p.176.

들- 공작(불멸, 청렴의 상징), 구리 대야(정결 의식), 유리 물병(성모의 메타포), 카네이션(성모, 언약), 십자고상(十字苦像)(예수의 수난) 등 -이 실내에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도 성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조적인 두 이차프레임의 공존은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고독과 번민의 단계를 이겨내고 ‘정신적 평정 단계’에 이른 성인의 내면 상태를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원경의 작은 창문이 보여주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풍경은 고행하는 성인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유혹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적 탐구 활동으로 지친 성인의 정신에 안식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평화의 이미지일 수 있는 것이다. 무표정의 얼굴이지만 안정된 성인의 독서 자세와 소박한 서재의 모습은 학문의 탐구가 평온한 일상적 삶이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전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된 구도는 멀리 바깥 풍경의 평화로움과 겹쳐지면서, 학문의 탐구를 통해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성인의 일면을 나타내준다. 실제로 히에로니무스 성인의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여러 화가들을 통해 재현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림들에서 성인은 고행에 지친 앙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번민과 고독으로 인해 일그러진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또 대부분의 그림들에서 성인을 둘러싼 환경은 어둡고 답답한 실내이거나 척박한 광야로 나타났다.³⁴⁾ 그러나 다 메시나는 학문의 탐구자로서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안정적인 자세와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려냈다. 비록 작은 창문을 통해서이지만, 성인을 표현한 그림 중 매우 드물게 평화롭고 한가한 자연의 풍경을 담아냈다. 고독과 고통의 여정이 아닌, 평화와 안식의 여정으로서의 학문 탐구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다른 작품에 이처럼 예외적인 평화와 안

33) Penny Howell Jolly, *Op. cit.*, pp.239~241.

34) 예를 들어,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성 히에로니무스>(1476-1500), 알브레히트 뒤러의 <성 히에로니무스>(1521),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1480), 카라바조의 <글을 쓰는 성 히에로니무스>(1605-1606) 등을 상기해보라.

정의 이미지가 구축된 것은 이 그림이 실상은 아라곤 왕국의 알폰소 5세(Alfons V Aragoński, 1396~1458)를 그린 “위장된 초상화”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줄리(Jolly)의 분석에 따르면, 그림 속 성인의 얼굴은 알폰소 5세의 얼굴과 놀랍도록 흡사하다.³⁵⁾ 가령, 피사넬로(Pisanello)가 제작한 ‘알폰소 5세 메달’(도판 5)에는 위의 그림에 나타난 히에로니무스 성인의 얼굴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깊이 들어간 눈, 살짝 통통한 볼, 매부리 코”나 “길게 직선으로 내려온 이마”, “굳게 다문 얇은 입술”, “짧은 턱” 등은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³⁶⁾ 또 다 메시나는 이 작품 외에도 히에로니무스 성인 그림을 두 편 더 남겼는데, <참회하는 성 히에로니무스 St. Jerome Penitent>(Reggio Calabria, 1455)에서 성인은 다른 이탈리아 그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길고 흰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벗겨진 노인의 모습이고, <성 히에로니무스 HI. Hieronymus>(Palermo, 1472-1473)에서는 플랑드르 화가의 그림들에서처럼 검은 머리에 둥글고 납작한 모자를 쓴 젊은 사제의 모습이다. 즉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만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는 다 메시나가 나폴리에 머물 당시 오십대였던 알폰소 5세의 모습과 일치한다.³⁷⁾

따라서 우리는 다 메시나가 아라곤 공국의 수도인 나폴리에 머무를 당시 알폰소 왕의 요청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알폰소 왕이 히에로니무스 성인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시키길 원했을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정통한 학자이자 투철한 신앙생활을 수행했던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르네상스 콰트로첸토 시대에 이미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⁸⁾ 아을

35) 자세한 분석 내용은 Penny Howell Jolly, “Antonello da Messina’s ‘St Jerome in His Study’: A Disguised Portrait?”,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24, No. 946, 1982, pp.26~29 참조.

36) Ibid., p.28.

37) 다양한 문헌들에 따르면 다 메시나는 1445년(15세)부터 1455년(25세)까지 나폴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라곤 왕이 사십대 후반에서 오십대 후반에 이르는 나이에 해당한다. 고종희, 앞의 글, 16~17쪽 참조.

러, 시칠리아에서 나폴리로 건너와 콜란티니오(Colantonio)의 공방에서 활동 중이던 젊은 화가 메시나에게는 왕의 지원과 신뢰를 얻는 것이 그의 경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작품을 재검토하면, 작은 창문 속 이미지는 알폰소 5세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서재에 묻혀 조용히 학문을 탐구하는 동안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을 그의 나라, 즉 그가 소망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의 풍경’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이차프레임 속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라기보다는 인물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상상의 이미지, 즉 ‘정신적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도판 5] Pisanello, 〈알폰소 5세 메달〉, 은, 1449, 지름 10.9 cm, 스페인 국립 고고학 박물관, 마드리드



[도판 6] 작자 미상, 〈서재의 페트라르카〉, 1400, 살라 데이 기간티, 파도바

- 38) 알폰소 왕은 나폴리에 그리스어 학교를 세우고, 파리 대학에 유학생을 보내며, 나폴리 대학의 신학 강좌에 참석하는 등 학문에 깊은 조예를 지녔다. 또 성경을 열네 번 완독하고 성지 탈환을 위해 십자군을 조직하는 등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Penny Howell Jolly, Op. cit., p.29.

3. 비가시적 세계의 가시화와 디제시스의 심층적 확장

위의 추론들 중 두 번째 추론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서 ‘서재’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르네상스 회화에서 서재는 자아 탐구의 공간이자 주체적 사유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는 서재라는 공간의 탄생 배경과도 연관되는데, 14세기 들어 음독(音讀)에서 묵독(默讀)으로 바뀐 독서 방식의 변화가 빠르고 광범위한 개인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며 그런 독서를 위해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³⁹⁾ 이에 따라 중세 수도원의 필사실이었던 스크립토리움(scriptorium)과 수사의 기도실이었던 오라토리움(oratorium) 중 일부가 독서와 학문의 공간인 스튜디오로(studiolo)로 변모하게 되고,⁴⁰⁾ 이후 스튜디오로는 독서의 공간이자 학문 탐구의 공간, 나아가 명상과 사유의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은 초창기부터 독서의 공간이자 사유의 공간으로서 서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가령, 파도바의 ‘살라 데이 기간티(Sala dei Giganti)’에 그려진 <서재의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nello studio>(작자미상, 1400년 경)(도판 6)는 최초의 인문학자라 불리는 페트라르카(Petrarca)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공간은 간소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학문적 탐구와 연관된 다양한 사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 그림에서 페트라르카는 일견 세상과 단절된 채 고독 속에서 학문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자세로 앉아 평온한 상태에서 독서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 평온한 내적 상태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활한 자연 풍경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⁴¹⁾ 화가는 다소 불안정하지

39) 전한호, 「공간의 초상: 페트라르카와 15~16세기 학자 초상을 통해 살펴본 서재의 탄생」, 『미술사와 시각문화』 16호, 2015, 34~35쪽.

40) 같은 글, 36쪽.

41) 창 너머의 거대한 산은 페트라르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비뇽 근처의 방투(Ventoux) 산을 가리킨다.

만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는 좌측의 기둥들을 통해 충분한 깊이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한 원근법을 통해 소실선들이 수렴되는 곳에 위치한 창문 너머의 풍경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그림에서는 평온한 상태의 학자만큼이나 창문 너머의 광활한 자연 풍경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베두타’⁴²⁾라고 할 수 있는 창문의 삽입과 단출한 서재 내부 모습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주제- 서재의 페트라르카 -를 다룬 북유럽 회화들에서 서재 내부 공간이 다양한 사물로 채워져 있고 창문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 메시나 역시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서 초기 르네상스 회화에 서부터 구현되었던 서재의 의미를 충실히 계승한다. 이 그림에는 페트라르카 대신 학자의 수호성인인 히에로니무스 성인이 등장하지만, 페트라르카의 서재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문의 탐구 및 성인의 일상과 관련된 사물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원근법 뿐 아니라 ‘이차프레임의 연쇄’라는 교묘한 방식을 이용해 ‘창문 너머의 풍경’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그림에서도 독서 중인 성인만큼이나 창밖의 풍경이 중요한 시선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풍경을 통해 명상과 사유에 잠긴 성인의 평온한 내적 상태가 강조된다.

이는 동일한 주제-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를 다룬 르네상스의 다른 작품들, 특히 다 메시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다른 두 화가의 작품들과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 에이크의 <서재의 히에로니무스 Saint Jérôme dans son étude>(1442)(도판 7)와 콜란토니오의 <성 히에로니무스 San Gerolamo>(1445-1446)(도판 8)가 그것이다.⁴³⁾ 먼저, 반 에이크의

42) ‘베두타’는 18세기 베네치아 혹은 로마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풍경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으나, 15세기 르네상스 화가들이 창문이나 문 등을 통해 그림 안에 삽입한 외부 풍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피에르 프랑카스텔, 안바롱 옥성 옮김, 『미술과 사회』, 민음사, 1998, 95~99쪽과 Jacques Aumont, *L'oeil interminable*, Op. cit., pp.124~125 참조.

43)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주제와 관련해 반 에이크에서 콜란토니오, 그리고 다 메시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Fiorella Sricchia Santoro, *Antonello et*



[도판 7] Jan van Eyck,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패널에 유화, 1442, 20.6 cm × 13.3 cm, 디트로이트 미술관, 디트로이트



[도판 8] Colantonio,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목판에 유화, 1445-1446, 151 cm × 178 cm, 카폴리몬테 미술관, 나폴리

그림에서 성인의 서재는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학문적 탐구를 나타내는 사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좌측 상단에 마름모꼴 문양이 있는 작은 반 투명 창문의 일부가 보일 뿐이다. 다 메시나의 그림에서 성인이 그림 중앙에 안정된 자세로 묘사된 것과 달리, 이 그림에서 성인은 그림 전경에서 턱을 꺾어 고뇌에 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⁴⁴⁾ 다음, 콜란토니오의 그림에서도 서재는 수많은 학문 탐구의 사물들로 무질서하게 채워져 있으며, 공간은 역시 협소하고, 창문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또 특이하게도 성인은 사자의 발에 낀 가시를 빼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⁴⁵⁾ 이

l'Europe, trad. Hélène Seyrès, Jaca Book, 1987, pp.17~18과 고종희, 앞의 글, 12~23쪽 참조.

44) 전한호에 따르면, 르네상스 학자 초상화에 자주 등장하는 ‘턱 꺾 자세’는 정신적 노고로 겪게 되는 학자들의 ‘우울증’(멜랑콜리)을 의미한다. 자세한 설명은 전한호, 앞의 글, 46쪽 참조.

역시 평온하게 명상에 빠져 있는 다 메시나의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요컨대,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반 에이크)와 그를 추종했던 나폴리 화가(콜란토니오)의 그림에서 서재가 온갖 사물들로 가득 찬 답답한 공간이자 고통스러운 학문적 고행의 공간으로 나타났다면, 북유럽 르네상스의 기법을 수용한 동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신을 계승한 다 메시나⁴⁶⁾의 그림에서 서재는 단출하고 여유로운 공간이자 평온한 명상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다 메시나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서 좌측의 작은 창문-이차프레임은 외부의 풍경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성인의 내적 상태를 암시한다. 엄밀히 말해 성인의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인데, 화가는 일종의 은유를 통해 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⁴⁷⁾ 관람자로 하여금 가시적인 이미지를 통해 비가시적인 것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이끄는 이러한 양식은 무엇보다 관람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즉 이 그림에서 작은 창문-이차프레임은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림 전체에 대한 재사유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회화적 장치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과정을 통해 회화 고유의 세계는 더욱 더 심화되고 확장된다.

45) 전설에 의하면,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사막에서 고행을 하던 중 사자를 만나 죽음을 각오하나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고 목숨을 건진다.

46) 주지하다시피, 다 메시나는 플랑드르 양식과 이탈리아 양식을 접목시키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립한 르네상스 화가로 평가받으며, 특히 “플랑드르 회화와 이탈리아 회화의 조화는 독서하고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를 그린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서 절정에 다다른다.”(고종희, 앞의 글, 21쪽). 플랑드르 양식과 이탈리아 양식을 접목한 다 메시나 회화의 종합적 측면에 관해서는 Anna Swartwood House, *Singular Skill and Beauty: Antonello da Messina Between North and South*, Academic dissertations, Princeton University. 2011을 참조할 것.

47) 이처럼 은유를 통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의 변증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은 이후 다 메시나의 작품에서 종종 발견되며, 대표적인 예로 팔레르모의 <수태고지Annunciazione di Palermo>(1475)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은 Lorenzo Pericolo, “The Invisible Presence: Cut-In, Close-Up, and Off-Scene in Antonello da Messina’s Palermo “Annunciate.””, *Representations*. Summer 2009, Vol. 107 Issue 1, pp.23~25을 참조할 것.

위에서 살펴본 반 에이크의 작품에서처럼 그림의 디제시스가 프레임 바깥의 비가시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정신세계 속으로, 즉 가시적 이미지에 비가시적 이미지가 더해져 구축되는 더 포괄적인 이미지의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다. 전작에서 디제시스의 확장이 공간적 확장에 가깝다면(물론 정확히 말하면 ‘프레임 바깥’도 관람자의 상상으로 구축되는 공간이다⁴⁸⁾), 이 작품에서 디제시스의 확장은 비가시적 영역과 가시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초월적 혹은 심층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차프레임은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이미 단순한 시각적 미장아빔을 넘어 수사학적 미장아빔이자 디제시스적 미장아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주요 작품들에서 이차프레임은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하며,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회화의 디제시스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거울-이차프레임은 그림의 바깥과 안을 서로 교통하게 하면서 회화의 영역을 프레임 바깥까지 연장시킨다. 아울러, 그림의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 모두에 대한 관람자의 상상력을 촉발하면서 회화의 디제시스 자체를 무한히 확장 가능한 하나의 고유한 세계로 변환시킨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가 내포하는 의미의 확장성은 프레임 외부와 내부의 공간적 인접 관계, 즉 기표적 인접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유적 확장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르트의 언급처럼, 환유란 “인접 관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말하자면 전염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의미를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호들의 원형”⁴⁹⁾이기 때문이다.

48) Jacques Aumont, *L'oeil interminable*, Op. cit., p.132 : “엄격히 말해 모든 외화면은, 내화면이 그러한 것처럼, 언제나 상상적이다.”

한편, 다 메시나의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서 창문-이차프레임은 인물의 머릿속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이미지를 유사성을 내포한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은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림의 디제시스(Disseis)는 프레임 바깥으로 확장되기 보다는 그림 속 인물의 정신세계로 혹은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정신세계로 심화되어 확장되는데, 따라서 이 작품에서 회화 이미지는 색과 형태로 구성되는 물리적 실재일 뿐 아니라 관람자의 상상과 정신작용이 더해져 형성되는 정신적 실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재하는 것과 상상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없으며”⁵⁰⁾는 회화는 우리의 상상하는 의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날로곤(유사 표상물)이라는 사르트르의 주장을 넘어,⁵¹⁾ 여기서 회화 이미지는 그 자체로 아날로곤이자 상상하는 의식, 즉 물질적 이미지이자 정신적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9) Roland Barthes, “Sur le cinéma”(entretien, *Cahiers du cinéma*, n. 147, septembre 1963), in *Roland Barthes. Oeuvres complètes. Tome I*, Seuil, 1993, p.1157.

50)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상상계』, 윤정임 역, 에크리, 2010, 266쪽.

51) 같은 책, 46~53쪽 참조.

참고문헌

- 고종희, 「안토넬로 다 메시나와 플랑드르 회화」,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6, 서양미술사학회, 2007, 8~29쪽.
- 구지훈,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를 통해 본 토스카나와 플랑드르 간의 사회적, 예술적 상호 교류」,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2018, 1~33쪽.
- 김태진, 『아트인문학 :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카시오페아, 2017.
- 박성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2, 서양미술사학회, 2010, 35~55쪽.
- 전한호, 「공간의 초상: 페트라르카와 15~16세기 학자 초상을 통해 살펴본 서재의 탄생」, 『미술사와 시각문화』 16호, 2015, 34~63쪽.
- E.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백승길·이종승 역, 예경, 2012.
-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역, 열화당, 2012.
-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사상계』, 윤정임 역, 예크리, 2010.
- 스테파노 추피, 『신과 인간. 르네상스 미술』, 하지은·최병진 역, 마로니에북스, 2011.
- 피에르 프랑카스텔, 『미술과 사회』, 안바롱 옥성 역, 민음사, 1998.
- Aumont, Jacques, *L'oeil interminable*, Séguier, 1989.
- _____, *Image*, Nathan, 1990.
- Aumont, Jacques & Maire, Michel, *Dictionnaire théorique et critique du cinéma*, Nathan, 2004.
- Aumont, J., Bergala, A., Marie, M., Vernet, M., *Esthétique du film*, Nathan, 1983.
- Barthes, Roland, “Sur le cinéma”(entretien, *Cahiers du cinéma*, n. 147, septembre 1963), in *Roland Barthes. Oeuvres complètes. Tome I*, Seuil, 1993, pp.1154~1162.
- House, Anna Swartwood, *Singular Skill and Beauty: Antonello da Messina Between North and South*, Academic dissertations, Princeton University. 2011.
- Jolly, Penny Howell, “Antonello da Messina’s ‘St Jerome in His Study’: A Disguised Portrait?”,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24, No. 946, 1982, pp.26~29.
- _____, “Antonello da Messina’s “Saint Jerome in His Study”: An Iconographic Analysis”, *The Art Bulletin*, vol. 65, n° 2, juin 1983, pp.238~253.

- Joly, Martine, *L'image et les signes. Approche sémiologique de l'image fixe*, Nathan, 1994.
- Lucco, Mauro, *Antonello de Messine*, Hazan, 2011.
- Marion, Jean-Luc, *La Croisée du visible*, Éditions de la Différence, PUF, 1991.
- Mitry, Jean, *La sémiologie en question*, Les éditions du Cerf, 2001.
- Panofsky, Erwin, "Jan van Eyck's Arnolfini Portrait", in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Vol. 64, No. 372, 1934, pp.117~127.
- Perec, Georges, *Espèces d'espace*, Galilée, 1973.
- _____, *La Vie mode d'emploi*, Hachette, 1978.
- Pericolo, Lorenzo, "The Invisible Presence: Cut-In, Close-Up, and Off-Scene in Antonello da Messina's Palermo "Annunciate."", *Representations*. Summer 2009, Vol. 107 Issue 1, pp.1~29.
- Santoro, Fiorella Sricchia, *Antonello et l'Europe*, trad. Hélène Seyrès, Jaca Book, 1987.
- Souriau, Anne & Souriau, Etienne, *Vocabulaire d'esthétique*, PUF, 1990.

The Secondary Frame as Diegetic Mise En Abyme:
Focused on the Paintings of Jan van Eyck
and Antonello da Messina

Kim, Ho-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cases among the various cases of diegetic mise en abyme in Renaissance paintings. One is the case where the space of painting is expanded to the area beyond the frame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xterior of the frame, and the other is the case where the painting is sublimated into a comprehensive area that encompasses both physical and mental reality. First, we will analyze *Portrait of the Couple Arnolfini*(1434) by Jan van Eyck, a painter representing Flemish painting in the first half of the 15th century, and then *St. Jerome in his Study*(1474-1475) by Antonello da Messina, a representative Italian painting of the late 15th century. In the first picture, the mirror-second frame allows the outside and inside of the pictur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extends the area of the picture to the outside of the frame. In addition, while igniting viewers' imagination of both the visible and invisible areas of the painting, the diegesis of the painting itself is transformed into a unique, infinitely expandable world. In the second picture, the window-second frame expresses the mental image formed in a person's head as a symbolic image with similarities. Furthermore, the diegesis of a painting deepens and expands into the spirit world of the person in the picture or the spirit world of the viewer who sees the painting, rather than extending outside the frame.

Keywords : second frame, diegetic mise en abyme, Jan van Eyck, Antonello da Messina, *Portrait of the Couple Arnolfini*, *St. Jerome in his Study*

투고일: 2020. 08. 17./ 심사일: 2020. 09. 08./ 심사완료일: 2020. 09. 09.

인공지능의 탈신화화

— 다큐멘터리 〈알파고〉와 강/약 인공지능 개념을 중심으로*

윤나라**

【 차 례 】

- I. 여는 말
- II. 다큐멘터리 〈알파고〉가 재현한 인공지능
- III. 지능에 관한 인지과학의 이해
- IV. 외움에서 배움으로 : 오토메이션과 강/약 인공지능
- V. 강 인공지능의 신화에 관한 비판적 사유
- VI.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동시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신화에 관해 사유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데 목표를 둔다.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바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대국을 전함에 있어, 대중 매체들은 ‘강 인공지능은 인간의 적이며 인간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시청각적 기표들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알파고로 대표되는 동시대 인공지능에 관한 신화를 증폭했다. 그로부터 대략 4년 반 가량이 지난 지금, 심층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동시대 인공지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융합되었다. 반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신화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두려운 어떤 것인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이세돌과 알파고

* 이 글은 한국기호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 프랑스 파리 8대학 예술공학(EDESTA) 박사과정, 예술단체 아토(ARTO) 아트디렉터, kstyler1020@gmail.com.

의 대국을 다룬 다큐멘터리 <알파고>의 시청각적 기표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인지과학의 관점을 빌어 신화화된 인공지능에 담긴 해묵은 함의들을 털어냄으로써 그것을 탈신화화하고, 인공지능을 기술 그 자체로서, 나아가 또 다른 하나의 지능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열쇠어 :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 심급, 톨랑 바르트, 신화, 인지과학, 인공 신경망

I. 여는 말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대국은 비단 바둑 계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에,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상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관한 세간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중 하나인 바둑은 그 특유의 복잡도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 나아가 알고리즘(Algorithm) 설계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전반에 있어 이른바 성배나 다름없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점에서 가능한 착수(着手)는 체스의 경우 대략 20개 남짓인데 반해, 바둑은 200여개에 달한다. 이 수를 판 전체에 적용했을 때, 바둑 한 경기 안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Observable universe)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原子, Atom)의 수보다 더 많다. 이것은 슈퍼컴퓨터(Supercomputer)를 비롯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를 전부 동원한다고 해도 그 연산에 100만년 이상 걸릴 정도로 많은 수다.

그러므로 어떤 한 인공지능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외워서’ 바둑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사라도 예외는 없다. 멋진 수를 둔 이에게 왜 그 자리에 착수했는지를 물으면, ‘거기 두어야 할 것 같았다’ 또는 ‘그냥 거기 두었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세돌 또한 알파고와의 제 4국 직후 인터뷰에서, 78번째 수를 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거기 말고는 둘 데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¹⁾

어떤 기사라도 그의 모든 착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것은 이해할 만한 대답이다.

요컨대 대국 중에 발생하는 착수는, 특히 그 중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인 수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묘수(妙手)는, 대부분 그 수를 둔 기사와 직관 또는 감각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이었다. 별다른 이의 없이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직관과 감각이,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직관과 가장 섬세한 감각을 지니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거듭해온 인간이 “확률적 계산에 의존할 뿐인 기계”²⁾와 대결하여 완패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은 바둑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에 관한 공포 역시 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전하던 대중 매체들은 ‘격돌(Smackdown)’, ‘전투(Battle)’, ‘대결(Throwdown)’ 혹은 ‘싸움(Fight)’ 등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조장하고 증폭했다.³⁾

1)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알파고(AlphaGo)>. Greg Kohs, *AlphaGo*, 2017, 1시간 14분 43초부터 1시간 14분 57초까지.

2) 알파고의 2국 37번 수에 관한 이세돌의 소회, 같은 영상, 52분 10초부터 52분 37초까지.

3) “대국을 지켜보던 프로기사들은 이세돌 9단의 완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희성 9단은 “알파고의 시야가 너무 넓은 것 같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넓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도 이 9단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룡 9단은 “어디에서 졌는지 모를 정도로 알파고에 완패했다. 인간으로서 매우 자만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덕관 기자, 「이세돌 충격의 ‘완패’」, 『한겨레』 2016년 3월 10일. 참고. <http://www.hani.co.kr/arti/sports/baduk/734309.html>.

“알파고와 이세돌의 진정한 대결은 바둑이 아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어쩌면 그동안 경쟁자 없이 지구를 지배하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 김대식(KAIST 전기 및 전자과)의 중앙일보 기고문, 「알파고와 이세돌의 진정한 대결은 바둑이 아니다」, 『중앙일보』 2016년 3월 11일.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19710186>.

“‘인류 대표’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와 겨룬 마지막 대국에서 아쉽게 역전패했다 [중략] 이번 대회 들어 가장 긴 5시간여의 사투를 벌였지만, 한두 집 차이를 끝내 좁힐 수 없어 돌을 던졌다.” 엄민용·이인숙 기자, 「불리한 ‘흑’ 자청 5시간 대월투」, 『경향신문』 2016년 3월 15일.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3152238015.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대략 4년 반 가량이 지난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들을 비롯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심지어 밥솥 등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우리의 일상 도처에 산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율주행 알고리즘, 물류 예측 및 최적화 서비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감염자의 동선파악, 감염경로 예측 및 감염/전파모델 시뮬레이션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의 정책 역시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직·간접적인 동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주목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여전히 잘 모르는 어떤 것, 실체가 모호한 어떤 것, 따라서 때로는 두려운 어떤 것 정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의 신화화(神話化) 과정 분석을 통해 탈신화화(脫-)를 시도하며, 인공지능을 기술 그 자체로서, 나아가 또 다른 하나의 지능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다큐멘터리 <알파고>가 재현한 인공지능

2017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비교적 담담하게 묘사한다. 그 결과 이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른바 “붉게 빛나는 눈을 한 터미네이터 류의 로봇”⁴⁾에 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하는 대신, 동시대 인공지능의 핵심이 소프트웨어, 인공 신경망(人工-, Artificial Neural Network), 빅 데이터(Big Data),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그 중에서도 딥 러닝(Deep

4)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교수인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의 인터뷰, 같은 영상, 56분 36초부터 56분 59초까지.

Learning)이라는 용어로 더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심층학습(深層-)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요컨대, <알파고>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대국이라는 대결구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극적 효과와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거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충분하고 유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알파고 제작팀, 이세돌, 바둑계 인사들, 대중 매체들의 보도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입장들을 묘사한다.

시작-종료	분량	시퀀스	내용	주요 등장인물
00:00:00 - 00:28:05 (시:분:초)	28분 05초	대국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둑에 관한 간략한 소개 : 규칙,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바둑이 갖는 의의 등 동시대 인공지능의 특징이자 전시대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에 관한 간략한 소개 : 인공 신경망, 빅 데이터, 딥 러닝 등 	데미스 하사비스 관 후이 아자 황 알파고 개발진 이세돌
00:28:05 - 00:48:17	23분 12초	대국 1, 알파고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에 관한 대중 매체들의 전망 인간이 아닌 상대와 대국하는 이세돌의 어려움 알파고의 착수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바둑 중계진 알파고의 첫 승리를 자축하는 개발진 이세돌의 1국 패배에 관한 대중 매체들의 논평 	아자 황 이세돌 알파고 개발진 바둑 중계진
00:48:17 - 00:58:15	9분 58초	대국 2, 알파고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국에 관한 대중 매체들의 전망 다른 스타일로 바둑을 두는 이세돌 알파고를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들의 작동 원리에 관한 간략한 소개 알파고의 37번 수와 그 수에 대한 이세돌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 	알파고 개발진 아자 황 이세돌 케이드 메츠 닉 보스트롬 데미스 하사비스

시작-종료	분량	시퀀스	내용	주요 등장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세돌의 2국 패배 및 알파고의 37번 수에 관한 대중 매체들의 비관적 반응 인공지능에 관한 보편적 오해와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00:58:15 - 01:03:55	5분 40초	대국 3, 알파고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 다른 스타일로 바둑을 두는 이세돌 이세돌의 3연패와 중계진들의 비관적 반응 	이세돌 아자 황 바둑 중계진
01:03:55 - 01:16:04	12분 9초	대국 4, 이세돌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시 한 번 스타일을 바꾼 이세돌 이세돌의 78번 수와 그로 인한 알파고의 연속된 실착 이세돌의 첫 승리와 다소 상기된 대중 매체들의 반응 	이세돌 아자 황 알파고 개발진 바둑 중계진
01:16:04 - 01:25:34	9분 30초	대국 5, 알파고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 매체들의 관심 고조 새로운 행마를 선보이는 알파고 알파고의 최종 승리 알파고의 새로운 행마의 의미와 대국의 의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이세돌 알파고 개발진 바둑 중계진 케이드 메즈
01:25:34 - 01:27:27	1분 53초	대국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에 관한 이세돌의 소회 알파고의 최초 트레이닝에 깊게 관여했던 판후이의 소회 	이세돌 판 후이

[표 1] 대국을 중심으로 본 다큐멘터리 <알파고>의 시퀀스

다큐멘터리 <알파고>는 ‘대국 성사 전(도입) - 대국 1 - 대국 2 - 대국 3 - 대국 4 - 대국 5 - 대국 후(종결)’로 구성된다. 각 대국의 전과 후에는 대국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묘사와 이세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배치하여 각각의 대국들이 일종의 소 도입부와 소 종결부를 갖는 형식으로 맺음되었다.

우리의 삶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구성되어 발화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거의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는 그것이 픽션이건 논-픽션이건 예외

없이 누군가에 의해, 즉 특정한 ‘주체’에 의해 기획, 구성 그리고 제작된다. 이때 ‘주체’는 작가 혹은 감독 등의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추상적인 것으로서, 주체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여러 형태들을 모두 아우른다.⁵⁾ 과학기술을 다루는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다큐멘터리 <알파고>의 주체(혹은 창작심급) 또한 <알파고>의 형식을 결정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다큐멘터리를 연출한다. 관객은 그렇게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고, 듣고,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파고>는 인공 지능을 둘러싼 담화(Discours)이다.⁶⁾ “언표(Énoncé)의 연속인 담화는 반드시 언표상황(Énonciation)의⁷⁾ 주체를 상정한다.”⁸⁾

<알파고>의 언표상황은 크게 4 종류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픽션 영화

-
- 5) 참고. Christian Metz, *L'énonciation impersonnelle ou le site du film*, Klincksieck, 1991. 영화기호학자로서, 크리스티앙 메츠는 다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주체’ 대신 ‘이야기하는 심급(instance racontante)’이란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메츠는 때로는 알베르 라페(Albert Laffay)의 ‘그랑 이마지에(grand imagier)’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본인의 이론을 펼침에 있어서는 심급을 채택했다. 그랑 이마지에 개념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Albert Laffay, “Le récit, le monde et le cinéma”, *Logique du cinéma*, Masson, 1964, pp.51~90.
- 6) 프랑스어 discours는 강연, 연설, 이야기, 담화, 견해, 입장, 논지, 담론, 화법, 추론 등의 다양한 함의를 가진다. Histoire 역시 역사, 연혁, 내력, 전기, 이야기, 사건, 문제, 소란, 말썽 등 discours 만큼이나 그 단어의 사용에서 복합적인 층위가 존재한다. 벤베니스트는 discours/histoire를 하나의 대립쌍 개념으로 보았다. 발화 상황이 고려되거나, 발신자의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기표들을 포함하는 경우 discours 개념을 부각시키고, 사건이 스스로 이야기되는 듯한 진행, 이야기하는 사람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 histoire 개념을 부각시켰다. 참고. Émil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1966.
- 7) “1960년대까지 언표 상황 개념은 언어학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일상의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발화된 언표에는 언표 발화자 (énonciateur)와 언표 수신자(énonciataire)를 지시하는 기호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너, 나, 그 등과 같은 대명사는 담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를 획득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저기, 어제, 오늘 등 장소와 시간을 지시하는 표현 역시 발화 순간과 연계될 때에만 정확한 의미를 획득한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기표를 중심으로 발화자와 수신자 그리고 맥락의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이 바로 언표 상황 연구라 하겠다.” 이수진, 『크리스티앙 메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80쪽. 영화의 언표 상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수진의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 8) 크리스티앙 메츠, 『영화의 의미작용에 관한 에세이 1권』, 이수진 역, 문학과 지성사, 2011, 33쪽.

와 유사한 것으로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행동을 촬영한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상황의 시청각적 재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는 픽션 영화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알파고>				
창 작 심 급		다큐 내부의 발화심급	형식	관 객
	상황의 시청각적 재현	대화 상황의 직·간접적 참여자 : 알파고 개발진, 아자황, 이세돌, 대국 중계진, 동료 기사 등	통상적인 픽션들과 유사한 관습적인 연출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들 : 인공지능 연구자, 알파고 개발진, 동료 기사, 이세돌 등	화면 밖에 있었을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관습적 연출	
	정보의 시각화	각 분야 전문가들	인포그래픽 및 그것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보이스오버를 활용해 시청각 보조자료로서 연출	
	대중 매체	대국 중계진, 뉴스 앵커, 신문 기사, SNS 등	화면 인서트, 기사 시각화, 뉴스 앵커의 보이스오버, 웹브라우저 및 앱 화면 캡처 등	

[표 2] 다큐멘터리 <알파고>의 심급

두번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다.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 장면에서, 연출자는 인터뷰 받는 대상들을 카메라 정면이 아니라 카메라로부터 약간 비껴 보는 듯한 구도로 연출한다. 이 때, 인터뷰 대상자들(Interviewee)의 시선 방향 화면 바깥에 위치하고 있을 질문자(Interviewer)의 모습이 나 질문의 내용은 어떤 형태로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객은 전문가들이 그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인터뷰 장면 연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법이다. 등장인물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180도 법칙이나 컷 전환시 이동방향의 일치 등과 같은 일종의 불문율로서, 영화의 ‘현실효과(impression de réalité)’를 증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다.⁹⁾

세 번째는 ‘정보의 시각화(Visualization)’라고 지칭할 만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다. 인포그래픽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다큐멘터리에 ‘반드시’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대중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 보조자료 중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포그래픽은 현실의 재현 또는 매개와는 거리가 멀다. 인포그래픽에 의해 시각화된 정보는 그것의 앞과 뒤에 붙은 장면들과 외견상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식도 대상 관객에 따라 폭넓게 달라진다. 영·유아 대상 다큐멘터리와 특정 전문가 집단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의 시각화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 또한, 정보의 시각화 과정에는 어떤 정보를 시각화 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과학 기술 다큐멘터리에서, 인포그래픽을 만든 사람은 그 다큐멘터리 안에 또는 ‘언표된 것’ 안에 등장하지 않는다. 요컨대 인포그래픽은 그것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 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즉 창작십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그가 언표된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과학과 기술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네번째는 대중 매체들이다. 여기에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중계, 그에 관한 뉴스 보도, 신문 기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이 포함된다. 다큐멘터리 <알파고>는 인터뷰 화면 인서

-
- 9) “영화는 관객이 지각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유발시키고(사실 영화관에서 지루해지는 일은 드물다), 단번에 일종의 믿음을 조성한다(여기에서 믿음이란 물론 다른 분야에서 보다 훨씬 강력하고 가끔은 절대적으로 너무 생생하기도 하다). 영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바로 이런 거랍니다.”라고 하듯이 확신에 찬 방식으로 말을 걸며, 언어학자가 별 어려움 없이 단정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언표형태를 이루며, 게다가 매우 종종 진지하다고 인식된다. 상당한 신뢰를 주는 영화의 현존 방식이 있다. 이러한 ‘현실 외양’, 지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은 대중을 자극하는 재주가 있다.” 앞의 책, 14쪽.

트, 신문 기사 시각화, 뉴스 앵커의 보이스오버(Voice-over), 웹브라우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하여 대국 상황을 비교적 빠른 리듬으로 편집하여 제시하는데, 이것은 관객 또는 시청자로 하여금 긴장 및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또한 픽션 영화에서건 논-픽션 다큐멘터리에서건 자주 사용되는 관습적인 연출이다. <알파고>에 묘사된 대중매체들은 격돌, 전투, 싸움, 인간, 기계 등의 용어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양 기사간의 대국(-局)을 기계와 인간의 대결(-決)로 비화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디스토피아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국을 중계하는 해설자들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된다. 해설자들은 “알파고가 마치 사람처럼 바둑을 두려고 한다”거나 (34분 1초), “실착처럼 보이는 알파고의 착수가 실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라면 [알파고가 정확히 이기는 만큼만 바둑을 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따위의 발언을 통해 (38분 59초), 그들 스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알파고를 비롯한 인공지능 전반에 관련된 신화의 ‘창궐(猖獗)’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반면, 대중 매체들이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유일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인간’이라고 칭하는 이세돌 본인은 자신의 패배와 열세를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1국 후에 행해진 인터뷰에서 알파고를 제작한 프로그래머들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다(43분 32초). 이세돌이 알파고의 개발자들을 직접 언급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통상, 인공지능에 관한 콘텐츠들은 그것의 제작자인 개발자 또는 프로그래머를 거의 부각시키지 않거나, 그들에 관한 근거 없는 오해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논-픽션의 경우, 주로 부각되는 것은 시리게 파르스름한 조명 아래 붉게 빛나는 눈을 한 매끈한 금속 로봇 이미지를 동반한 인공지능의 진부한 인포그래픽이지 그것의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는 아니다. 픽션의 경우, 인공지능 개발자는 자주 ‘미친 과학자(Mad Scientist)’ 혹은 ‘돈만 좇는 사업가’ 따위로, 다시 말해 ‘음험한 의도를 가진 그리 달갑지 않은 자’쯤으로 취급된다.

다큐멘터리 <알파고>는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할애된 시간동안, 그들은 알파고에 관해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그것에 관련된 기술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준으로 설명하려 시도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 제작자 또는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매우 빈번하게 인공지능을 다른 어떤 것, 특히 일종의 ‘유사(類似) 또는 의사(疑似) 인간’적으로 의인화(Anthropomorphization)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혹은 ‘이해로 착각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¹⁰⁾ 다큐멘터리 <알파고>에 등장하는 답마인드의 엔지니어들은 알파고를 의인화 하지 않으며, 알파고 뿐만 아니라 제반 인공지능들을 소프트웨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우리에게 알파고는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해설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알파고를 ‘그’ 또는 ‘그녀’로 지칭한다. 그러나 알파고는 정말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며, 완전 인공지능(完全-, Full AI)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¹¹⁾ 이러한 연출과 구성은 AI가 창작된 혹은 생산된 결과물이란 점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의인화는 우리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마치 기계로 하여금 인간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을 가능케 하거나 심지어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도록 했다. 이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 지능보다 더 특별하거나, 인공지능의 발생이 인간의 그것과 대단히 다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지능의 그것과 닮아있다.¹²⁾

10) 닉 보스트롬은 이 점을 분명하게 비판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인화하는 경향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실제로 줄 영향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같은 영상, 56분 36초부터 56분 59초까지.

11) 알파고 개발팀의 프로그래머인 줄리안 슈리트와이어(Julian Schrittwieser)의 인터뷰, 같은 영상, 56분 14초부터 56분 35초까지.

12) 그러나 인공지능의 작동의 결과가 인간지능의 그것과 비견할 만하거나 유사하다는

Ⅲ. 지능에 관한 인지과학의 이해

인공지능 연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메이시 학술대회(Macy Conference)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두뇌에는 어떤 규칙도, 어떤 중앙처리장치도, 어떤 특별한 저장 공간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¹³⁾ 이른바 연결주의(Connectivism)로 불리는 이 관점은 자기조직(Self-organization), 분산체계(Distributed system),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유기체의 경험과 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지적 능력이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뉴런들이 자기조직적으로 상호 연결된 전체 신경망, 즉 커넥톰(Connectome)으로부터¹⁴⁾ 창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⁵⁾ 하나의 신경망은 무수히 많은 뉴런

것이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이 인간지능의 작동 과정에 유사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추는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정신이나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가정으로부터 기인한다. “인공지능은 전혀 인간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김진석,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 인간 강화와 인간 잉여의 패러독스』, 글항아리, 2019, 271쪽.

- 13) 두뇌는 신경망으로부터 자극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자극을 처리하여 정보를 생산하며, 생산한 정보를 다시 신경망을 통해 필요한 신체 부위로 전달한다. 그러므로 인지과학의 초기였던 1950년대에 제시되었던 기호조작(Symbol manipulation)의 관점이 인지를 두뇌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합리적이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지는 그 외부 세계를 그에게 주어진 표상(Representation)들을 통해 인지하며, 따라서 표상 또는 기호(Symbol)는 곧 인지의 매개체로 작동한다. 이 때 인지자가 위치한 외부 세계의 특정한 정보는 그것을 특정하게 표상하는 특정한 기호에 담겨 두뇌 내 특정 장소에 저장되고, 두뇌는 그것을 특정 원칙에 의해 불러내어 특정 과정을 통해 특정하게 처리, 즉 연산(Compute)한다. 이것이 이른바 계산주의(Computationalism)적 관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두뇌만으로도 인지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며, 반대로 두뇌 없이도 얼마든지 인지가 발생 가능하다는 말도 아니다. 따라서 계산주의와 연결주의는 상호 배제적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실제로, 인지과학적 접근은 재현과 표상의 개념에 대한 재사유 혹은 기호의미의 비표상적 생성에 대한 고찰에 주효하다. 참고. 조창연, 「비표상적 기호의미 생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18, 2005, 한국기호학회, 249~275쪽.
- 14) 게놈(Genome)이 생물의 유전정보가 저장된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전체를 일컫는 용어이듯이, 커넥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들 간의 연결 총체를 의미한다. 참고. 송현준, 『커넥톰, 뇌의 지도』, 신상규 역, 김영사, 2014, 18~19쪽.
- 15) 어떤 하나의 닫힌 복잡계(-界, Complex System) 내에서, 부분들의 활동이 전체 계에 미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환기할 때 이 계는 창발적 속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

들에 의해 형성된 무수히 많은 상호 연결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결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거나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커넥톰 또는 자연 신경망은 특정 가능한 단일 신체 기관이라기보다는, 두뇌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망을 아우르는 특정 불가능한 어떤 ‘총체’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자연 신경망의 구조와 작동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인공지능의 핵심인 인공 신경망이다. 1957년,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에 의해 제작된 퍼셉트론(Perceptron Mark I)을 시작으로, 인공 신경망은 그것을 구성하는 인공 뉴런들의 개수를 늘리고, 각 뉴런들 간의 상호 연결점인 노드의 개수 또한 끊임없이 늘리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심층 인공 신경망(深層-,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란, 보다 더 많은 노드 개수와 보다 더 복잡한 뉴런 간 상호 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 뉴런들을 단층으로 배열하지 않고 다층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경망은 단층 신경망에 비해 더 복잡적이고 더 총체적인 특성을 갖는다. 심층 학습 혹은 딥 러닝은 이 심층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머신 러닝의 한 방법론을 일컫는 용어다.

때 이 전체 계는 부분의 총합과 등가가 아니며,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체는 부분의 총합과 다르지 않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창발적 관점에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각자의 고유한 특성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 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총체로서의 계 그 자체의 작동까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런 체계 [자기 조직적 신경망 체계]에서는 중앙처리장치가 필요 없다. 국지적(Local) 규칙으로부터 전역적(Global) 협력으로의 변화는 사이버네틱스가 유행하던 시절 자주 언급되었던 자기조직화의 핵심이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창발적(Emergent) 속성 혹은 전역적 속성, 연결망 역학(Network Dynamics), 비선형 연결망(Nonlinear Networks), 복잡계(Complex Systems) 또는 상호공조체계(Synergetics)라 불린다.” 참고, Francisco J. Varela, Evan T.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e MIT Press, 1991 (revised edition, 2016), pp.88~91.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한국어 번역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 보완 하였다. 참조. 프란시스코 바렐라, 『몸의 인지과학』, 석봉래 역, 김영사, 2013.



[그림 1] 알파고의 탐색망의 작동원리에 대한 시각화 (일부),
그렉 코오스(Greg Kohs), *AlphaGo*, 2017.

앞서 언급했던 알파고는 다수의 심층 인공 신경망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 3종은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하다.¹⁶⁾ 가장 먼저 정책망(Policy network)은 학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공 신경망이다. 알파고는 10만개 이상의 기보를 학습함으로써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때 정책망은 알파고로 하여금 기보를 어떻게 학습할지, 바둑은 어떻게 두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정책망은 처음에는 배운 기보를 모방해 바둑을 두도록 알파고를 훈련(Training)했고, 기보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는 다양한 버전의 알파고 끼리의 자가대국에도 관련했다. 알파고는 수백만 판 이상의 자가대국을 통해 바둑을 배웠고, 정책망은 이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했다.

다음으로 탐색망(Search network)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바둑 식으로 말하자면 ‘수를 읽는’ 인공 신경망이다. 탐색망은 비단 알파고 스스로의 착수뿐만 아니라 상대의 착수까지 전부 고려해 앞으로의 수를 가늠한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첫 대국에서 이세돌이 첫 수를 놓았을 때 알파고

16) Demis Hassabis et al.,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s and tree search”, *Nature* 529:7587, 2016, pp.484~489.

가 응수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아직 놓인 돌이 너무 적어서, 바뀔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알파고의 관점으로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다. 실제로, 대국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알파고의 착수 속도는 전반적으로 약간씩 빨라졌다. 이는 바둑판 위에 돌이 점점 더 놓임으로써 빈자리가 줄어들어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달리 말하자면 내다보아야 할 수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둑에서 가능한 수는 우리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를 다 합한 것 보다 더 많다. 따라서 판 전체를 한꺼번에 읽고 모든 착수 지점에서 가능한 모든 잠재적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때 관여하는 것이 세번째 인공 신경망, 가치망(Value network)이다. 가치망은 알파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 국면을 각 형국(形局)별로 나누고, 나누어진 형국별로 승률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각 형국의 유불리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가치망은 이 판단된 결과값을 전체 국면에 반영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야 최종 착수 지점을 결정한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다중 심층 인공 신경망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첫째 최대한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둘째 배운 내용들에 기반해 차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건들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멀리, 최대한 상세하게 가늠해보고, 셋째 그 중 스스로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서 주어진 목표를 수행한다.

앞에 요약된 과정이 비단 인공지능의 학습과 과업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부 분야에 상관없이 우리는 첫째 선배, 동료, 후배들의 작업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둘째 그렇게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셋째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인간은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다. 이것들이 무르익을수록 더 깊은 관찰(觀察), 성찰(省察), 통찰(洞察) 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찰(察)’, 즉 깊이 굽어 살피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음은 이 글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신경망이라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 신경망과 인간 신경망은 둘 다 신경망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게 지적(Intelligent)이다.

IV. 외움에서 배움으로 : 오토메이션과 강/약 인공지능

인간의 배움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이듯이, 인공지능의 학습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곧 ‘대단히 많은 또는 대단히 큰 데이터’, 즉 빅 데이터이다.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은 이 빅 데이터를 학습하며, 학습의 성취도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한다. 어떤 인간도 지적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인공지능 또한 충분한 학습 없이는 지적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알파고가 기보를 외워서 바둑을 둔 것이 아니듯, 인공지능의 학습은 암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머신 러닝의 관점이 도입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예로 들자면, 수천만 장의 사람 얼굴 사진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특정 저장 공간에 저장해 두는 것, 즉 ‘외우는 것’은 학습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얼굴들을 봄으로써, 눈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위치하고, 남성의 턱선과 여성의 턱선은 어떻게

다르게 생겼으며, 어린아이의 인종의 길이와 성인의 인종의 길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는 것’ 이 머신 러닝으로서의 인공지능의 학습이다.

이 때 인공지능의 제작자들은 마치 선생이 학생을 지도할 때처럼 그들의 인공지능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눈은 항상 눈썹 밑에 있으므로 눈썹 위에서 발견되는 동그란 어떤 것은 눈동자가 아니라 점으로 인식하도록 인공지능의 매개변수를 조정하며, 남성으로 판단된 얼굴의 두개골의 최상부를 기준으로 그것의 상하 대칭점 쪽에서 인지된 체모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턱수염으로 인식하도록 변수를 조정한다. 모든 변수들이 적절히 조절된, 다시 말해 인간의 얼굴을 잘 인식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은, 학습했던 데이터에 들어있던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진 또는 심지어 동영상을 접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형상이 인간인지 아닌지, 인간이라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인인지 유아인지 등을 큰 문제없이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한 인공지능이 주어진 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주어진 목표에 맞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작자들의 조정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작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학습이 끝난 것이 아니다. 얼굴 인식을 위해 훈련된 인공지능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동시에 학습과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딥 러닝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주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은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면서 그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정교해진다.

이것이 외음과 배움의 가장 큰 차이이며, 나아가 오토메이션(Automation)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오토메이션은, 그 용어가 이미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화(Automate)된 것이다. 인공지능과 달리 이 방식은 가능한 잠재적 경우의 수를 스스로의 안

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즉 외우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오토메이션은 첫째 주어진 상황이 최대한 단순하거나 반복적일수록 즉 복잡하지 않을수록, 둘째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의 경우의 수가 적을수록 즉 예측의 불확실성이 적을수록, 셋째 이미 확보한 대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할수록 잘 작동한다. 바꿔 말하자면, 오토메이션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이미 외워 둔 것 안에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서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것이 오토메이션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문제 하에, 빅 데이터로 학습하고 훈련한 인공지능은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식을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스스로의 배움으로부터 창발적으로 이끌어낸다. 반면 오토메이션은, 파악된 상황에 적합한 대처 방식을 스스로에 이미 확보된 대응 방안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즉 이미 외우고 있는 것에서 꺼내 와서 제시한다. 이미 외워 둔 것에서 꺼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토메이션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오작동한다. 오토메이션이 오작동하지 않으려면, 바꿔 말하자면 더 복잡한 상황 또는 처음 마주하는 생소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려면, 더 많은 것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오토메이션의 암기량이 늘어날수록 덩치는 점점 불어나고, 성능은 저하된다. 외운 것이 지나치게 많아진 나머지 스스로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셈이다. 속된 말로 어떤 프로그램의 반응이 굼뜨거나, 랙이 걸리거나, 심지어 다운되었다는 표현들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오토메이션은 ‘배우기’보다는 ‘외우기’에 더 적합하고, 실제로 후자를 위한 설계 방식이며, 따라서 후자를 더 잘 한다. 그러나 이 특성 때문에 오토메이션이 인공지능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7곱하기 8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로 셈할 필요가 없듯이, 인공지능보다 오토메이션이 더 적합한 상황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오토메이션은 우열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인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과 오토메이션의 결과물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닮아 있으며, 따라서 결과물만 놓고 이 둘을 명백하게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이 둘은 빈번하게 혼동된다.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아야 할 많은 앱,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다. 이것들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더는 그렇게 포장되어 팔릴 수 없게 되자, 이내 다른 용어가 마케팅 전략에서 남용되기 시작했다. 강/약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약(弱)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특화된 특정 알고리즘과 특정 신경망 그리고 특정 학습 및 특정 훈련을 그 기반으로 삼는다. 이 부류의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특정한 결과를 내도록 특정하게 설계된 것들이다. 약 인공지능의 예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실은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알파고도, 오직 바둑만을 잘 두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므로 약 인공지능이다. 알파고를 기반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도, 일본식 장기도 둘 줄 알게 된 알파제로(AlphaZero)가 등장했고,¹⁷⁾ 복잡하게 겹치고 얽힌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알파폴드(AlphaFold)가,¹⁸⁾ 또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알파스타(AlphaStar)까지¹⁹⁾ 등장했으나, 알파폴드는 바둑을 둘 줄 모르며 알파스타는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할 줄 모르므로 이들 또한 예외 없이 모두 약 인공지능들이다.²⁰⁾

17) Demis Hassabis et al., “A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that masters chess, shogi, and go through self-play”, *Science* 362:6419, December 7th 2018, pp.1140~1144.

18) Richard Evans et al., “De novo structure prediction with deep-learning based scoring (abstract)”, *13th Critical Assessment of Techniques for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2018.

19) Kai Arulkumaran, Antoine Cully, Julian Togelius, *AlphaStar: An Evolutionary Computation Perspective*, *arXiv:1902.01724v3*, February 5th 2019, (최초버전) ; July 14th 2019 (버전 3).

자율주행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다. 이 인공지능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조향핸들을 조작하고, 동시에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주변을 살펴 왼쪽 골목길에서 혹시라도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발자전거를 경계하는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듯 해 보이지만, 이 인공지능은 오직 안전운전에만 그 목적이 있을 뿐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음악을 작곡할 줄 모르며 바둑을 둘 줄 모르므로 약 인공지능이다. 밥 딜런 스타일로 쓴 가사에 비틀즈 스타일 곡을 입히고 연주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또한, 오직 음악작업에만 특화되어있을 뿐 스스로의 음악들이 담긴 음반의 표지 그림은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약 인공지능이다.

오늘날의 많은 인공지능들이 이전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인 결과를 내는 것, 바깥 말하자면 ‘그 전의 인공지능들 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 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강력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협력적 또는 국지적(Local) 인공지능이며, 산출된 결과물 또한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다. 요컨대 현 시점 기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強) 인공지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V. 강 인공지능의 신화에 관한 비판적 사유

강 인공지능라는 용어가 사실상 남용에 가까울 만큼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이것이 절대다수의 대중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에나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훨씬 웃돌며, 분야를 막론하고 인간만큼 또는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다가 불멸이기까지 한’ 어떤 것, 달리 말하자면 인간보다 ‘더 강한’ 어떤

20) 음악작업에 관련된 인공지능 프로젝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파리의 소니 컴퓨터 연구소에서 주도한 플로우 머신즈(Flow Machines)가 있다. 참고. <http://csl.sony.fr>.

것을 떠올린다.

다큐멘터리 <알파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강 인공지능에 관한 담론은 주로 대중 매체에 의해 주도된다. 대중 매체가 이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기 위해 던지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 ‘강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한다’. 이 글은 앞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신화’로 규정한 바 있다.

신화는 의사소통의 체계이다. 신화는 곧 메시지(message)이다. 이러한 전언적 특성을 통해 우리는 신화가 대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신화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한 양식이며, 그리하여 일종의 형식(forme)이다.

신화는 일종의 빠롤(parole)이기 때문에, 담론(discours)의 규칙을 따른다면 모든 것은 신화가 될 수 있다. 신화는 자신이 전달하는 전언의 대상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언을 생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결국 신화는 형식적인 한계들만을 지닐 뿐이다. 신화는 결코 질료적인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신화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주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기 때문이다.²¹⁾

예를 들어 <알파고>의 첫 번째 대국 시퀀스에서 미디어 보도, 대국이 일어나는 장소, 시청자들의 얼굴, 중계진의 해설, 개발팀의 모습 등이 교차적으로 편집되는 장면에서, 각각의 화면들은 해당 상황의 시청각적 재현이라는 기표(Signifiant)와 그것으로 재현된 기의(Signifié)의 일차적 결합이지만, 이 결합은 즉각적으로 “이차적 기호학 체계에서 다시 시니피앙으로 작용”²²⁾한다. 대중 매체들은 먼저 ‘인공지능 기사와 인간 기사의 대국’을 ‘기계와 인간의 대결’로 뭉뚱그리고, 이것을 비약시켜 이로부터 ‘대결의 결과가 전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기의를 이끌

21) Roland Barthes, *Mythologies*, Seuil, 1957, p.181.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번역문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참조. 롤랑 바르트, 『신화론』, 정현 역, 현대미학사, 1995.

22) *Ibid.*, p.187.

어낸다. 대국이 4:1로 알파고의 승리로 갈음되자, 대중 매체들은 이 결과를 ‘인류가 기계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뭉뚱그리고, 이것을 비약시킴으로써 ‘인류의 운명을 손아귀에 거머쥔 강력한 기계는 머지않아 전례 없이 강한 수준으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또 다른 기의를 이끌어낸다. 이 기의들은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형식 중 하나인 교차 편집을 이용해 전달된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많은 이들이 알파고의 ‘대리인’으로 오해했던 아자황, 역시 많은 이들이 이른바 알파고의 ‘본체’로 착각했던 아자황 옆에 놓인 노트북과 거기 떠있는 화면, 알파고 개발진들의 모니터링 콘솔, 때로는 수다스럽고 때로는 말을 잃는 바둑 중계진 등이 번갈아 제시되는 와중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은 그저 두 기사 간의 대국으로부터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대결이라는 상징성을, 즉 신화의 개념(Concept)을 획득한다. 그리고 개념은 “형식 바깥으로 흘러 나간 이야기를 모두 빨아들인다. 개념 그 자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개념은 역사적인 동시에 의도적이다. 개념은 신화를 발화시키는 원동력이다.”²³⁾

마침내 대중 매체들은 여기에 ‘푸른 배경 앞에 붉게 빛나는 눈을 하고 있는 단단하고 매끈한 금속제 터미네이터’ 류의 비언어적 기표들과 ‘격돌, 전투, 패배, 싸움’처럼 된소리, 거센소리 및 파열음이 많고 부정적인 내포를 지닌 언어적 기표들을 결합함으로써 신화를 완성한다. 즉, 다큐멘터리 <알파고>에서 대중 매체들은 강 인공지능에 관한 신화를 창작하는 심급이다.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 및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인포그래픽들도 마찬가지다. <알파고>의 인포그래픽들은 다큐멘터리의 창작심급이 그것을 통해 전달하고 설명하고자 선별한 정보만을 담은 기표들이다. 그리고 창작심급이 존재하는 한 어떤 기표도 ‘저절로’ 거기에 놓이지 않으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작용지도 않는다. 예컨대 인공 신경망은 거의 항상

23) *Ibid.*, p.191.



[그림 2]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중계에 사용된 인공지능의 시각화,
그렉 코오스(Greg Kohs), *AlphaGo*, 2017.

촘촘한 그물망 모양(網像)으로 시각화되고, 탐색 알고리즘은 거의 항상 끊임없이 분기하는 가지를 지닌 나무 모양(樹像)으로 시각화된다. 그러나 수형 탐색 알고리즘(Tree search algorithm)은 수많은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일 뿐이며, 프로그램이 실제로 나무 모양을 그리면서 탐색하는 것도 아니다. 프로그램을 ‘짚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비유일 뿐, 이것으로부터 실제로 인공지능 제작자들이 그물코를 짜듯이 인공 신경망을 설계한다는 언어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중앙처리장치를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물처럼 얽힌 인공 신경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창작심급의 의도에 따라 선별되고 시각화된 정보들 또한 일정 수준의 신화를 구성하는 셈이다.

신화가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전체가 기계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대국을 내어준 것은 사실이다. 인공 신경망이 뻘뻘하게 얽힌 그물처럼 생긴 것은 아니지만, 자연 신경망인 커넥톰(Connectome)의 생김새는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과 유사하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신화론』에서 이와 같은 작동 방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신화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신화는 왜곡할

뿐이다. 신화는 거짓말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다. 신화는 굴절이다”.²⁴⁾ 그리고 신화의 개념은 늘 “적당하게 적용된다(approprié).”²⁵⁾

바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강 인공지능을 둘러싼 담론은 오용의 여지가 명백하다. 바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활동 중 하나일 뿐이고, 알파고는 여러 인공지능 중 하나일 뿐이고, 이세돌은 수십억 인간 중 한 명일 뿐이다. 그러나 이세돌은 바둑의 일인자이므로 바둑을 대표하고, 바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활동 중 하나이므로 지적인 활동 전체를 대표하며,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대표 알파고가 인간 대표 이세돌을 지적 행위의 대명사인 바둑경기에서 이겼으므로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해 지적으로 더 강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논리를 남용하고 비약하는 것, 즉 알파고의 협역적 또는 국지적(Local) 특징점을 광역적 혹은 전역적(Global) 능력으로 확대 및 오해석 하는 것이야말로 강 인공지능의 신화를 조장하고 증폭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능 혹은 지성(Intelligence)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별 지성간의 우열과 위계를 따지는 행위는 그다지 권장할 만 하지 않다. 지성들 간에 위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전능한 불사의 대 철인(哲人)은 예외 없이 필부(匹夫)들보다 우등한 지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가? 또는 인지능력이 만 3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 장애인은 범부(凡夫)들보다 항상 열등한가? 이미 충분히 위태로운 종(種) 중심적 인간주의보다도²⁶⁾ 더 편협한 후자의 이른바 ‘정상인 중심’적 인간주의든, 우월주의에 입각한 전자의 엘리트주의든, 양자 모두 위험한 관점임은 명백하다. 이에 더해서, 적어도 인간이라는 범주 내에서 만큼은 모든 지능 혹은 지성은 평등하지만, 인간과 인공 간에는 위계와

24) *Ibid.*, p.202.

25) *Ibid.*, p.192.

26) 특히 인공지능의 강화와 약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 중심적 인간주의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석, 「‘약함’ 인공지능과 ‘강함’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117, 철학연구회, 2017, pp.111~136.

우열이 존재하며 그래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앞 장의 마지막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인공 신경망과 인간 신경망은 둘 다 지능과 지성이 창발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파고에 대한 직전의 확대 오해석은 그 의미를 잃는다. 정 반대로 ‘알파고는 바둑만큼은 그 어떤 인간보다 잘 두지만 잘 하는 것이라고는 바둑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평가절하 또한 마찬가지로 틀렸다. 알파고는 약 인공지능도 강 인공지능도 아니며, 적어도 바둑이라는 분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조건 하에 ‘약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 기준에서는 충분히 강한(Weak but strong enough for the moment) 지능’ 일 뿐이다.

지능 혹은 지성(Intelligence)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유래했는가’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다. 이미 존 R. 설(John R. Searle)은 유명한 ‘중국어 방’ 사고실험에 관련하여, 어떤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둘을 구분하거나 위계를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²⁷⁾ 지능 간(間)에 위계는 없었고, 없으며,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한다. 단지 서로 다를 뿐이다.

VI. 맺는 말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거듭한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에나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훨씬 웃돌며, 분야를 막론하고 인간만큼 또는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다가 불멸이기까지 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심지어 누구/어떤 것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고야 말리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추론은 매 단계마다 ‘적절히 적용된’ 각종 신화들에

27) 참고. John R. Searle, “Esprits, cerveaux et programmes”, Douglas Hofstadter, Daniel Dennett, ed., *Vues de l'Esprit*, Interéditions, 1987, pp.354~373.

근거한 나머지 비약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성, 합리, 앎, 존재, 의지, 의식, 이성 등에 관한 새로운 사유도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인류는 유사 이래, 어쩌면 선사 때부터 이러한 개념들에 관해 끊임없이 사유해왔으며, 이미 충분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알파고로 대표되는 심층 인공 신경망에 기반한 동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게 된 이후로 더는 충분치 않은 듯 보인다.

인간 또는 인간지능의 위상이 기계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위상에 관한 이미 역사에서 몇 겹의 타격이 있었다. 지동설은 인간이 신의 대행자라는 의식을 뒤흔들었고, 다음에는 진화론이 그렇게 했다. 이후에도 여러 방향에서 타격이 있었다. 신은 죽었으며 그 신을 닮은 인간도 죽었다는 선언, 그리고 의식은 기껏해야 무의식의 거대한 대양 위에 떠있는 작은 섬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찰 등. 그리고 이제 기계는 이미 감성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은 인간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²⁸⁾

편향되고 관습적인 관점에 기대는 적절한 신화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통합된 관점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인간지능과 분별(分別)함으로써 이해의 영도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두 지능을 분리(分離)함으로써 실은 있지도 않은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그다지 권장할 만 한 일이 아니다. “알파고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의 창의와 현명함의 궁극적 표상이다. 알파고가 이루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자료를 배우고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왔으며, 따라서 알파고는 진정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다.”²⁹⁾ 요컨대 분리보다는 분별이, 생존보다는 공존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28) 김진석, 앞의 책, 449쪽.

29) 같은 영상, 41분 32초부터 42분 22초까지.

참고문헌

-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117, 2017, 111~136쪽.
- _____,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 인간 강화와 인간 잉여의 패러독스』, 글항아리, 2019.
- 윤나라, 「<총몽>의 사이보그 기표 연구」, 『기호학연구』 58, 2019, 87~110쪽.
- 이수진, 『크리스티앙 메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 조창연, 「비표상적 기호의미 생성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기호학연구』 18, 2005, 249~275쪽.
- 승현준, 『커넥톰, 뇌의 지도』, 신상규 역, 김영사, 2014.
- 크리스티앙 메츠, 『영화의 의미작용에 관한 에세이 1권』, 이수진 역, 문학과 지성사, 2011.
-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김명자·홍성욱 역, 도서출판 까치, 2013.
- Christian Metz, *L'énonciation impersonnelle ou le site du film*, Klincksiek, 1991.
- Francisco J. Varela, Evan T.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e MIT Press, 1991 (revised edition, 2016). 『몸의 인지과학』, 석봉래 역, 김영사, 2013.
- John R. Searle, “Esprits, cerveaux et programmes”, Douglas Hofstadter, Daniel Dennett, éd., *Vues de l'Esprit*, Interéditions, 1987, pp.354~373.
- Roland Barthes, *Mythologies*, Seuil, 1957. 『신화론』, 정현 역, 현대미학사, 1995.

A Study on Demythologization of AI:
With the Analysis of the Documentary *AlphaGo*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Strong/Weak AI

Yoon, Na-Ra

This article aims to ponder the myths surrounding the contemporary AI as well as to demythologize them.

The match between AlphaGo and LEE Sedol in March 2016 greatly increased interest in the game of Go as well as in the AI. However, the mass media used various linguistic as well as non-linguistic signifiers to send the message to the public such as ‘the Strong AI like AlphaGo is the ultimate threat to humans and will become humans’ worst enemy’. In doing so, the mass media has successfully mythologized the contemporary AI.

Today, about four and a half years later, the contemporary AI based on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s has already been deeply integrated into our daily lives. But the mass media continued to reinforce the myths they created. The myth became so solid that AI remains still incomprehensible, vague and fearful something to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semiotically the audiovisual signifiers of the award-winning 2017 documentary *AlphaGo*; to demythologize the contemporary AI which has been overly glorified and mythologized by the mass media with the help of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cience; and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AI as neutral as possible in order to embrace it as ‘another’ intelligence.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phaGo (Alpha Go),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 Anthropomorphization, Roland Barthes, (De)Mythologization, Cognitive Science.

투고일: 2020. 08. 12./ 심사일: 2020. 09. 09./ 심사완료일: 2020. 09. 09.

제주 무속 신화 속 쫓겨난 딸들의 신직 좌정과 문화적 의미

이향애*

【 차 례 】

- I. 서론
- II. 공간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위상 변화
- III. 신직 좌정 과정의 문화적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 여신 신화에서 아버지에 의해 쫓겨난 딸들의 신직좌정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버지와 딸은 가족과 혈연 보다 상위 차원의 가치인 유교적 규범에 의해 갈등하고 대립한다. 결국 위계상 하위에 있는 주변적 존재인 딸이 아버지에 의해 집에서 추방당한다. 딸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유교적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이다. 신화에서는 집을 나간 이후 여성들의 어려움을 공간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이 외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여성들의 길 떠남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족 관계 및 질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세우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를 보면, 안전할 것 같은 내부 공간은 불안정한 반면에 위험할 것 같은 외부 공간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이다. 여성 인물들의 공간 이동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가치가 전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lovejoy812@naver.com

나아가 문화 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변적 존재인 딸들이 신으로 좌절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문화의 체계 내부에서 중심과 주변이 자리를 바꾸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쫓겨나는 딸들의 신직 좌절 과정은 주변적 요소가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쇠어 : 제주도 무속 신화, 쫓겨나는 딸들, 여신, 경계, 문화 유형론, 문화 모델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무속 신화 중 집안에서 쫓겨난 딸이 신으로 좌절하는 신화에 주목하여 그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 신화에서 여신(女神)은 남신(男神)과 달리 부모와의 갈등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 밖으로 추방되면서 시련을 겪고 신으로 좌절한다. 남성들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 죽은 어머니의 재생을 위해(<초공본풀이>의 삼형제,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인), 부인을 찾기 위해(<성주풀이>의 황우양) 길을 떠나는 것과는 다르다. 남성들의 길 떠남의 이유가 아버지를 찾아 본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성들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그들과 분리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체 내부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강제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추방당하는 해당 공동체 내부에서 지위가 낮고 힘이 약한 존재(주변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쫓는 자와 내쫓기는 자의 관계는 위계적일 수밖에 없다. 한 인물이 쫓겨나는 이유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무속 신화에서는 이 규범이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규범으로 나타난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공간의 이동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여성은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지만, 그 규범을 위반할 경우 공동체 내부에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공동체가 합의하고 정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은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쫓겨난 인물에게 낯선 곳으로의 이동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기존 공동체에서 습득한 관습과 풍습을 변화¹⁾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즉,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남성들이 아버지 찾기, 어머니 찾기, 부인 찾기 등 외부의 다른 대상을 찾기 위한 과제를 부여받고 움직임을 감행하는 것과 달리 여성은 변화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신화는 그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특정한 사고방식을 드러낸다.²⁾ 따라서 여성이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과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설화에서 ‘집을 나가는 딸’, ‘쫓겨나는 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자료의 유형과 전승 변이 양상을 살펴거나 인물 및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³⁾ 다른 나라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부녀간의 갈등 양상을 살피는 연구가 그것이다.⁴⁾ 또한 효의 이데올로기 측면에 주목해 부녀 관계를 분석한 연구⁵⁾도 있다. 다만 기존의 논의

1) 윤보영,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192쪽.

2)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18쪽.

3) 최은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1973,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1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김대숙, 「여인발복설화의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1988,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어문연구학회, 1988,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광정식,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논문집』 21, 경성대학교, 2000,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조은희, 「내복에 산다와 복진 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24, 우리말글학회, 2002, 박혜정,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그 현대적 의미」, 『동국어문학』 19,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4)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에서는 신화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무속 신화 속 쫓겨나는 딸들의 신직 좌정 과정에 주목해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알아보 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 텍스트는 제주도 무속 신화 일반신본풀이 중 <삼승 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 이>이다. 제주 신화는 다양한 자료집들에 수록되어 있는데, 서사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의례의 진행을 중심으로 채록 및 정리된 자료집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⁶⁾을 대상 텍스트로 한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신 화들은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것이다.⁷⁾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명의 신(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다님애 기)이 등장한다. <삼승할망본풀이>가 산육신의 좌정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명의 여신 중 중심인물은 명진국따님애기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쫓겨나는 딸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동해용왕따님애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토 신화인 <바리공주>와 <당금애기>의 주인공도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지만 본고가 제주도 신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주인공의 ‘쫓겨남’의 서사가 본토 신화보다는 제주도 신화에서 더 중요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바리공주는 버려진 이후 석가 세존의 도움으로 바리공덕 내외에게서 양육되고, 다시 친부모가 있는 공간으로 귀환 후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명수를 구하러 길을 떠난다. 당금 애기는 혼전 임신 사실이 드러나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 안 깊숙한 곳에 숨어서 아들 삼형제를 출산해서 키운다. 반면 제주도 신화의 주인공 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 자지명왕아기씨, 가 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는 모두 쫓겨난 뒤 스스로 자기만의 길을

5)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회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한국여성철학회, 2008.

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7) 안사인 심방은 제주시에서 활동한 큰 심방이며 제주칠머리당굿 전승 보유자다. 또한 본문에서 대상 텍스트를 인용할 때 출처는 편의상 ‘안사인 구연본과 페이지’로 기입한다.

만들어 간다. 이들은 과업을 완수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쫓겨난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의미들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유리 로트만의 문화유형론(*typology of culture*)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 텍스트를 분석할 것이다. 문화유형론은 문화가 기호 체계로서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모델링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모델링된 세계상은 문화가 만드는 자기기술(*self-description*)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의 유형학을 취급하는 학문이 바로 문화 유형론이다.⁹⁾ 문화 유형론의 밑바탕에는 공간적 모델이 자리하는데, 이 공간적 모델은 로트만의 문화기호학 이론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기호학적 체계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바탕이 된다. 로트만에게 공간적 특성은 인류 문화에 속하는 모든 세계상을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형식적인 구성소이다.¹⁰⁾ 로트만은 “모든 문화는 세계를 ‘자신의’ 내적 공간과 ‘그들의’ 외적 공간으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이원적 공간 분할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문화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¹¹⁾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경계를 그어 내부와 외부로 공간을 분리한 뒤,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시작으로 신직 과정과 그 문화적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야기 안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인물’은 ‘주인공’이고, ‘움직이지 않는 인물’은 ‘부동의 인물’이다.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인물들은 공간의 상황과 환경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

-
- 8) 자기기술이란 자신의 문법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 과정은 기호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가운데 특정한 언어 하나가 돌출되면서 그 체계 자체를 기술할 수 있는 메타언어가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지성사, 2011, 283-285쪽.
- 9) 김수환, 앞의 책, 2011, 124쪽.
- 10) 유리 로트만, 「문화를 유형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메타언어에 관하여」,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19-20쪽.
- 11) Yuri M. Lotman, *Universe of the Mind :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131.

다. 인간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부여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특정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그 공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인물이 지니는 가치는 해당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인공은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간의 경계를 이월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의 상황과 환경을 대변하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간다.¹²⁾ 주인공의 움직임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여신들이며 부동산의 인물은 그들과 대립하는 부모와 외부 공간에서 만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여신들의 공간 이동 과정을 통해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모델을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여신들이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중심/주변)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고 이 변화는 문화유형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주인공의 시점을 기준으로 경계를 그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이때 각 공간은 중심과 주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인공과 부동산의 인물이 중심과 주변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그 위치의 변동에 따라 인물들의 위상 변화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2) 유리 로트만, 「문화를 유형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메타언어에 관하여」,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22~24쪽.

Ⅱ. 공간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위상 변화

공간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위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 공간에 경계를 설정하여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내부는 우리의 공간이고 외부는 그들의 공간이다. 공간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경계의 기준은 행위 주체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다. 주인공에게 내부 공간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일상을 살아간다. 가족 공동체인 내부 공간은 인간 삶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다. 주인공의 시점으로 공간을 분할할 때 내부 공간을 가족 공동체인 ‘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집’ 이외의 나머지 공간은 외부 공간이라 칭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 가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가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다른 신격의 호출을 통한 신직 체계 수립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애기와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는 아버지와 의 갈등으로 집에서 쫓겨나 새로운 외부 공간에 정착하지만 독자적인 신직 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다른 신격을 호출하면서 그 신격과의 관계 속에서 신직 체계를 구성한다.

1)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애기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아버지 동해용공과 어머니 서해용공 사이에서 태어난다. 태어나고 자란 용궁이 동해용왕따님애기에게는 내부 공간이며, 이외의 공간은 외부 공간이 된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15세에 무쇠석함에 갇혀 동해바다로 버려지는데, 그 이유는 한두살에 아버지 삼각수염

뽑고 통대를 꺾었으며, 어머니 젖가슴을 끊어 뜯은 일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죄가 되어 아버지 동해용궁은 딸을 죽이려 하지만 어머니 서해용궁의 간곡한 부탁으로 동해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이 대립적 관계가 되는 이유는 자식의 불효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내부 공간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이 존재하며, 이 규범은 혈연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갈등은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도 보여준다. 부모와 자식은 위계적인 관계이며, 특히 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 집 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내부 공간은 위계가 엄격한 공간으로, 아버지는 그 공간의 중심, 딸은 주변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어머니로부터 산육신의 역할에 대해 배우지만, 아버지의 호통으로 해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버려진다. “물 아래로 연 삼년, 물 위로 연 삼년을 떠다니다가 처녀물 가 올렸”다는 점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공간에 안착하는 과정은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세상이라는 외부 공간에 도착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산육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임박사 부인의 수태를 돕지만 해산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아이를 해산시키지 못한다.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이러한 불완전한 능력은 완전한 산육신의 존재를 필요하게 만들면서, 명진국따님애기를 호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는 산육신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 1차 경합이 임박사 부인의 해산이라면 2차 경합은 옥황상제 앞에서 벌이는 꽃 피우기 내기다. 1차 경합에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수태에 성공하지만 해산에는 실패했다. 반면 명진국따님애기는 해산에 성공한다. 1차 경합을 통해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산육신으로서는 부족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이 드러난다. 아이는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뱃속에만 있

는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가치를 영유할 수 없다. 1차 경합은 두 신의 해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진국따님애기가 동해용왕따님애기 보다 생명을 다루는데 더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두 신의 자질은 2차 경합에서도 나타난다.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산육신의 자리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자, 두 신은 옥황상제에게 산육신의 자리에 누가 적합한지 묻기 위해 천상으로 향한다. 옥황상제는 꽃 피우기 내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한 결과 명진국따님애기는 많은 꽃을 피운 반면 동해용왕따님애기는 하나의 꽃만 피운다. 결국 2차 경합에서도 명진국따님애기가 승리하면서, 명진국따님애기는 이승할망(산육신),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된다. 그러나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산육신이 점지한 아이에게 온갖 흥함을 주겠다는 말로 명진국따님애기를 협박하고, 이에 이승할망은 저승할망도 인정 걸어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두 인물은 각각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으로 좌정한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내부공간→외부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산육신→저승할망]으로 신직이 변화되었다. 동해용왕따님애기도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승할망의 자질이 아이에게 질병을 주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신으로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으며, 꽃 피우기 내기에서 하나의 꽃을 피웠다는 것은 저승할망도 생명을 관장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아이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신인 저승할망은 산육신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제 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는 죽게 된다는 점에서 해산을 시킬 수 없는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죽음의 가치에 더 가까운 인물임을 보여준다.

2)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는 천하 임정국 대감과 지하 김진국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다. 이들 부부는 오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원불수룩을 드려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를 얻는다.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를 기준으로 보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임정국 대감 집을 중심으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이 벼슬을 살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는데, 아들이 아닌 딸이라 데려갈 수 없어서 아기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다.¹⁴⁾ 딸을 데려갈 수가 없어 집 안에 가둬놓고 떠난다. 부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여성이 집 밖을 벗어나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 쉽게 허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집에 홀로 남은 노가단풍아기씨는 시주를 받으러 온 주자선생으로 인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분노하여 딸을 집 밖으로 추방한다. 노가단풍아기씨는 원불수룩을 드려 어렵게 얻은 자식이고, 여자 자식은 함부로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부 공간은 혈연관계 보다 유교적 가치가 상위의 가치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가부장인 아버지는 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철저히 보호하지만 문제적 상황이 닥치면 냉정하게 자식을 버린다. 내부 공간에서 벌어진 갈등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가부장인 아버지는 해당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는 반면에 딸은 주변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중심인물은 주변인물의 삶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내부 공간에서 쫓겨난 노가단풍아기씨는 쉽지 않은 여정 길에 오른다.¹⁵⁾ 외부 공간은 여성에게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

14) “자, 이 아기씨 어찌하여두고 가민 조으리야. 남죽의 죽식이민 책실(冊室)로나 득랑가 켜, 예죽식(女子息)이니 어찌 홀 수 잇는 일이로다.” 안사인 구연본, 132쪽.

15) “검은 암췌(黑牝牛)도 암켜로다. 느진덕정하님도 암켜로다. 아기씨도 암켜로다. 식(三) 암것이 먼문 밋(遠門外)을 나고 가니 나갈 질이 어덜런고. 헤(日)지는 냥 발 가는 냥, 어서어서 나고 가자. 느진덕정하님 앞의 사고 아기씨 뒤의 사 어령떠령 넘어간다.

성들끼리의 이동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다.

노가단풍아기씨는 주자선생이 있는 황금산 도단땅(외부공간)에 도착한다. 노가단풍아기씨는 주자선생이 제시한 곡식 낱알을 손톱으로 벗기는 과제를 완수하지만 중의 신분으로 부부 살림을 할 수 없다는 주자선생으로 인해 불도땅(외부공간)으로 옮겨간다. 결국 홀로 아들 삼형제를 출산하고 키운다. 아들 삼형제는 서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보는 삼천 선비의 집꾼으로 함께 서울에 간다. 과거에 합격한 삼형제가 못마땅하던 삼천선비는 노가단풍아기씨를 죽이고, 이 죽음으로 삼형제는 주자선생을 찾아가 심방이 되어 노가단풍아기씨를 다시 살린다.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은 자신과 아들 삼형제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 세속적인 출세를 도모하던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가단풍아기씨 역시 무조신인 아들들에게 무구를 관리하는 신직을 부여받는다. 이 운명의 변화는 이들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가치의 변화도 가져온다. 노가단풍아기씨 죽음 이전의 불도땅은 삼천선비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질서가 핵심 가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삼형제의 처지가 문제시 되었으며, 이들이 중의 자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해도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어 다시 찾은 불도땅은 죽음 어머니를 살리고 삼천선비를 죽음으로써 스스로 생과사를 관장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무속의 체계를 세운다.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 남편, 아들과의 관계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은 이들 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가단풍

남이산(南海山)도 넘어간다. 북해산(北海山)도 넘어간다. 어령떠령 가단 보난 칼쫄드리가 있겠느냐?... (중략)...칼쫄드리 넘어가난 애순드리 켜고나... (중략)...애순드리 넘어가난 등진드리 잇었고나... (중략)...등진드리 넘어가난 올은드리 이켜고나... (중략)...올은드리 넘고 가니 알(下)로 우(上)테레 흐르는 물이 켜고나. 안사인 구연분, 138~139쪽.

아기씨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했으며, 아들과 떨어져 홀로 남겨지면서 삼천선비에게 죽임을 당했다. 유교 규범은 노가단풍아기씨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했고, 중의 신분인 남편은 유교 사회에서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아버지의 신분은 삼형제가 과거에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원인이 된다. 결국 유교 질서가 자리한 상황에서 노가단풍아기씨와 그 아들은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은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질서를 [유교적 질서→무속적 질서]로 바꿈으로써 그들을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게 한다. 이때 노가단풍아기씨와 삼형제의 관계도 세속적인 모자 관계에서 무조신과 무구를 관리하는 신직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가단풍아기씨는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보다는 아들 삼형제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2. 자기중심의 새로운 신직 체계 수립

1)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아버지 강이영성과 어머니 홍운소천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다. 가문장아기의 시점을 중심으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과 그 이외의 공간 사이에 경계를 그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아버지 강이영성은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를 딸들에게 묻는다. 첫째와 둘째는 부모님 덕에 산다고 했지만 막내딸 가문장아기는 “자기 덕에 먹고 산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가문장아기는 그것과는 다른 답을 말해 부녀 관계의 갈등을 야기한다. 부모가 아닌 자기 덕으로 산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면서 아버지를 분노케 한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

관계이지만, 가부장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계이기도 하다. 가부장인 아버지는 위계의 최상위에 있고 막내인 가문장아기는 위계상 가장 아래에 있다. 내부 공간에서 상하 위계가 분명한 두 대상간의 갈등은 하위의 인물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는다.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와 식량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 하지만 그의 앞에 닥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가문장아기가 외부 세계로 나와 만나게 된 길은 해가 지고 달도 없는 어두운 산길이다. 이 같은 공간의 묘사는 가문장아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무게를 보여준다. 여성이 혼자 어두운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다.¹⁶⁾ 가문장아기는 작은 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머문다. 이 외부 공간은 노부와 아들 셋이 사는 공간으로, 아들 삼형제는 마를 캐서 먹고 사는 일을 한다. 이 낮선 공간에서 가문장아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첫째와 둘째 마통이는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며 그녀의 존재를 거부한다. 가문장아기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셋째 아들뿐이다.

가문장아기는 마통이의 집에 머물며 구성원들을 관찰한다. 첫째와 둘째는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반면에 셋째는 손님에게 친절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한다. 결국 가문장아기는 친절하고 착한 셋째 마통이를 남편으로 골라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후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에서金を 발견하는데, 셋째 마통이는金を 알아보지 못한 반면, 가문장아기는 알아봤고 부자가 되었다. 첫째와 둘째 마통이는 계속 가난한 삶을 살지만, 셋째 마통이는 가문장아기 덕분에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외부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세 형제를 관찰하고 그중에서 남편을 선택해 부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외부

16) 가문장아기인 검은 암소(黑牝牛)에 먹을 군량(軍糧) 시켜아전 이 자 넘고 저 자 넘고 산산만산 굴미굴산 올라가는데, 해(日)는 일락서산(日落西山) 다 지어가고 월출동경(月出東嶺)에 돌은 아니 솟아오고, 미여지뻥뉘 만여지뻥뉘 산중(山中) 산앞(山前) 인간철(人間處) 등기젠 허단 보난 대축나무지등에 거적문에 웨들쳐귀 무은 비조리초막 이 잇었구나. 안사인 구연본, 170쪽.

공간의 주체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가문장아기가 셋째 마통이를 남편을 선택해 부자가 되면서 해당 공간은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가치가 나뉘기 때문이다. 즉, 외부 공간에서 온 이방인이 해당 공간의 주체가 되면서 그 공간을 자기를 중심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 자신을 중심으로 부(富)와 빈(貧)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여 중심/주변의 위계를 다시 세운다.

가문장아기가 헤어진 부모를 찾기 위해 걸인 잔치를 벌이는 것은 자신의 공간으로 부모를 소환하는 행위다. 이 소환은 서사 초반에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에 대한 문답의 결과로서,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발화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부모를 자기중심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면서 두 사람의 위계는 서사 초반과는 다른 관계로 재설정된다.

2)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원불수룩을 드려 어렵게 얻은 귀한 딸이다. 자청비라는 이름 역시 스스로 청하여 낳았다는 뜻으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부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세경본풀이>는 긴 서사만큼이나 주인공이 거쳐 가는 공간도 다양하다. 주인공 자청비를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면 자청비가 태어나고 자란 김진국 대감의 집이 내부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의 경계는 집과 그 이외의 공간들 사이에 그을 수 있다. 집은 내부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은 외부 공간이다.

자청비가 부모와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하인 정수남을 죽이고 살린 일 때문이다. 자청비는 자신을 강간하려한 정수남을 죽인다. 하지만 부모는 이 상황에서 하인이 상전을 강간하려고 한 일보다는 중요한 노동 자산인 종을 죽였다는 것에 분노한다. 원불수룩 드려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이지만 시집 가버리면 그만인 자청비보다, 노동력을 제공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종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즉 딸은 사라질 존재이지만 종은 자신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부

모는 딸과 하인의 갈등 상황에서 혈육인 딸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무게를 둔다. 자청비는 자신이 종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서천꽃밭에서 어렵게 얻어온 꽃으로 정수남을 다시 살린다. 그러나 이 일은 부모를 더 분노하게 한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집안을 망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집안에서 자청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자청비는 생사에 관여하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재산인 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룬 문제적인 자식인 것이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지만 자청비는 집안에서 주변부에 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집을 떠난 자청비의 막막함은 공간의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데,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떠돌다가 주모 할미의 집을 발견했을 때¹⁷⁾와 주모 할미에게서도 쫓겨나 종의 행색으로 떠도는 장면¹⁸⁾이 그것이다. 집에서 쫓겨나기 이전에도 자청비는 외부 공간을 여러 번 오갔다. 그러나 그때의 모습과 집에서 쫓겨난 이후 자청비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하러 갈 때 자청비는 여자도 배워야 쓸모가 있다며 부모를 설득했고, 서천꽃밭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정수남을 살릴 꽃을 얻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후 자청비는 어두운 길을 걸으며 슬픔에 잠긴다. 주모 할미의 수양딸이 되면서 다시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그곳에서도 쫓겨나면서 자청비는 종의 행색을 하고 떠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부모에게 버려지면서 안식처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청비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내부 공간을 상실한 자청비의 심경이 공간의 묘

17) 가단보난 일락서사(日落西山) 해는 지고 어둑어져 밤 유이(留依)할 곳이 었어지니, 길울(路邊)의 앓안 비새 ㄱ찌 올단보난 난디웃인 공단쿨(貢緞機) 소리가 들려온다. 안사인 구연본, 290쪽.

18) 죽청빈 갈수록 금강산(金剛山)이라, 다시 입단 입성(衣服) 견어설르고 먼 올레에 나사니 초승반달(初生半月)이라 월출동경(月出東嶺)하여 올르고 보니, “저 들은 곱긴 곱구나마는 계수나무 배겼구나.” 노래하명 오늘은 사월(四月) 초파일이라 죽청빈 양무렵(兩膝) 끌러 대공단고칼로 머리 박박 까까 굴송락 굴장삼(長衫) 둘러입어 백파엽줄(百八念珠) 손에 목덕(木鐸) 석자오치(三尺五寸) 호름춤치 훗닐곰자(單七尺) 극보잘리 열대자 야강베포 둘러지어 거리 촌촌(村村)마다 마련하명 시권제 받으레 멩기단 보난. 안사인 구연본, 292~293쪽.

사를 통해 드러난다.

자청비는 천상에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그러나 약혼자가 있던 문도령과 인연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천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청비는 외부인이다. 외부인 자청비가 천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옥황이 제시한 칼선다리 건너기는 외부에서 온 자청비가 내부 일원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문도령과 결혼에 성공한 자청비는 천상의 일원이 된다. 그러다가 천상에 변란이 일어나고 문도령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꽃을 가져와 죽은 문도령을 살리고 변란을 평정한다. 그 공으로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농경의 기틀을 다진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자청비는 굶주린 상태의 정수남을 만나고, 그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때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그 이전의 관계와 다르다.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위계 관계를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정수남의 목축신 좌정은 자청비가 신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경의 영역과 관련된 신직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3)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는 장설룡 대감의 집에서 태어나 성장한다. 이 집을 중심으로 경계를 그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장설룡은 벼슬을 살려 가면서 집에 혼자 남은 딸을 고무살창에 가두고 떠난다. 딸이 외부와 접촉할 수 없게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씨는 불가항력적으로 중의 아이를 임신한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딸을 집에서 추방한다. 아버지가 집에 홀로 있는 딸을 외부와 차단시킨 것은 혈육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자신과 집안의 명예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집밖도 못나가게 하던 딸을 무쇠석곽이 가뒀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유교적 규범을 지키지 않은 구성원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기씨를 실은 무쇠석곽은 쉽게 정착할 장소를 찾지 못한다. 도착하는 곳마다 그 마을의 당신(堂神)들이 막아서기 때문이다. 외부 세력인 아기씨는 토착 세력인 당신에게 폐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한다.¹⁹⁾

아기씨는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 함덕리 바닷가(외부공간)에 안착 한다. 송첨주 영감이 무쇠석곽을 열어보고는 뱀의 모습을 한 아기씨와 아기들을 더럽다고 외면한다. 칠성(아기씨와 아기들)은 이들에게 신병(身病)이 나게 해 조상으로 섬김을 받는다. 당신(堂神)과의 대립에서 패했던 모습과 달리 칠성신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킨다. 이후 일곱 해녀와 송첨주 영감은 칠성을 섬기면서 부자가 된다. 동네 사람들이 칠성을 모시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에 칠성신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함덕 마을은 부촌이 된다.

칠성은 함덕에 안착해 섬김을 받기 시작했지만 본향신의 핍박으로 다시 공간을 이동한다. 칠성은 송대정 현감의 집 앞에 있다가 송 현감의 부인에게 조상신으로 섬김을 받고, 그 결과 송씨 집안은 부자가 된다. 칠성신은 송씨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섬김을 받지만, 어머니 칠성은 일곱 자식들에게 함께 다니며 얻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 각자가 원하는 공간으

19) 오장삼을 풀어놓고 아기씨 내여난 보난 아기씨 얼굴엔 검은 지미가 지고 아기씨 몸천(肉身)은 아리롱다리롱 흐고 아기씨 뱀 보난 두롱베가 뒤편구나. 장설룡대감님은 “양반의 집 스당공스 났구나.”아기씨를 죽이저 흐뒤현(限)이 었어지고 무쇠설갑 채와 놓고 동이와당 띠와간다. 든물에도 흥당 난물에도 흥당 강남목골서 제주(濟州) 물믈(水平線)을 근당(近當)흐니, 도성삼문(都城三門) 일스당 산깃개(山地浦)로 들저 흐난 산지 용궁(山地 龍宮) 칠머리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 켜여지고, 화북(禾北)으로 들жат터니 가릿당이 켜여지고, 가물개(三陽二洞)로 들жат터니 시일도맹수가 켜여지고, 설개(三陽一洞)로 들자터니 숨부기남알개로육서 켜여지고, 신촌(新村)으로 들자터니 큰물머리 켜여지고, 조천(朝天)으로 들жат터니 새곶알고망할망 켜여지고, 신흥(新興)으로 들자터니 볼레낭알박씨할망 켜여지고, 함덕(咸德)으로 들자터니 스래물거리 켜여지고, 북촌(北村)으로 들자터니 세신국이 켜여지고, 동복(東福)으로 들자터니 고침지영감 켜여지고, 집녕(金寧)으로 들자터니 안성세기 밧성세기 켜여져 못내들고, 서화리(細花里)로 들자터니 천즈백주 금상이 켜여져 못내들고, 든물서난으로 들저 허여 서이와당(西海) 들어간다. 함덕(咸德)을 근당흐니 서모오름 팽풍여 알(下) 썩은개로 올라간다. 안사인 구연본, 353쪽.

로 가서 안착하라고 한다.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선택해 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제 각기 제향을 받게 되면서 제주도 전역에서 섬겨지는 일반신이 된다.

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 가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규범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는 ‘집’이라는 공간이 혈연 중심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이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공간임을 뜻한다.²⁰⁾ 딸들이 가정 내 규범을 위반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외부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부장인 아버지는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으며 공동체 내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반면 딸들은 위계상 하위에 위치하며 가부장이 내세우는 규범에 반(反)할 경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주변적 존재다.

여성들은 [내부 공간→외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신으로 좌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를 통해 공간이 어떤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적 존재가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문화유형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볼 것이다.

III. 신직 좌정 과정의 문화적 의미

1.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가치 전도

앞 장에서 살펴봤던 신화 속 주인공은 [내부 공간 → 외부 공간]으로 이동한다. 내부 공간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으로 형상화된다. 집은 전형적인 내부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집은 안전하고 친숙한 보호의 장소

20) 김경미, 「庶女 가족 속의 경계인, 역사 속의 주변인」, 『여/성이론』15, 도서출판여이연, 2006, 238쪽.

다. 그러나 앞서 살핀 신화에서 내부 공간으로서의 집은 안전한 보호의 장소가 아니다. 주인공이 집을 나서는 이유는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이다. 그 갈등의 원인은 내부적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요인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이 유교적 규범이다. 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아기씨, 가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 규범과의 대립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집을 나오게 된다. 내부 공간에 자리한 사회적 요인은 주인공의 존재 및 행위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 충돌로 인한 갈등은 주로 여성 주인공들에게서 나타난다.²¹⁾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회 규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들이다.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여성들은 집 안에서의 위계와 역할이 결정되고 이는 고정적이다. 사회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한다.²²⁾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이 내부 구성원, 특히 가부장인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같은 공간과 여성 정체성이 갖

21) 남성 인물들의 공간 이동의 계기는 여성 인물들처럼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성주풀이>의 황우양은 천하궁을 재건하라는 천상적 존재의 명령과 외부 공간에서 침입한 적대자로 인한 공간 이동,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과거 시험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고자 외부 공간으로 이동한다. <차사본풀이>의 강림이는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김치원님의 명령,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인은 적대자와의 대결과 어머니 재생을 위해 외부 공간으로 이동한다.

22) 도린 매시는 공간과 정체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간은 젠더가 구성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반영하고 그에 영향을 미친다. 정체성과 공간 모두에 있어서 여성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은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는 여성을 종속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공간상에서의 이동의 제약, 즉 의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억류하기·가두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제약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을 가정 영역에 한정시켜 가두어 두고자 하는 시도는 특별히 공간적인 통제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적 통제를 통한 정체성 통제라는 일종의 사회적 통제라고도 볼 수 있다.”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18~319쪽.

는 관련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부장인 아버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남성 주인공들이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태도와 행실의 문제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온 이후 목적지가 불분명하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여성 주인공들에게 외부 세계는 달빛도 없는 어둡고 위험한 곳이거나,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묘사는 남성 주인공들의 여정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복잡한 관계와 다양한 역할에 따라 구성²³⁾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내부 공간에서는 기존 체계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했다면, 집을 나온 이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해진다. 이때 외부 공간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된다. 즉, 집을 나와 외부 공간으로 향한다는 것은 자신을 규정하던 외부적 힘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이 아닌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외부 공간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과정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다.

외부 공간은 과업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며, 주인공의 자기 변화 과정의 공간이다. 공간들은 고유한 자신만의 질서를 갖는데, 이 질서는 해당 공간의 인물을 통해 드러나며 그들은 그 공간의 질서를 대변한다. 주인공의 공간이동은 공간의 장소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외부 공간은 낯선 추상적 공간이지만 주인공의 공간 이동과 새로운 가치 추구로 인해 의미로 가득찬 익숙한 공간이 된다.²⁴⁾ 다른 인물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공간이

23) 차옥송 외 3인 공저,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17쪽.

24) 이-푸 투안에 따르면, “인간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낯선 추상적 공간

주인공에게는 익숙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외부 공간은 열린 공간이며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이다. 열려있다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취약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외부 공간을 무조건 위험한 공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은 외부 공간에 있다. 열린 공간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자기만의 표지판을 세운다. 이는 외부 공간에 있는 인물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자청비가 천상에서 변란을 진압해 질서를 바로 잡았으며, 칠성신은 자기를 신으로 모셔야 하는 당위를 만들었다. 주인공은 길을 찾고 만드는 여정을 통해 기존 가치들이 잔잔하게 존재하는 외부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확장시킨다.

내부 공간인 집은 외부 공간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 공간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신화 속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은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벗어난다. 내부 공간은 그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을 경우 혈연관계인 자식도 내쫓을 수 있으며, 아버지는 딸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집 안 깊숙한 곳에 위치시키지만, 규범에 어긋났을 때는 집 밖으로 추방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때 내부 공간에서 쫓겨나는 여성을 보호하는 조력자는 없다. 혈연 보다 더 큰 상위가치가 내부 공간을 지배한다. 집은 개인의 잘못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개인의 존재와 행위가 공간의 가치와 맞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내부 공간은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외부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지만 오히려 변화가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과업을 이룬 후의 외부 공간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이 아닌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친숙한 공간이 된다.

(abstract space)은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가 된다.”고 하였다. 아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2011(초판1995), 7쪽.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는 ‘안정 : 불안정’, ‘안전 : 위협’, ‘알 수 있음 : 알 수 없음’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내부 공간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알 수 있는 공간이지만 오히려 불안정과 위협 그리고 알 수 없음을 내재하고 있다. 반면에 외부 공간은 불안정하고, 위협적이며,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내부 공간의 특성은 닫힌 공간이고 조직화된 공간인 반면 외부 공간은 열린 공간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이다. 그러나 외부 공간은 열린 공간이고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외부 공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되었다. 공동체 내부에서의 추방은 개인의 과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그 과오가 내부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위협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쫓겨남’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던 외부 공간으로의 이동이 허용되도록 상황을 전환시킨다. 여성들은 외부 공간에서 자기만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 삶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

2. 문화의 중심과 주변의 교체 - 새로운 문화의 창조

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 가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는 어떻게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며 그 공간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공간에 따른 주인공의 위상 변화는 그 존재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도래를 보여준다.

여신들이 신직을 획득하는 과정은 한 사회의 주변적 인물이 중심의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변적 인물이 중심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로트만이 말한 문화 유형론

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문화 유형론은 체계의 중심과 주변이 자리를 바꾸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²⁵⁾ 한 문화 안에는 그 문화의 지배적 코드가 위치한 중심부와 그렇지 않은 주변부가 있다. 중심부는 자신의 영역을 주변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부를 자기 영역으로 포섭하려고 한다. 중심의 입장에서 주변은 잠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이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데, 여기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주변적 영역이 다음 시기에 중심의 영역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노가단풍 자지명왕아기씨는 다른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직 체계를 수립한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보면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노가단풍 자지명왕아기씨는 내부 공간에서도 그렇고 외부 공간에서도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획득한 신직은 다른 신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이 계속 주변적 존재로 남아있다고는 볼 수 없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를 호출하는 역할을 했고, 명진국따님애기와 의 경합에 패해 원하던 산육신이 되진 못했지만, 삶과 죽음의 복합적인 관계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명진국따님애기=삶’, ‘동해용왕따님애기=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만 볼 수 없게 한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삶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가지면서 죽음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신격인 것이다. 산육신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이러한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자질이 다른 신격인 이승할망과 만나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관계를 보다 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노가단풍 자지명왕아기씨 역시 저승 삼시왕과의 관계에서 주변적 신격으로만 볼 수 없다. 노가단풍 아기씨는 무구와 악기를 관리

25) 김수환, 앞의 책, 296쪽.

26) 김수환, 앞의 책, 136쪽.

하는 당신(堂神)이다. 곳을 하러오는 사람에게 무구와 악기를 빌려주는 역할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노가 단풍자지명왕이기씨의 신격은 해당 신직 체계 내부에서 다른 신격과 비대칭적인 관계이지, 그 신격 자체가 주변적 존재인 것은 아니다.

내부 공간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던 여성들은 외부 공간으로 이동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신이 된다. 이를 공간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한 문화의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조직화된 문화의 틈새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무속 신화는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던 외부 공간이 ‘처벌’의 의미로 허용(쫓겨남)이 되면서 공간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 이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가치가 전도되면서 주변적 존재인 여성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의 위치에 놓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들은 각자가 갖는 직능이 있는데, 저승할망, 당신(堂神), 전상신, 농경신, 사신(蛇神)이 그것이다. 이 직능은 이들로 인해 조직화된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무속 신화 중 집안에서 쫓겨난 딸이 신으로 좌정하는 신화에 주목하여 그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다. 아버지와 딸은 가족과 혈연 보다 상위 차원의 가치인 유교적 규범에 의해 갈등하고 대립한다. 결국 위계상 하위에 있는 주변적 존재인 딸이 아버지에 의해 집에서 추방당한다. 딸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유교적 규범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집 이외의 다른 외부 공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 밖으로의 추방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하여, 신화에서는 집을 나간 이후 여성들의 어려움을 공간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남성들을 주인

공으로 하는 신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이 외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남성 신들이 아버지 찾기, 어머니 살리기, 부인 찾기 등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부 공간을 떠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길을 나서지 못한다. 여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외부 세계에서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성들은 각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신으로 좌정한다. 남성들의 아버지 찾기, 어머니 살리기, 부인 찾기 등이 기존의 가족 관계의 복원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길 떠남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족 관계 및 질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세우며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를 보면, 안전할 것 같은 내부 공간은 불안정한 반면에 위험할 것 같은 외부 공간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이었다. 내부 공간은 규범을 어긴 딸을 보호하지 않고 추방한다. 그러나 외부 공간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성 인물들의 공간 이동을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가치가 전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문화 유형론의 관점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중심 신격에서 빗겨난 주변적 신격(동해용왕따님애기,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은 보면 주변적 존재인 딸들이 신으로 좌정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문화의 체계 내부에서 중심과 주변이 자리를 바꾸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이들의 신직 좌정 과정은 주변적 요소가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쫓겨난 딸들이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은 중심과 주변의 교체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중심이 놓인다는 것은 자신이 떠나온 공간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획득한 신직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는 내부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공간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계를 그어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고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무속 신화의 여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남신의 신직 좌정 과정과 비교하면 보다 새로운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곽정식,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논문집』 21, 경성대학교, 2000.
- 김경미, 「庶女 가족 속의 경계인, 역사 속의 주변인」, 『여/성이론』 15, 도서출판여이연, 2006.
- 김대숙, 「여인발복설화의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1988.
-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지성사, 2011.
-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 로트만 유리, 『기호계』,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 매시 도린,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박혜정,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그 현대적 의미」, 『동국어문학』 19,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윤보영,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 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1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2.
-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한국여성철학회, 2008.
- 조은희, 「내복에 산다와 복진 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24, 우리말글학회, 2002.
- 차옥승 외 3인 공저,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1973.
- 투안 이-푸,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2011(초판1995).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1993.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 어문연구학회, 1988.
-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 Ann Shukma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The Dedication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Daughters Expelled from the Myth of Shamanism in Jeju

YI, Hyang-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agery and meaning of border people through daughters expelled by fathers in the myth of the goddess of Jeju Island. Fathers and daughters are in conflict and confrontation based on Confucian norms, which are values higher than family and blood ties. Eventually, the daughter, a marginal entity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y, is expelled from the house by her father. The reason the daughters are expelled from the home is because they acted and spoken against Confucian norms. Mythology shows the difficulties of women after leaving the house through space descriptions. This description shows how difficult it is for a woman to go to the outside space as it is difficult to find in the myth of men as the main characters.

Women's departure is a process of breaking off from the existing family relations and order centered on the father and establishing a new self-identity.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er space and the outer space through this, the inner space that is likely to be safe is unsafe, while the outer space that is likely to be dangerous is a space that has many possibilities. The movement of female characters in space shows that the valu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that are commonly thought of are being carried over.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typology, the fact that daughters, who are peripheral beings, become the center of a new space while sitting as gods, is similar to the mechanism in which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change positions within the system of culture. The process of sequestering the daughters who are driven out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peripheral elements move to the center of culture.

Keywords : Jeju Island Shaman Myth, Daughters expelled, Goddess, boundary,
typology of culture Cultural model

투고일: 2020. 08. 28./ 심사일: 2020. 09. 07./ 심사완료일: 2020. 09. 09.

빅데이터의 감성가치 도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 연구

전형연* · 왕치현** · 오장근*** · 김상원**** · 이경호*****

【 차 례 】

- I. 서론
- II. 빅데이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현황
- III. 빅데이터의 감성가치 도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
- IV.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빅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 활용되어온 물맥락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 간의 맥락을 반영하는 기호학적 마이닝 분석 방법론을 제안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벗어나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과 표층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동위소를 통해 심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감성가치 역시 파악하는 도출 과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분석에 기반한 텍스트의 동위 의미 추출 기법을 토대로 기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관적 정보의 분석이 가능한 감성가치 분석 과정을 구상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기호

* 제1저자, 국립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수, jeon2020@mokpo.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chwang@inha.ac.kr

*** 공동저자, 국립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domplatz@mokpo.ac.kr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kswtor@inha.ac.kr

***** 공동저자,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itaffm@naver.com

학적 분석 기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크게 3단계의 분석법 즉, 1) 형태소 분석 과정, 2) 동위소 분석 과정, 3) 감성가치 분석 과정이라는 기호학적 분석 과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도구의 구상이 인물, 상품, 기업 등 다양한 테마와 관련된 텍스트에 숨어 있는 주관적 의도와 감성가치의 자질을 추출함으로써 마케팅 및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향상된 빅데이터 분석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쇠어 : 빅데이터, 기호학, 감성가치, 동위소, 형태소

I. 서론

최선화(2012)¹⁾는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만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에서 소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기술과 관련된 요소들을 총칭한다고 설명한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줌은 물론,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연구 기관들이 방대한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 도구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법은 전산학과 통계학, 특히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나 기계학습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왔던 분석법들이며,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이 분석법들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빅데이터 처리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³⁾

1) 최선화, 「빅데이터 개념과 재난관리의 활용」, 『재난 안전』 14(5), 국립방재연구원, 2012, 10쪽.

2) 김동완, 「빅데이터의 분야별 활용사례」, 『경영논총』 34,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2013, 40쪽.

3) 하연 편집부, 『빅데이터와 DBMS의 시장 전망』, 하연, 2012. 78쪽.

또한, 업계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표현의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토털 솔루션 서비스 제공은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에서의 저장, 관리 부분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시맨틱(semantic) 검색 등 여러 서비스 영역들 역시 창출하고 있는 현황이다.⁴⁾

최근,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인식에 기반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닝(mining)이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의미로써, 다량의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 등을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닝 기법은 기업의 의사결정, 마케팅, 고객관리뿐만 아니라 금융, 의학,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⁵⁾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분석 방식은 통계학적이고 공학적인 알고리즘만으로는 설명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분석법이다. 즉,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자연어)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기 위하여 대량의 언어자원과 통계적이고 규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⁶⁾ 한편,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개인의 의견이나 전반적 여론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결국 대중의 감정분석으로 연결되는데,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이나 댓글, 포스팅 등의 텍스트를 ‘긍정, 부

4) 임철수,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기술 동향」,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10(5),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4, 80쪽.

5) 이정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한지적공사 사업효율 증대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지적세미나』 36, 대한지적공사, 2013, 12쪽.

6) 조성우, 『Big Data 시대의 기술』, KT종합기술원 중앙연구소, 2011, 97쪽.

정, 중립' 등으로 유형화하여 평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마이닝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몰맥락성'의 논리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마이닝 분석에는 기존의 '인과성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관련성'의 논리만이 적용되고 있다. 즉, 빅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는 특정 단어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공기어(co-occurrence word)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상호관련성을 찾는 논리만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특정 공기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 맥락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 NLP) 분야에서도 의미연구의 무게중심은 '객관적 정보(objective information)'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관적 정보(subjective information)'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로 이동 중에 있다. 여기서 '주관적 정보'란 감정(sentiment)이나 의견(opinion)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는 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들 중에서 입력 어휘와 함께 나타나는 공기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확률모델에 기반한 태거(tagger)를 이용하여 최적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출력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텍스트의 데이터 전체의 패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에 불과하여 문장이나 단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2020년 현재까지도 문장의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을 거쳐 문장의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 방식은 미미하며, 그 성과도 빈약하다. 따라서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관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력(Input) 정보에 대한 의미 분포(평판)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코드와 사회문화적 범주 내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언어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맥락을 언어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박여성(2012)⁷⁾은 어떤 어휘(개념)라도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인접 단위들과의 관계망에서 그 값이 판명된다는 ‘날말발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준칙에 따르면, ‘개념’의 일차적인 확인 장소는 어휘들의 계열체인 ‘날말밭’이며, 연상가치는 ‘문장’과 ‘텍스트’ 그리고 궁극적으로 ‘담론과 역사’에서 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빅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 활용되어온 몰맥락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 간의 맥락을 반영하는 기호학적 마이닝 분석 방법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벗어나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과 더불어 표층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동위소, 즉 의미의 심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감성가치 역시 파악하는 도출 과정을 구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즉,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질적 분석 기법의 구상을 위하여 인문학적 자연어처리 기법과 더불어 기호학, 텍스트언어학 등의 인문학 이론을 브리콜라주(bricolage)하는 통합 인문학적 연구방법론을 구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입력 문서 수집을 위한 크롤러(crawler) 구상 등의 작업을 ‘형태소 분석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텍스트언어학 기반의 데이터 맥락분석, 동위소 분석시스템 설계 작업 등은 ‘동위소 분석 과정’에서 진행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론에 기반하여 인터넷상의 무수한 텍스트에 나타난 고유명사의 의미와 그 의미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그래픽 매핑(graphic mapping)으로 출력할 수 있는 ‘감성가치 분석 과정’의 구상 역시 시도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문장의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을 거쳐 문장의 의미를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방식의 개발 시도는 미미한 상황이며,

7) 박여성, 「개념사 연구: 역사서술과 언어학의 상호작용」, 『개념과 소통』 9,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2, 52쪽.

그 성과도 빈약하다. 그러나 자연어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관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력 정보에 대한 의미 분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코드와 사회문화적 범주 내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언어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맥락을 언어학적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분석에 기반한 텍스트의 동위 의미 추출 기법을 토대로 기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관적 정보 분석이 가능한 감성가치 분석 과정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II. 빅데이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현황

빅데이터의 마이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미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화되거나 반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⁹⁾

이러한 빅데이터의 마이닝에 대한 관심은 통계학과 전산학은 물론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분석 방법론을 결합해 더 의미 있는 정보의 추출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인문학자들의 관심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문학의 진흥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인문학적 소양의 필요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몇몇 인문학자들에 의

8) Hand, D., Mannila, H. and Smyth, P., *Principles of data mining, Adaptive Computation and Machine Learning Series*. MIT Press, 2001, p.101.

9) Berry, J.A.M. and Linoff, G., *Data mining techniques-for marketing, sales and customer support*, New York: Wiley, 1997; Berry, J.A.M. and Linoff, G., *Mastering data mining - the art and scie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New York: Wiley, 2000, p.47.

해 빅데이터와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모인 바 있다. 2016년 <시민인문학> 30호¹⁰⁾를 필두로 ‘인문학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의 관련 논문들이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드러내며 인문학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나 빅데이터의 인문학적 분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과리(2016)¹¹⁾는 빅데이터의 인문학적 필요성을 논증하면서 한국문학의 디지털화는 한국문학의 방대한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접근하여 처리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로서의 자료는 기존의 정보와 비교해 그 처리 방식과 그 처리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빅데이터를 자동 처리할 정보와 반성적으로 검토할 정보로 나누어 접근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즉, 정과리(2016)는 연구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반성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적 지식과 반성적 지식이 단순히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상호순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강하(2016)¹²⁾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사용에 있어 비판적 사유와 인문학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전 인류적 관심 대상이 된 공공의 안전과 치안, 프라이버시와 감시, 데이터 조작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이 된 이 영화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래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데이터의 오분석, 오독의 문제를 피

10) 김기봉, 「빅데이터의 도전과 인문학의 응전」,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9~37쪽 외 여러 편의 논문.

11) 정과리, 「빅데이터의 문학적 활용과 빅데이터에 대한 문학적 성찰」,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17~135쪽.

12) 유강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의 비판적 해석과 인문학적 상상력-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96~116쪽.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 비판적 해석과 상상력,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김호연(2016)¹³⁾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문학’을 융합의 한 시도로 간주하며, 융합의 개념과 유형의 다양성,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의 발전이 가져온 학문생태계의 지형도 변화와 인문학의 새로운 정체성 확보 시도,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인문학’ 또는 ‘디지털 인문학’ 또는 ‘인문학적 정보학’으로 불리는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융합적 접근을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두 문화의 건설적인 융합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

김연권(2016)¹⁴⁾은 인문학적 차원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빅데이터를 경제적인 유용성과 활용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비판적 성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에 인간이 디지털화된 정보의 양적인 총체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문학자가 유한한 시간과 쓸데없는 노동에서 해방되어 인간과 세계에 좀 더 거시적인 동시에 미시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 역시 제기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흔히 전통적인 인문학자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계학이나 전산학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나 언어학의 참여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다학제적인 연구임을 강조하였다.

김기봉(2016)¹⁵⁾은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의미해석이 부

13) 김호연,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70~95쪽.

14) 김연권,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과 과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38~69쪽.

15) 김기봉, 앞의 글.

제한 데이터는 잡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신호로 해독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유래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를 읽고 인류 문명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것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인 작금에 인문학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논증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거한 문제 해결 방식과 미래 예측은 인과성을 추구하는 근대과학으로부터 상관성을 코드로 한 ‘관계의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류 문명이 파국에 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며, 이것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상생의 탈중심적 관계망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모두가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만 머물러 있으며, 빅데이터의 마이닝이나 분석 방법론 전반에서 인문학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적 통합을 구상하거나 제안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질적 정보처리기법으로서 오피니언 마이닝 즉, 감성가치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의 구상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Ⅲ. 빅데이터의 감성가치 도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

인터넷 환경에서 현대인들은 관심 있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기(既)경험자나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태도 결정 즉,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와 같은 개인적인 활용을 넘어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의 여론 수렴의 방식으로도 매우 유용한 이유가 된다. 실제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여론의 감성 분석은 주로 주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성향 분석, 선별, 예측, 판단 등을

도와주는 오피니언 마이닝의 개념에서 활용되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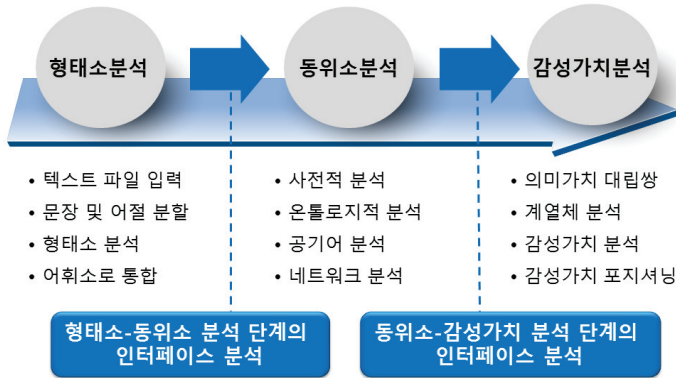
감성분석의 개념을 감성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Pang & Lee(2008)¹⁷⁾는 감성을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하면서, ‘감성 어휘란 객관적 가치 평가보다는 주로 내면이나 주관적 감정 또는 심리가 작용하는 의미 영역의 묘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감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자연언어 처리와 전산언어학 그리고 텍스트 분석론을 활용하여 원자료에서 주관적인 정보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학문이 수행하던 연구 방법과는 달리, 기술공학과 인문학을 개별 학문의 플랫폼으로 삼아 빅데이터의 질적 분석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대한 기호학의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만 진행되어왔을 뿐 정보처리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질적 연구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기술공학, 인문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자연언어처리 연구를 참조하면서, 빅데이터의 “질적+양적” 분석의 장점을 통합한 기호학적 분석 기법을 제안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의 기호학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차원에서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크게 3단계의 분석법 즉, 1) 형태소 분석 과정, 2) 동위소 분석 과정, 3) 감성가치 분석 과정이라는 기호학적 분석 과정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16) 안정국·김희웅, 「집단지성을 이용한 한글 감성어 사전 구축」, 『지능정보연구』 21(2),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5, 50쪽; Khan, F. H., S. Bashir, and U. Qamar, “TOM: Twitter opinion mining framework using hybrid classification scheme”, *Decision Support Systems*, Vol.57, 2014, pp.245~257; Pang, B. and L. Lee,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Vol.2, No.1-2, 2008, pp.1-135.

17) Pang, B. and L. Lee, *Ibid*, pp.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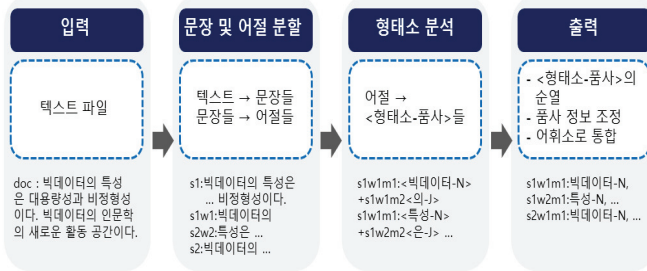
[그림 1] 기호학적 인지모델링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감성가치 분석 과정

또한,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 과정과 동위소 분석 과정, 그리고 동위소 분석 과정과 감성가치 분석 과정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과정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정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의 이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각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감성가치 분석법’의 구상을 제시해볼 것이다.

1. 형태소 분석 과정

첫 번째, 형태소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입력된 텍스트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언어학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기초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데이터의 기계 추출은 Java의 Jsoup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Java 명령어를 통하여 자동 수집된 텍스트 중 중복문서, 오타자 및 인식 불가 단어들을 정제한 뒤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과정은 입력 텍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한 후 이를 다시 어절로 분할하는 첫 번째 단계와 어절을 <형태소-품사>로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형태소 분석 과정



[그림 2] 형태소 분석 과정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를 보완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토큰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추출된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휘소들은 본 연구가 구상한 동위소 분석기로 처리하여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형태소 분석기는 빅데이터 텍스트가 가진 비정형성의 특성에 맞게 기존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기존 시스템들에서는 흔히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문장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를 이용해 문장의 경계를 인식한다. 그런데 빅데이터 텍스트들은 종결부호들 없이 문장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띄어쓰기에 기대 문장을 어절로 분할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텍스트에서는 규범을 벗어난 띄어쓰기가 흔하므로 어절 분할 표지로서의 띄어쓰기의 비중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어절 분할 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형태소 분석에서 중의성이 발생할 경우, 분석 후보 중 최적 후보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빅데이터의 특성인 대용량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즉 빈도 정보 등과 같은 통계적 정보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음 분석 단계인 동위소 분석을 고려해 형태소 분석 결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형태소-품사>에 문장 위치와 어절 위치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 텍스트는 문장의 순열로, 문장은 어절의 순열로, 어절은 형태소의 순열로 표상한다. 이 배열 정보는 동위소 분석 중 ‘문맥 참조 분석’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형태소에 부착되는 소위 ‘품사’ 정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다. ‘조사’의 경우 구조격과 어휘격으로 일반화하거나, 동위소 분석에서 필요치 않은 어미에 대한 문법 정보를 제외하는 등의 처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형태소를 어휘소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어 ‘정상회담’의 경우 ‘정상/명사+회담/명사’와 같이 두 형태소로 분석되는데, 동위소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어휘소 ‘정상회담’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동위소 분석 과정

동위소 분석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텍스트의 동위소(isotope)를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동위소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개념일 뿐만



[그림 3] 동위소 분석 과정

아니라, 그 해석에 위계질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텍스트의 구조는 여러 층위가 서로 병렬, 융합되어 있는 총체이며, 이 총체를 일관된 구성체로 유지시키는 논리적인 규칙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동위소의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레마스(Greimas)¹⁹⁾가 의미론적 관점에서 도입한 동위소라는 개념은 화학분야에서 활용되던 전문용어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동위소라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사용해온 중복성(surplus)이나 일관성(coherence)과 유사한 의미로,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형태통사적 혹은 의미론적인 정보가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²⁰⁾ 즉, 동위소는 텍스트의 주제적이고 가치 지향적 흐름을 주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위소는 특정 담화의 동형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의미론적 단위들의 반복으로써 드러난다. 텍스트의 전개 과정 전반에서 파악되는 동위소들은 담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담화 내용 기저에 내포되어 텍스트의 맥락(context)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의 망을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²¹⁾ 인터넷 상의 언론기사나 블로그 같은 빅데이터 텍스트 담화의 동위소 역시 사회적 테마나 이데올로기라는 맥락 하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²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동위소의 개념을 빅데이터라는 거대 담화의 텍스트적 특성에 기반하여 동위소의 분석 과정이 지니는 외연적 한계를 넘어 내포적 의미가치 자질 역시 포함할 수 있는 함축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위소 분석 과정은 어휘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어휘소를 동위소 개념으로 분석하는 단계로서 크게 동위소의 ‘원형적 유형화’ 단

18) Floch J.M., *Sémiotique, marketing et communication*, Paris: PUF, 1990.

19) Greimas A.J., *Sémiotique et sciences sociales*, Paris: Seuil, 1966; 1976.

20) 전형연, 「프랑스 5개 지역의 지역문화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파리, 리옹, 코냑, 칸느, 아를르 웹사이트의 지역문화전략 홍보담화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3, 한국기호학회, 2008, 416쪽.

21) Floch J.M., *op.cit.*

22)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 Paris: Gallimard, 1968.

계와 동위소의 ‘맥락적 유형화’ 단계로 나누어 구상될 수 있겠다.

첫 번째 단계인 동위소의 ‘원형적 유형화’ 단계는 ‘기존의 유의어 사전과 대립어 사전을 통한 분석 단계’와 ‘상위어와 하위어, 부분어와 전체어’ 등의 체계를 통한 유형화 과정인 “온톨로지(ontology)적 분석 단계”로 나누어 원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동위소의 ‘맥락적 유형화’ 단계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합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문맥 참조 분석 과정’은 동위소의 텍스트 환경을 고려한 ‘형태/통사적 분석 과정’으로써 문장 간, 문장 내 문맥을 참조하여 맥락 분석을 진행하면서 품사열 패턴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상황 참조 분석 과정’은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한 동위소의 ‘통시적 분석’ 과정으로서 빈도와 상관성 지수 등을 이용하여 “사회 환경적 분석”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3. 감성가치 분석 단계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의 기계 처리를 통한 감성의 표상을 위해 기호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감성가치 분석법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감성가



[그림 4] 감성가치 분석 과정

치 분석 과정은 <그림 4>와 같이 빅데이터의 오피니언 마이닝을 위한 감성가치 분석법의 구상 작업이다.

기존의 감성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Liu et al.(2005)²³⁾같은 연구처럼 ‘Opinion Observer’라는 감성분류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웹상의 상품평 데이터에서 긍정 혹은 부정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의 자질만을 추출하여 각 자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문장으로 정규화하면서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에서 정규화한 패턴을 활용하여 극성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극성만을 추출하므로 세부적인 감성가치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도연·김철원(2012)²⁴⁾의 연구에서는 문장의 극성 뿐만 아니라 세부 감성을 분류하고, 감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감성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감성의 분류에서 동양의 정서가 잘 표현되는 공자의 7가지 감성에 의거한 김은영(2004)의 논문을 바탕으로 긍정의 세부 분류 7가지 즉, 감동, 기쁨, 자신감, 만족, 호감, 공감, 선의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의 세부 분류 15가지 즉, 놀람, 두려움, 반감, 분노, 슬픔, 걱정, 그리움, 바람, 불만, 실망, 후회, 미안함, 서먹함, 심심함, 궁금함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한, 분류에 따라 기본 강도를 정하고, 분류 안의 어휘목록들 간의 강도도 정하여 좀 더 세밀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실제로, 텍스트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좋음, 나쁨, 중간’의 극성을 도출하는 기존의 오피니언 마이닝 방식이 마케팅 및 여론 조사 분야에 활용되고는 있지만,²⁵⁾ 이와 같은 기존의 감성 분석 방법은 리소스의 한

23) Liu B., Hu M. and Cheng unsheng., “Opinion Observer: Analyzing and Comparing Opinions on the Web”,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Chiba, Japan, 2005, pp.342-351.

24) 김도연·김철원, 「감성 강도를 고려한 감성 분석 시스템」,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6(1),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 303~305쪽.

25) 송은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평판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17(10),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2439~2446쪽; 박경미 외, 「SNS에서 오피니

계, 맥락분석 기술의 한계 등 자연어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텍스트 담화 데이터 전체의 패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에 불과하며 문장이나 단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텍스트에 내재된 섬세한 감성적 의미 가치를 도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성분석 과정에도 인문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텍스트에서 감성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정보검색 기술을 이용하는 자동 추출 방법과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컴퓨터 기술과 사람의 인지 능력을 이용한 반자동 추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심리학에서 분류하는 인간의 감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4~8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 또는 칠정(七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서양권에서는 즐거움(Joy), 행복(Happiness), 화남(Anger), 슬픔(Sadness) 등으로 분류되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²⁶⁾ 또한, 대부분의 심리학 논문에서는 Plutchik & Kellerman(1980)²⁷⁾의 감성 척도를 기준으로 한 감성 분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감성가치에 기반한 오피니언 마이닝은 우선 어휘 수준에 긍정 및 부정을 표현하는 감정어를 추출하고, 그 다음 문장 단계에서 세부 평가요소와 오피니언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긍정/부정 표현에 관련된 요소들을 취하는 요약 단계를 거치는 방식을 말한다. 이제 텍스트의 감성가치의 분석은 호/불호(긍정/부정)의 극성적 구분을 벗어나 더욱 세밀한 감성의 척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자연어 텍스트에서 주관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사회문화적 범주 내에서 감성코드 및 입력 정보에 대한 의미 분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적 문화코드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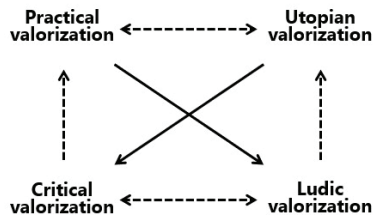
언마이닝 연구』, 『정보과학회지』 29(11), 한국정보과학회, 2011, 54~60쪽.

26) 김은영, 『국어 감정 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7) Plutchik R. and Kellerman H.,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Theories of emotion*.1, New York: Academic, 1980.

더불어, 언어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및 화용론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통합인문학적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감성가치 분석 과정은 동위소 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동위소의 감성가치를 분석·도출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호학의 ‘의미가치 대립쌍’ 개념에서 출발하여, 그레마스(Greimas)²⁸⁾와 플로슈(Floch)²⁹⁾의 ‘기호사각형’ 개념을 바탕으로, 샘프리니(Semprini)³⁰⁾의 ‘소비가치 매핑’의 개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레마스와 보드리야르(Baudrillard)³¹⁾가 존재론적 기본 가치(valeurs de base)와 유용 가치(valeurs d’usage)의 대립으로 설명한 ‘의미가치 대립쌍’에서 유래한 ‘기호사각형’과 플로슈(1990)가 이를 브랜드 가치 분석에 적용한 ‘소비가치 사각형’의 개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플로슈(1990)는 80년대 시트로엥 자동차 브랜드의 소비가치를 분석하면서 <그림 5>와 같이 실용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치 등 4가지 소비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5] 소비가치 4각형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감성가치 도출을 위하여 위와 같은 ‘소비가치 사각형’ 즉, 실용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비판적 가치, 유희

28) Greimas, A.J.,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réédition Paris: PUF, 1986).

29) Floch, J.-M., *Sémiotique, Marketing and Communication*, Paris: PUF,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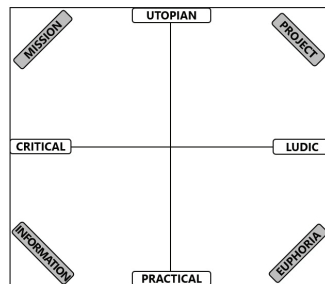
30) Semprini, A., *Le Marketing de la Marque*. Paris: EL, 1992, pp.77-101.

31) Baudrillard, J., *Le système des objets*, Paris: Gallimard, 1968.

적 가치라는 4가지 유형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각 단계는 다시 두 개의 분석 단계로 구분되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의미작용 분석 단계’에서는 추출된 동위소의 의미대립쌍과 기호사각형 개념을 활용한 ‘의미가치 대립쌍 분석 과정’과 계열체 배열과 범주화를 통한 거시-동위소(macro-isotopie) 추출과정인 ‘계열체적 분석 과정’으로 나누어 의미론적이며, 기호학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추출된 동위소들이 함축하는 기저의 의미자질들 사이의 중복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감성가치 분석 단계와의 인터페이스 역시 찾아낼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인 감성가치 분석 단계에서는 ‘감성가치 분석 및 추출 과정’과 ‘감성가치 4분화와 세분화 과정’으로 나누어 기호학적 감성가치 포지셔닝까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샘플리니의 매핑은 감성가치의 관계구조를 매핑 즉, 포지셔닝 영역으로 변형시킨 4가지 영역에 시각화함을 의미한다.



[그림 6] 소비가치 매핑

이들 4가지 영역은 <그림 6>과 같이 플로슈(1990)의 기호사각형이 제시한 4가지 컨셉인 유토피아적 가치, 유희적 가치, 실제적 가치, 비판적 가치를 서로 중첩하고, 교차하면서 생성한 엄밀한 의미가치 포지셔닝의 틀로서 빅데이터 상의 오피니언 마이닝의 섬세한 감성가치 지형을 표시

하는데 타당한 기준과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³²⁾ 물론 이 포지셔닝 영역은 더 심층적으로 중첩하고, 교차시켜 더 정교하고 세분화된 감성가치 매핑 지형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겠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버즈 모니터링(buz monitoring)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자연어 분석을 실행해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척도를 분류한 뒤, 토픽의 전체 출현 빈도수와 긍정/부정 척도를 가진 단어 빈도수의 함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식은 양적 연구 방법의 결과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문장이나 단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실제로, 빅데이터 텍스트의 감성가치 분석 역시 호/불호(긍정/부정)의 극성에서 나아가 더욱 세밀한 감성의 척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빅데이터의 자연어 텍스트에서 주관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사회문화적 범주 내에서 감성코드 및 입력 정보에 대한 의미 분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적 문화코드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어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및 화용론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의 자연어 텍스트에서 주관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사회문화적 범주 내에서 감성코드 및 입력 정보에 대한 의미 분포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의 구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존의 빅데이터 마이닝 분석에서 활용되

32) 전형연, 「기호학적 포지셔닝을 통한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 유형 연구- 명품 브랜드 웹사이트 상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385~424쪽.

어은 몰맥락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 간의 맥락을 반영하는 기호학적 마이닝 분석 방법론을 제안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한계를 벗어나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과 더불어 표층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동위소, 즉 의미의 심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감성가치 역시 파악하는 도출 과정을 구상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분석에 기반한 텍스트의 동위 의미 추출 기법을 토대로 기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주관적 정보 분석이 가능한 감성가치 분석 과정을 구상해볼 수 있었다. 3단계의 분석법 즉, 1) 형태소 분석 과정, 2) 동위소 분석 과정, 3) 감성가치 분석 과정이라는 기호학적 분석 과정이 빅데이터의 기호학적 분석 기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구상된 분석 과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형태소 분석, 자연어 처리 방법에서 출발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은 물론, 기호학적 동위 의미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인 동위소 기반 유의어 사전인 동위 의미 사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장성분을 코플라(copla) 형태로 자동으로 이진법화시켜 문장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알고리즘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술부에 목적어만 있는 문장의 경우 코플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공기어 분포와 공기어의 동위소 유사 의미 사전을 이용하여 입력언어의 의미 추출 정확도를 강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와 같은 기호학적 분석 과정은 표층 텍스트가 갖고 있는 동위소, 즉 의미의 심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주관적 감성 자질을 추출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도구의 구상이 인

물, 상품, 기업 등 다양한 테마에 관한 거대한 양의 텍스트에 숨어 있는 주관적 의도와 감성가치의 자질을 추출함으로써 마케팅,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향상된 빅데이터 분석틀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봉, 「빅데이터의 도전과 인문학의 응전」,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9~37쪽.
- 김도연·김철원, 「감성 강도를 고려한 감성 분석 시스템」,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지』 6(1), 한국전자통신학회, 2012, 303~305쪽.
- 김동완, 「빅데이터의 분야별 활용사례」, 『경영논총』 34,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2013, 39~52쪽.
- 김연권,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의 역할과 과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38~69쪽.
- 김은영, 『국어 감정 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호연,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70~95쪽.
- 박경미 외, 「SNS에서 오피니언마이닝 연구」, 『정보과학회지』 29(11), 한국정보과학회, 2011, 54~60쪽.
- 박여성, 「개념사 연구: 역사서술과 언어학의 상호작용」, 『개념과 소통』 9,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2, 33~90쪽.
- 송은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객평판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17(10),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2439~2446쪽.
- 안정국·김희웅, 「집단지성을 이용한 한글 감성어 사전 구축」, 『지능정보연구』 21(2),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5, 49~67쪽.
- 유강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의 비판적 해석과 인문학적 상상력-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96~116쪽.
- 이정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한지적공사 사업효율 증대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지적세미나』 36, 대한지적공사, 2013, 1~34쪽.
- 임철수,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기술 동향」,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10(5),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4, 77~84쪽.
- 전형연, 「기호학적 포지셔닝을 통한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 유형 연구- 명품 브랜드 웹사이트 상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385~424쪽.
- _____, 「프랑스 5개 지역의 지역문화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파리, 리옹, 코냐, 칸느, 아를르 웹사이트의 지역문화전략 홍보담화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3, 한국기호학회, 2008, 407~440쪽.

- 정과리, 「빅데이터의 문학적 활용과 빅데이터에 대한 문학적 성찰」, 『시민인문학』 30,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17~135쪽.
- 조성우, 『Big Data 시대의 기술』, KT종합기술원 중앙연구소, 2011.
- 최선화, 「빅데이터 개념과 재난관리의 활용」, 『재난 안전』 14(5), 국립방재연구원, 2012, 8~17쪽.
- 하연 편집부, 『빅데이터와 DBMS의 시장 전망』, 하연, 2012.
- Baudrillard, J., *Le système des objets*, Paris: Gallimard, 1968.
- Berry, J.A.M. and Linoff, G., *Data mining techniques-for marketing, sales and customer support*, New York: Wiley, 1997.
- _____, *Mastering data mining -the art and scie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New York: Wiley, 2000.
- Floch J.M., *Sémiotique, marketing et communication*, Paris: PUF, 1990.
- Greimas A.J., *Sémiotique et sciences sociales*, Paris: Seuil, 1966; 1976.
- _____,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réédition Paris: PUF, 1986).
- Hand, D., Mannila, H., and Smyth, P., *Principles of data mining, Adaptive Computation and Machine Learning Series*, MIT Press, 2001.
- Khan, F. H., S. Bashir. and U. Qamar, “TOM: Twitter opinion mining framework using hybrid classification scheme”, *Decision Support Systems*, Vol.57, 2014, pp.245~257.
-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 Paris: Gallimard, 1968.
- Liu B., Hu M. and Cheng unsheng, “Opinion Observer: Analyzing and Comparing Opinions on the Web”,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Chiba, Japan, 2005, pp.342-351.
- Pang, B. and L. Lee,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Vol.2, No.1-2, 2008, pp.1-135.
- Plutchik R. & Kellerman H.,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Theories of emotion*, 1, New York: Academic, 1980.
- Semprini, A., *Le Marketing de la Marque*, Paris: EL., 1992.

A Study on Semiotic Analysis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Emotional Value of Big Data

Jeon, Hyeong-Yeon · Wang, Chi-Hyoun · Oh, Jang-Geun ·
Kim, Sang-Won · Lee, Gyeong-Ho

This study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non-contextuality used in existing big data mining analysis, and to propose a semiotic mining analysis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context between hidden information. This study deviates from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data analysis methodology and applies a semiotic analysis method that can grasp the isotopes of the surface text, that is, the profound structure of meaning, along with the linguistic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tried to conceive a derivation process to grasp the emotional value that exists. Therefore, this study was able to conceive of an emotional value analysis process that can comprehensively explain not only the meaning of signs but also the meaning of sociocultural phenomena, and a subjective information analysis process motivated by the method of extracting the meaning of the text based on morpheme analysis and syntax analysis. In other words, in order to explore the new possibility of the big data semiotic analysis technique, a semiotic analysis process was envisioned in three stages: 1) morpheme analysis process, 2) isotope analysis process, and 3) emotional value analysis process. The analysis methodology extracts the subjective intention hidden in the text and the qualities of the emotional value for various things such as people, products, companies, etc., which are proper nouns entered in the analysis of emotional value, in fields such as marketing and research. This analysis methodology is expected to provide improved analysis tool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Keywords : Big data, semiotics, emotional value, isotopes, morphemes

투고일: 2020. 08. 28./ 심사일: 2020. 09. 09./ 심사완료일: 2020. 09. 09.

딥러닝 자연어처리(NLP)와 일반수사학 (General Rhetoric)과의 융합적 접점 분석

– 그룹 뮤(Groupe μ)의 『A General Rhetoric』을 중심으로*

지승학**

【 차 례 】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응용을 위한 종합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그룹 뮤(Groupe μ)의 『일반수사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학과 수사학적 언어의 형태와 RNN 언어모델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로 동원되는 것은 시학과 수사학적 언어의 기능을 분류하는 ‘메타볼’(Metaboles)의 유형이다. 특히 메타볼은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수사학적 공간’의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딥러닝 기술을 통한 자연어처리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사학적 공간 개념을 RNN 언어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밀한 언어 데이터 셋 마련과 정확한 ‘의미의 영점’(Degree-Zero) 마련 역시 중요하다. 이런 사실은 결국 학문적 융합이 현재 A.I. 기술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사학』의 내용은 현재의 딥러닝 언어모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날카로운 혜안을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인문학과 공학의 초학제적 태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임 (NRF-2019R111A1A01060305)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연구교수, jetha@korea.ac.kr

열쇠어 : 수사학, 수사학적 공간, 자연어처리 데이터 셋, RNN 언어모델, 딥러닝, 메타볼, 메타볼 유형, 그룹 뮤, GPT-3

I. 서론

현재 딥러닝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A.I.로 통칭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¹⁾은 이미지 인식처리기술에서부터 자연어처리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인식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연구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오로지 공학 덕분에 이뤄진 일방적 성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인식체계, 즉 시각적 인식과 언어적 인식체계는 서구 사상에서 항상 주목해왔던 ‘신성과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²⁾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문제와 자연어 처리 문제 속에서, 다시 말해 그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인문학이 고민해오던 신성과 정신의 문제를 위시하여 기호 그리고 언어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딥러닝의 자연어처리 기술에서의 데이터 기본단위인 ‘0’과 ‘1’ 즉, 원핫인코딩(One-Hot Encoding)³⁾은 ‘의소’(Semes)혹은 ‘의의소’(Sememe)로

1) 머신러닝과 딥러닝 관련 내용은 아래 문헌 참조

Mitchell, T. M., *Machine Learning*, McGraw-Hill, 1997.

Hinton, Geoffrey, *Unsupervised Learning: Foundations of Neural Computation*
A Bradford Book Computational neuroscience, MIT Press, 1999.

2) 정신을 규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성(神聖)에 주목했던 것과 그 신성에 견주어 정신을 사유해 오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 철학적 흐름을 보면 이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유는 ‘신의 힘 -> 내재적 인지 -> 내적 베르브 -> 사고된 외적 베르브 -> 발화된 외적 베르브’로 구분하는 토도르프(Todorov)의 사유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도르프(Todorov). T., 『상징이론』,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5, 48쪽.

3) 원핫인코딩(One-Hot Encoding)은 입력 데이터로 ‘0’과 ‘1’만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구별의 용이함은 뛰어나지만 단어의 수만큼 데이터의 차원(dimension)이 늘어나게 된

이해될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룹 뮤의 『일반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그룹 뮤의 문제의식과 지금의 ‘자연어처리 과정’(NLP)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 공통점에 최대한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본문

1. 일반수사학과 자연어처리(NLP)

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사학』에서 다루는 시학(Poetic)과 수사학(Rhetoric) 언어의 형태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와 덤러닝에서의 자연어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먼저 『일반수사학』을 집필한 소위 그룹 뮤(Groupe μ)로 통칭되는 자크 뒤브아(J. Dubois), 프랜시스 에들린(F. Edeline), 장 마리 클린켄버그(J.-M. Klinkenberg), 필립 망귀에(P. Minguet), 프렌시스 피르(F. Pire), 하달린 트리논(H. Trinon)은 누구보다도 먼저 수사학적 언어형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영문 번역 제 2판 번역자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판 번역가인 폴 브루엘(Paul B. Burrell)과 에드가 슬로킨(Edgar M. Slotkin)은 ‘수사학’이 가진 미국 내 편견, 예컨대 수사학은 그저 대학생 작문 교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정도로 치부되던 작태를 비판하면서⁴⁾ 마찬가지로

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원핫인코딩(one-hot encoding)에 관련 설명은 다음 문헌 참조.

Deshpande, Anand, Kumar, Manis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ig Data: Complete guide to automating Big Data solu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Packt Publishing Ltd, 2018, p.171.

4) Dubois, J., Edeline, F., Klinkenberg, J.-M., Minguet, P., Pire F., Trinon, H., *a General Rhetoric*, trans. Burrell Paul B., Slotkin Edgar M., The Johns Hopkins Press, 1981, p. xiii

수사학적 언어형태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전통 언어학의 자장 밖에 있는 시학적 언어와 수사학적 언어의 형태변화 구조였다. 이 형태변화는 의미변화마저 동반한다. 그들은 이 구조가 앞으로의 과학에도 크게 기여할 것⁵⁾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로만 야콥슨이 시도한 모든 시적 절차(Poetic Procedures)에 관한 기본원리를 지도 삼아 시학과 수사학적 언어의 ‘의미의 분절레벨’(The Level of Articulation)과 ‘메타볼 유형’(The Type of Metaboles)⁶⁾이라는 형태변화의 연속성이 배태하고 있는 수학적 기능을 찾아내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역시 수학적 기능에 주목한다. ‘시퀀스 데이터’(Sequence Data)⁷⁾를 처리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는 입력데이터가 가진 수학적 연속성에 주목한다. RNN(Recurrent Neural Network)⁸⁾은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RNN은 우리에게 친숙한 ‘알파고’의 ‘이미지 인식처리 방식’인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⁹⁾과 달리,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5) 『일반수사학』의 원저자들은 롤랑 바르트의 주장을 재인용하면서 의미의 구조화 가능성을 넘어서 과학의 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ibid.*, p.1.

6) *ibid.*, p.11.

7) 여기에서 시퀀스 데이터란, 음성언어나 이야기 혹은 문장, 문단처럼(물론 동영상 데이터도 포함 됨) 데이터 간 맥락을 연결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8) RNN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헌 참조.

Ciaburro, Giuseppe, Venkateswaran, Balaji, *Neural Networks with R: Smart models using CNN, RNN, deep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Packt Publishing Ltd, 2017, p.184.

9) 합성곱 신경망 네트워크는 입력된 데이터에 ‘필터’(filer, kernel) 사이즈를 기반으로 각각의 스트라이드(stride) 사이즈 만큼의 여러 값을 뽑아내고 그 값을 여러 레이어를 거치게 하여 최종 값을 출력하는 방식의 딥러닝 네트워크 이다. 가장 대표적인 CNN을 활용한 딥러닝은 ‘알파고’이며 현재는 하나의 정지 영상 이미지 판독이 필요한 분야, 예컨대 의학적 진단 등을 위한 이미지(예. 의료용 CT이미지, MRI이미지, X-Ray 이미지 등)의 정교한 판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RNN과 CNN을 구별 지으려는 이유는 시퀀스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RNN은 연속된 데이터(동영상, 영화)를 판독할 때 유용하고 CNN은 단일 데이터(정지영상, 사진)를 판독할 때 유용하다.

ibid., p.199.

위해 하나의 셀(Cell)¹⁰⁾로 규정된 연산을 순환반복(Recurrent)시키는 네트워크이다. 하지만 RNN은 단어를 수치로 변환한 값을 계산하는 것일 뿐, 실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은유와 환유의 의미적 치환과 연쇄를 모두 구현해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RNN이 모든 자연어처리 딥러닝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RNN 이후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 발전시킨 자연어 처리 기술은 시학적 수사학적 표현이 가능한 글들을 작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판별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딥러닝 자연어처리기술과 『일반 수사학』에서 다루는 시학, 수사학적 언어의 표현은 명실상부 인간과 기계가 주목하는 공통된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자연어처리에서 RNN 언어모델의 구조와 의미

『일반 수사학』에서는 시학, 수사학적 표현에 있어서 언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메타볼’(Metabole)¹¹⁾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메타볼은 시학과 수사학적 언어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¹²⁾ 그렇다면 ‘메타볼’은 자연어 처리를 위해 고안된 RNN에 비유해 볼 때 어떤 부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어 처리의 발전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0) ‘셀’(Cell)은 하나의 연산 함수의 거점으로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노드’와 같은 의미이다. 명칭은 딥러닝 구현에 사용되는 텐서플로우(tensorflow)에서 명명한 것으로써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셀’로 언급된다. 다시 말해 딥러닝 소스코드에서 직접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셀’로 명명하고자 한다.

11) Dubois, J., et. al., *op. cit.*, p.18.

12)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던 ‘메타볼’(전질변화)의 기원적 의미에 단순히 적용해 보아도 다양한 형태변화의 언어적 특징을 통찰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 참조.

Trott, M. Adriel, *Aristotle on the Nature of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37~40,

1) 자연어처리(NLP)와 데이터

딥러닝의 자연어처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식과 유사해야 한다. 모든 인공지능의 능력은 인간의 인식체계를 얼마나 유사하게 모방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자연어를 인간 처럼 인식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RNN은 여기에서 언어인식에 해당하는 자연어처리와 관련이 깊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인공지능 연구와 언어학이 만나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분야이고, 단순히 보면 단어의 의미를 컴퓨팅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하는 전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방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IR(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과도 다르고 배커스-나우어 형식(BNF, Backus-Naur Form)이나 문맥자유문법(CFG, Context-Free Grammar)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구조개발과도 다르다.¹³⁾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언어인식체계(시학, 수사학 등)를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자연어처리는 비로소 그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연어처리는 Bag of Words¹⁴⁾와 N-Gram,¹⁵⁾ TF-IDF,¹⁶⁾ Euclidean distance,¹⁷⁾ Cosine similarity¹⁸⁾ 등과 같은 기법을

13) Nadkarni, M. Prakash, Ohno-Machado, Lucila, Chapman, W. Wend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ume 18, issue 5, 2011, pp.544-551.

14) McTear, Michael, Callejas, Zoraida, Griol, David, *The Conversational Interface: Talking to Smart Devices*, Springer, 2016. p.167.

15) 이 방식은 'Bag of Words'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해서 고안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단어의 순서를 뒤섞지 않고 숫자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Bag of Words'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다. 'N-grams'방식은 1-gram(unigram), 2-gram(bigram), 3-gram(trigram)으로 구별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Cavnar, B. William, and John, M. Trenkle, "N-gram-based text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SDAIR-94, 3rd annual symposium on document analysis and information retrieval. Vol. 161175. 1994.

16) TF(Term Frequency)는 말 그대로 문서 속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말한다. 한 문서 속에 단어의 출현 빈도수를 체크하여 빈도수가 많다면 연관성이 높은 단어일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Bag of Words'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개발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원핫인코딩으로써 빈도수를 계산(카운트 기반)하는 방식과 둘째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¹⁹⁾을 통하여 확률을 측정(유사도 예측)²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후자의 대표 격은 LSA(잠재의미 분석, Latent Semantic Analysis), Word2Vec,²¹⁾ GloVe²²⁾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단어의 출현빈도를 판단하던 프로세스에서 두 단어 간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파악, 예측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원핫

현빈도에만 의존하므로 ‘불용어’에 인한 판별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불용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때 정보이론 방정식이 활용된다.

Ramos, Juan,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Vol. 242. 2003.

- 17) ‘유클리디언 거리측정법’은 일차 방정식의 좌표로써 단어 간 형성되는 거리 값을 측정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Liu, Donghai, Xiaohong Chen, and Dan, Peng, “Some cosine similarity measures and distance measures between q-rung orthopair fuzzy se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Systems* 34.7, 2019, pp.1572~1587.

- 18) ‘코사인 유사도측정법’은 두 단어 간 출현 빈도 수를 Embedded Encoding을 통해 좌표화 한 후 코사인 각도만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유클리디언 거리 측정법에서의 거리측정과 달리 오로지 단어 간 형성되는 각도만 측정한다.

ibid., pp.1572~1587.

- 19) 원핫인코딩(One-Hot Encoding)은 앞서 ‘각주3’에서 언급했듯이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의 벡터 차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해서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Deshpande, Anand, *et. al.*, *op. cit.*, p.171.

- 20) 저차원의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은 유사도 파악을 위한 좌표화가 가능하다.

- 21) 워드투벡(Word2vec)은 원핫인코딩을 저차원의 벡터 값으로 변환하는 툴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Ling, Wang, *et al.*, “Two/too simple adaptations of word2vec for syntax problems.” *Proceedings of the 2015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2015.

- 22) 글로브(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GloVe)는 LSA와 Word2Vec의 장점을 모두 갖춘 자연어처리 툴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Pennington, Jeffrey, Richard, Socher, and Christopher, D. Manning, “Glove: 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Proceedings of the 201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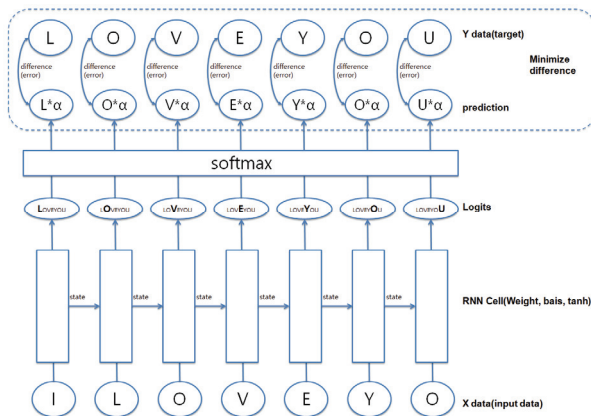
인코딩으로 인한 카운트 기반 프로세스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탓에 자연스럽게 워드 임베딩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 이 둘을 간략하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핫 인코딩 (One-hot Encoding)	워드 임베딩 (Word Embedding)
표현	0, 1로 구성	실수
목적	정량적 분석	비교 예측(유사도 측정)
방법론	Bag of words, N-gram, TF-IDF	LSA, Word2Vec, GloVe
자료화 특징	Index (지정 데이터)	학습데이터

[표 1] 변환 벡터 비교 표²³⁾

2) RNN을 통한 자연어처리

(1) RNN 언어 모델(Recurrent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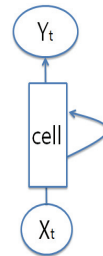
[그림 1] RNN 언어 모델 구성도

23) 원-핫 벡터, 임베딩 벡터라고도 한다.

RNN 언어 모델은 단순히 말하면 주어진 한 ‘문자’를 통해 다음 ‘문자’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모델이다. “ILOVEYOU”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I”를 입력할 때 “L”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L”을 입력하면 “O”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 데이터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 RNN 언어모델이다. 또한 언어 이외에도 시퀀스 데이터로 이뤄진 것은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CNN 모델과 차이를 이룬다.²⁴⁾ 그렇다면 RNN 언어 모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하는가? 앞서 언급한 문장, “ILOVEYOU”를 예시로 하여 이 모델을 살펴보자.

(그림 1)은 제일 처음 ‘X data’인 문자 “ILOVEYOU”를 원핫인코딩으로 변환한 후 입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변환된 이 데이터는 RNN Cell에 입력되어 가중치(Weight)와 편향 값(Bias) 그리고 탄에이치(Tanh)라는 활성화함수를 거쳐 확률값(Logit)이 된다. 이 값은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에 전달되어 예측 값(Prediction)으로 계산 된 후 다시 소위 ‘정답 데이터’인 Y data(Target) 값과의 편차 값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편차 값은 ‘0’에 수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다시 RNN Cell로 되돌려 보내져²⁵⁾ 점차 ‘0’으로 근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엇보다 (그림 1)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RNN Cell을 연결하고 있는 ‘상태 값’(State)이다. 이 값은 다음 셀로 전달, 순환됨으로써 입력된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우선순위로 계산할지 등을 관찰하게 된다. (그림2)는 상태 값의 순환구조를 단순화한 RNN 모델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RNN cell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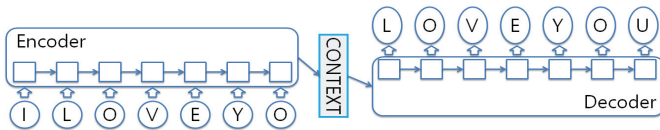
24) 물론 자연어 처리모델에 CNN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RNN의 특성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25) 여기에서 언급한 편차 값이 되돌려 보내지는 과정을 ‘역전파’ (“Backpropagation”)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Leung, H., Haykin, S., “The complex backpropagation algorithm”,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Volume: 39, Issue: 9, 1991, pp.2102~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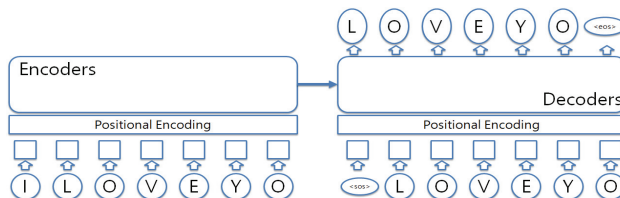
(2) Sequence to Sequence(seq2seq)에서 GPT-3 까지

RNN 언어모델은 지속적으로 상태 값(State)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킨다. 그리고 발전된 이 값은 결국 인코더 아키텍처(Encoder Architecture)와 디코더 아키텍처(Decoder Architecture)를 구분하기에 이른다. seq2seq는 RNN 언어모델의 내부를 그렇게 둘로 나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상태 값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문맥벡터(Context Vector)가 자리한다.(그림 3 참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당연히 시퀀스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이다.



[그림 3] seq2seq 모델

seq2seq에서 문맥벡터는 입력된 값의 모든 특정 벡터 값을 기억하고 있는 함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맥벡터는 자신의 값과 맞지 않는 데이터는 모두 오류 처리를 해버린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딥러닝 언어모델은 결국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예측제어) 신경망을 통해 문맥 벡터의 이 한계를 극복한다. 쉽게 말해서 문맥벡터를 없애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직접 연결시킨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림 4 참조)



[그림 4] Transformer 모델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집중식의 문맥벡터에서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그 역할을 할당하는 소위, 탈중앙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Transformer²⁶⁾는 문맥벡터 대신 입력데이터 각각에 ‘위치 인코딩 값’(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개별 데이터를 부여해 실현시킨 모델의 이름²⁷⁾이다.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²⁸⁾와 ‘GPT-3’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²⁹⁾모델은 바로 이 Transformer로 부터 파생³⁰⁾된 모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2020년에 발표된 GPT-3의 성능은 놀랍다. GPT-3가 출력한 작문은 사람들조차 기계가 쓴 것인지 사람이 쓴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³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인간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면서도, 적어도 수사학적인 측면에서는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단어를 숫자³²⁾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26) Transformer란 2017년 구글(Google)이 발표한 자연어처리모델의 이름이다.

27) 이것은 결국 개별적 입력데이터 값을 더욱 정교하게 처리하여 함을 의미한다. 일반수사학에서 ‘분별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Transformer에 다시 적용된 셈이다. 일반수사학의 혁신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재확인된다.

28) BERT는 제한된 자연어 처리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대량의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언어의 보편적 구조를 파악한 후 다시 실제 자연어처리 연산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가중치와 편향 값 조정을 통해 신경망 속에서 결과를 산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사전 학습시스템을 적용한 첫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Devlin, Jacob, et al.,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2018.

29) 2020년 OpenAI에서 발표한 딥러닝 자연어처리의 최신 모델로서 GPT-2의 성능을 향상시킨 자연어처리 모델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논문 참조.

Brown, B. Tom,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2020, Johns Hopkins University, OpenAI, (<https://arxiv.org/abs/2005.14165>)

30)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둘은 모두 ‘Transformer’의 구조를 차용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BERT는 Transformer의 인코더스 부분(Encoders Part)만을 사용하고 GPT 시리즈는 디코더스 부분(Decoders part)만을 사용하여 각각의 성능을 발전시킨 것이다.

31) GPT-3논문에 의하면 48%(Mean Accuracy 52%)의 사람들이 GPT-3가 출력한 글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결과를 통해서 그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PT-3로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피싱을 위한 스팸메일 그리고 학생들 레포트의 오남용을 크게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Brown, B. Tom, et. al. *op. cit.*,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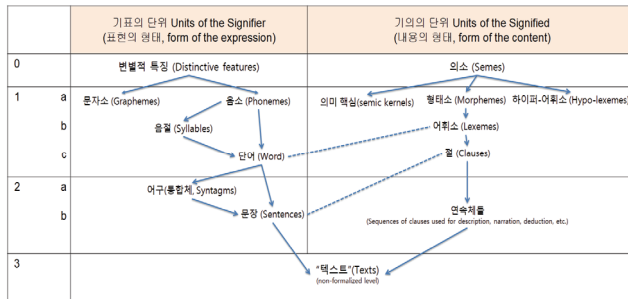
학적 기능은 오늘 날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3. 『일반수사학』에서의 자연어(시학/수사학) 유형분류

그렇다면 『일반수사학』의 ‘시학적 수사학적 기능’을 딥러닝 언어모델에 적용해보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앞서 자연어처리 과정을 검토했듯이 마찬가지로 『일반수사학』에서 바라보는 시학, 수사학적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과정,³³⁾ 다시 말해 시학, 수사학적 언어의 형태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언어의 점진적인 계승 과정(A Progressive Succession of Fields)

(1) 분절 레벨 (The Levels of Articulation)과 연속성



[표 2] 분절 레벨³⁴⁾

32) 이때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단어의 출현 빈도수(frequency) 혹은 배열(Arrangement) 아니면 위치(Position, x축, y축에 의한 좌표) 등이다.

33) 이에 대한 근거로서, 『일반수사학』에서는 뱅베니스트에 의해 발전되어 온 ‘일반언어학에서의 문제들’(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을 거론한다.

ibid., p.25. 『일반수사학』에의 재인용.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문헌 참조.
Benveniste, E.,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M. Meek, University of Miami Press, 1971, pp.101~111.

34) Dubois, J., *et. al.*, *op. cit.*, p.26.

『일반수사학』은 ‘의미의 본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단위화의 기능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낱선 비판이 향해야 하는 지점이라기보다 오히려 『일반수사학』과 자연어처리와의 접목을 이루는 핵심 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표 2)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화살표 방향의 의미이다.

(표 2)에서의 화살표는 언뜻 상하 관계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엄격한 계층적 위계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화살표에는 호혜적 관계가 암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넘어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실제로 레벨 0과 레벨 1과의 통합, 레벨 1 내에서의 연결, 레벨 1과 레벨 2와의 통합 그리고 레벨 2 내에서의 관계는 화살표로써 의미구조의 다양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한다.³⁵⁾

실제로 『일반수사학』에서는 계열 축(The Paradigmatic Axis)과 통합 축(The Syntagmatic Axis)이 나타내는 직교적 성격(Orthogonal Character)을 토대 삼은 전통 언어학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한 후, ‘순수한 형태에서 순수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방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관점은 의미의 기본단위를 강력하게 요청³⁶⁾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일반수사학』은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형영역(Plastic Field), 구문영역(Syntactic Field), 의미영역(Semic Field), 논리영역(Logical Field)을 각각 정의 한 후 서로 전개되는 방향으로써 ‘의미화의 단위’(The Unit of Signification)를 설명한다. 이해하기 쉽게 각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여기에서 레벨 0과 레벨 3은 자체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 그려졌으나, 이 또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다고 그룹 묶는 설명한다. 특히 레벨 3의 경우, 이야기와 나레이션과도 연결되어 또 다른 범주의 구분과 서로간의 통합이 가능하다. *ibid.*, p.27.

36) 음소(Phonemic Figures)나 음절(Syllabic Figures) 역시 의미의 기본단위 차원에서도 의미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체로써 음소보다 작은 의미와 문장보다 더 큰 의미의 단위는 파악될 수 있다. *ibid.*, p.27.

조형 영역 (Plastic Field)	순수한 형태와 임의적 형태, 의미는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것
↓	
구문 영역 (Syntactic Field)	기능이라는 범위에서의 의미형태: 한 문장에 '기능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
↓	
의미 영역 (Semic Field)	양식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석되고 제한되는 의미의 일부
↓	
논리 영역 (Logical Field)	언어의 종류에 국한되거나 통제 받지 않은 순수 의미 또는 내용

[표 3] 분절 레벨의 연속적 관계³⁷⁾

(2) 메타볼 유형 (The Types of Metaboles)

(표 3)은 ‘메타볼유형’(The Types of Metaboles)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반수사학』에서 메타볼은 어형변환(Metaplasms), 구성변환(Metataxes), 어의변환(Metasememes), 논리변환(Metalogism)으로 구분³⁸⁾되는데 이 유형들은 앞서 언급했던 조형 영역(Plastic Field), 구문 영역(Syntactic Field), 의미 영역(Semic Field), 논리 영역(Logical Field)의 특성을 각각 계승한다. 그러면 각각의 영역을 하나 씩 살펴보자.

① 어형변환의 영역(The Field of Metaplasms)

어형변환의 영역은 단어보다 작은 단위로서, 소리와 시각적 형태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조건은 음소(phoneme)와 문자소의 ‘중복과 반복’이다. 중복과 반복은 음소와 문자소를 더하고 빼는 식의 규칙인 셈이다. 결국 이 영역에서 ‘중복과 반복’은 전통 언어학의 직교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새로운 조건이 된다.

② 구성변환의 영역(The Field of Metataxes)

구성변환의 영역은 한 문장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신타그마(The Syntagms)에 주목한다. 특히 『일반수사학』에서 주목하는 신타그마는 어

37) *ibid.*, p.28.

38) *ibid.*, p.18.

떤 구문 속에서 최소한으로 존재해야하는 ‘간극’과 같은 것으로서 일종의 형태소와의 상보적인 위치(Position)관계³⁹⁾ 그 자체이기도 하다. 실제로 거리 단위인 ‘meter’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 ‘체계화된 편차’(The Systematized Deviation)⁴⁰⁾는 의미의 기본단위가 된다.

③ 어의변환의 영역(The Field of Metasememes)

어의변환은 하나의 ‘의의소’(Sememe)를 다른 의의소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관계는 어떤 연속성에 기반 한다. 연속성은 보편적 정의라는 표준 의미를 항상 요구한다. 『일반수사학』에서 ‘의미 영점’(Degree-Zero)⁴¹⁾을 비중 있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특히 의미영점은 법전화(Codification)를 거친 ‘필수적인 의소’(Essential Semes)⁴²⁾의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편차 개념은 표준을 요구한다.”라는 문장은 이런 어의변환 영역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의미 영점은 어의변환 영역에서의 기본단위가 된다.

④ 논리변환의 영역(The Field of Metalogisms)

논리변환은 언어로 발화하기 이전의 ‘현실’과 관련된 우리의 ‘사고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현실’이 강조되는 이유는 어의변환과의 혼동을 피하기위해서다. 가령 어의변환이 ‘은유’와 같이 언어구조 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논리변환은 ‘종교적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고양이는 신이다’라는 말은 발화하는 순간 ‘은유’가 되지만 어떤 사회 속에서 고양이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은유가 아니라 논리변환이다.⁴³⁾ 논

39) *ibid.*, p.65.

40) 여기에서 ‘체계화된 편차’는 무엇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언어학』에서는 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단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ibid., p.67.

41) *ibid.*, p.30.

42) *ibid.*, p.105.

43) *ibid.*, p.128.

리변환의 영역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의미범위를 단위로 삼고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의 간의 자의성을 규정하는 사회규범적 한계 그 너머의 ‘현실적 범주’⁴⁴⁾를 기본단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범주는 ‘선택’⁴⁵⁾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한 문장의 통속적 의미를 쉽게 넘어 서기도 한다.

⑤ 분류 및 종합

이상의 4가지 메타볼 유형을 ‘표현과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 Expression (형식, form)	내용 Content (의미, meaning)
단어(Word [and <])	어형변환(Metaplasms)	어의변환(Metasemes)
문장(Sentence [and >])	구성변환(Metataxes)	논리변환(Metalogisms)

[표 4] 메타볼의 유형⁴⁶⁾

(표 4)에 따르면 어형변환과 어의변환은 표현과 내용의 각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어보다 작은 영역(Word[and <])에서도 구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성변환과 논리변환은 마찬가지로 영역을 차지한 채 하나의 문장이 가진 의미보다 더 큰 의미(Sentence[and >])를 가질 수 있다.⁴⁷⁾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and<]와 [and>]” 표식이다. 음소와 음절(단

44) “Categories of the logician can be judged metaphoric. And if they are not metaphoric, it is because they correspond to categories of reality.”

ibid., pp.134~135.

45) *ibid.*, p.137.

46) *ibid.*, p.27.

47) “...we can claim, not without reason, that there are levels other than word and sentence. Hence, we find phonemic figures(alliteration, assonance), syllabic figures(verlen), or figures built on entities considerably larger than the sentence(the novel Ulysses).”

ibid., p.27.

어보다 작은 단위)에서도 의미는 발생될 수 있고, 하나의 문장 전체를 넘어서는 의미(문장보다 더 큰 단위)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언어학이 주장하는 직교적 특질을 벗어나서도 의미가 마치 하나의 씨앗(Kernel)에서 성장해가듯 켜켜이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 개념은 그룹 묶기가 주목하고 있는 수사학, 시학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2) 메타볼 유형의 연산집합 (A Set of Operations)

(1) ‘억압’(Suppression)과 ‘첨가’(Addition) 그리고 경험

그렇다면 전통 언어학에서 벗어나있는 시학과 수사학적 메타볼 유형을 관통하는 단위적 표준상태, 즉 ‘의미의 기본단위’(Subunit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일단 그룹 묶는 메타볼 유형의 언어형태들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연산집합(A Set of The Operations)이라고 명명한다. ‘연산집합’⁴⁸⁾은 언어형태의 변형단위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연산집합은 ‘억압’(Suppression), ‘첨가’(Addition), ‘억압-첨가’ (Suppression-Addition)로 구분되고 이들이 작동하는 범위는 ‘전체(Complete)와 부분(Partial)’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억압’, ‘첨가’는 소위 수학적 단위와도 같은 것으로써 시학적 수사학적 변형을 숫자로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특징적으로 어의변환 영역의 의미영점(Degree-Zero)⁴⁹⁾은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억압’과 ‘첨가’가 줄거나 느는

48)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Operation’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딥러닝 자연어처리에서의 ‘Processing’과 정확히 상응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용어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인식체계와 기계학습 체계의 특징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에서 그리고 시학 수사학의 언어 구조적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는 융합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49) 『일반수사학』에서는 ‘영점’(Degree-Zero)이 자주 언급된다. 본 내용에서의 ‘영점’은 단어의 가장 표준적 의미를 말하면서 반드시 의미의 법전화(Codification)가 필요한

현상을 덧셈과 뺄셈처럼 수학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체에 적용했을 때 그를 묘가 구분한 시학과 수사학의 어법⁵⁰⁾은 다음과 같다.

	A. Metaplasms	B. Metataxes	C. Metasememes	D. Metalogisms
OPERATION	On morphology	On syntax	On semantics	On logic
1. Suppression				
1.1 Partial	어두음탈락(Apharesis), 어미음탈락(Apocope), 어중음탈락(syncope), 어중음음탈락(synaeresis)	모음축합(Crasis)	제귀의 환칭(Synecdoche and antonomasia), 가운뎃말로, 직 R(simile), 본체의 은유(metaphor in praesentia)	괴전법(Juiles 1)
1.2 Complete	삭제(Deletion), 양락(omission)	말줄임(Elipses), 역어법(zeugma), 겹속사상적언(syndeton), 중립구조법(parataxis)	일상성(현물불변, Asema)	돈줄법(Aposopesis), 묵순법(meticumia), 침묵(silence)
2. Addition				
2.1 Simple	어두음첨가(Prosthesis), 관음부호(abasesis), 첨사첨가(allocation), 보강첨가(epenthesis)	삽입어구(Paranthesis), 경음법(gradatio), 앞첨한 보충(epexegesis), 중첨법(enuntesis)	Synecdoche and antonomasia (parim), 영아류(archilexis)	과장법(Hyperbole), 과장법적 침묵(hyperbolic silence)
2.2 Repetitive	반복어법(Reduplicatio), 자음반복어법(Comminatio), 각음(rhyme), 유음첨가(apheresis), 보충언문(Anacronism), 겹어유법(ganomonasia)	앞조반복(Epanone), 앞지른 수사법집(polyyndeton), 뒤돌아침(pleon), 대칭법(symmetry)	Nothing	반복법(Repetilio), 재언법(gleonomasus), 재조반법(anthesis)
3. Suppression-Addition				
3.1 Partial	아이언어(Chilid Language), 갈사지(갈)substitution of affixes), 말장난(Ligun, 디리미, 풍습이되어 불 통한)	관음법(Syilepsis), 과각구조법(anacoluton)	사물리 부재중 은유(Metaphor in absentia)	환각어법(Euphemism)
3.2 Complete	형태적의 미소가 없는 동의어(synonymy without morphological lines), 의고법(archaism), 겹조(Anadiplosim), 커조(kery), 차용(borrowing)	Transfer of order, 교차재열법(chiasmus)	종귀(Metonymy)	알레고리(Allegory), 비귀(parable), 우회(Babel)
3.3 Negative	Nothing	nothing	모순어법(Oxymoron)	반어법(irony), 역설(paradox), 아이언(Anaphora), 괴전법(Juiles 2)
4. Permutation				
4.1 Of any sort	부음전환(Spoanemem), 문자전환(Transposition), 음리전환(metathesis)	문어법(Timesis), 전치법(hyperbaton)	nothing	논리적 도치법(logical inversion), 언어적 도치법(phonological inversion)
4.2 By inversion	회문(Palindrome), 거꾸말하기(backwards talk)	도치법(Inversion)		

[표 5] 일반 메타볼릭 테이블(A General Metabolic Table)⁵¹⁾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메타볼 유형의 모든 수준에서 연산집합(억압과 첨가)이 작동⁵²⁾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어 형태적 중복을 발생시켜 외관상 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어떠한 변화도 용납할 수 없는 정보전달의 속성과는 정확히 대치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언어형태적 손실은 수사학에 이르러 오히려 정보의 가치를 증폭시킨다. 더욱이 이로써 시학적 수사학적 감흥이 교감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언어의 형태적 손실이 유발하는 소위 ‘중복비율’⁵³⁾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자동수정’(Autocorrection of Errors)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 역시 중요해진다. 더욱이

것으로 상정한다. 또한 그레마스의 ‘Isotopy’를 인용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다.
ibid., p.32.

50) *ibid.*, p.30.

51) *ibid.*,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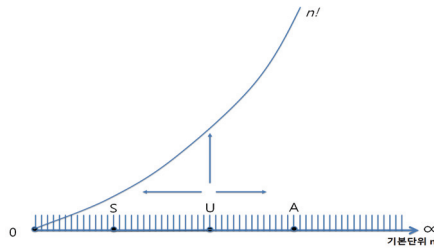
52) 에전대 어두음탈락, 어미음탈락, 어중음탈락 등은 알파벳 하나를 ‘기본 단위’로 한다.

53) 중복비율은 억압과 첨가에 의해 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양의 변화’이다.

이러한 경험적 자동수정은 음소에서도 발견되고 문자소에서도 발견되며, 통사 및 문법에서도 발견된다.⁵⁴⁾ 가령 (표 5)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어두 음탈락’, ‘어두음첨가’ 등은 이러한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어법으로서, 시학적 수사학적 언어에 사용되어 정보증폭, 감흥교감에 적극 활용된다. 그런데 메타볼 유형을 관통하는 이런 연산집합의 억압과 첨가의 변화양태는 자연어처리에서의 원핫인코딩, 워드 임베딩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작동한다.

(2) 수사학적 공간(Rhetorical Space)과 수학적 공식

메타볼 유형을 관통하는 시학적 수사학적 언어의 형태변화는 ‘억압’(S)과 ‘첨가’(A)⁵⁵⁾를 단위로 갖는다. 이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의미 단위의 수학적 접근이 컴퓨팅 과정과 접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5)는 이 단위개념을 토대로 하여 그룹 묶기 수학적으로 검토한 그래프이다.



[그림 5] 억압(S)과 첨가(A)의 수사학의 순열 그래프⁵⁶⁾

(그림 5)에서 ‘U’는 ‘기본단위 n’(n Subunit)⁵⁷⁾만큼의 수에 의해 정해

54) 『일반수사학』에서 음소, 문자소 등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산집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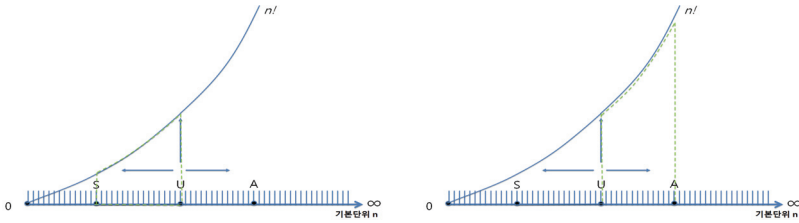
ibid., p.42.

55) ‘중복과 반복’은 대분류로서 억압과 첨가를 함축하지만, 수사학 그래프는 보다 하위 개념으로의 정교한 단위화를 위해서 ‘억압’과 ‘첨가’를 그 단위로 사용한다.

ibid., p.43.

56) *ibid.*, p.43.

진 어떤 기준점, 즉 의미영점(Degree-Zero)⁵⁸⁾이다. 그러므로 U의 위치는 기본단위 n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단위 n’은 정보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언어적 형태(The Non-Verbal Forms)⁵⁹⁾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정수로 명확히 표기할 수 있는 값⁶⁰⁾인 동시에 메타볼 유형의 기본단위를 포괄하는 단위이기도 하다.



[그림 6] S의 면적(점선표시, 좌)과 A의 면적(점선 표시, 우)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n!$ ⁶¹⁾의 분포는 n개의 기본단위가 갖는 경우의 수이면서 (그림 5)의 ‘기울기 값’이기도 하다. 이 기울기는 아래의 ‘직선($0 \sim \infty$)’과 함께 S와 A의 ‘면적’을 각각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57) 여기에서 ‘기본단위 n’은 메타볼을 유형 별로 구분했을 때 변별되었던 기본단위들(‘중복과 반복’, ‘체계화된 편차’, ‘의미영점’, ‘현실범주’) 모두를 아우른다. 왜냐하면 이미 ‘억압’과 ‘첨가’를 시학, 수사학언어의 전체속성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ibid.*, p.43.

58) 여기에서 또 하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프 상의 ‘0’과 그로부터 유추되는 ‘의미영점’인 ‘U’와의 관계이다.

59) 정보에 대한 이런 정의는 흥미롭게도 예술적 표현과 관련이 깊다. 특히 인지주체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정보라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문헌 참조.

Logan, Robert, *What is Information?: Propagating Organization in the Biosphere, Symbolosphere, Technosphere and Econosphere*, Demo Publishing, 2014, pp.171~172.

60) 『일반수사학』에서 ‘n’은 체계적 편차로서, 상수와 변수의 의미를 가진 자연수이기도 하다. 딥러닝 코딩프로그램 상의 문제 역시 이러한 상수(constants)와 변수(variable)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61) 이론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의미의 수는 순열 수 즉 $n! = n (n-1) (n-2) \dots 3.2.1$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수는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예측, 암시에 의한 의미의 갈래 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6 참조) S와 A의 면적을 합하면 자연스럽게 그래프 상의 ‘전체 면적’을 구할 수도 있다. 바로 이 면적이 『일반수사학』에서 말하는 ‘수사학적 공간’(Rhetorical Space)⁶²⁾이다. (그림 6)에서 표시한 ‘수사학적 공간’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분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int_s^A n! \, dn \quad 63)$$

이 적분 값은 수사학적 공간의 함수가 된다. 이로써 『일반수사학』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학, 수사학적 언어는 ‘수학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적분 값은 이론 상, 현재의 딥러닝 자연어 처리과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수사학적 공간은 딥러닝 연산의 핵심 개념인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⁶⁴⁾ 방정식에 대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⁶⁵⁾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딥러닝 자연어처리와 수사학적 언어의 융합가능성은 더욱 명료해진다.

4. 딥러닝 자연어처리 기술과 메타볼 유형

(The Types of Metaboles)과의 접점

기술적으로 딥러닝 자연어처리의 발전은 전통 언어학적 차원에서의

62) Dubois, J., *et. al.*, *op. cit.*,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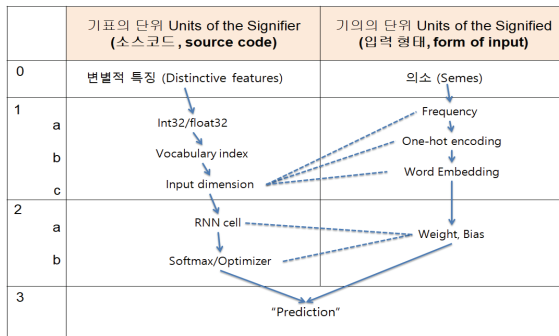
63) 이 적분 값은 U의 형태가 단어 혹은 문장이어도 일관되게 구분한다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본단위(subunit) n’은 U의 의미를 분해할 수 있는 자연수인 동시에 n!의 적분 값으로써 실수를 갖기도 한다. n!의 적분 값은 자연상수 ‘e’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자연수가 나타내는 ‘기본단위 n’에 비해 ‘n!의 적분 값’은 실수 체계로써 일종의 자질 영역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수사학적 공간은 n!에 의해 어떤 ‘자질’을 표시할 수도 있는 셈이다.

64) 선형회귀란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방정식으로 일반수사학에서의 순열 그래프처럼 일차방정식의 성격을 갖는다. 일차방정식의 가중치와 편향치는 앞서 RNN에서 언급한 RNN cell에서 작동하는 가중치와 편향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6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의 ‘4.3) 수사학적 공간과 선형회귀’ 참조.

시학과 수사학의 발전과는 분명 다른 흐름을 갖는다. 자연어 처리는 ‘수’를 통한 ‘논리연산’으로 연역되도록 발전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언어학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1) 분절레벨에 적용한 딥러닝 소스코드



[표 6] 딥러닝 자연어처리와 분절 레벨의 적용

(표 6)은 『일반수사학』의 분절레벨을 딥러닝 소스코드, 즉 RNN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어에 적용하여 변형시킨 것이다. 비교를 위해서 기표의 단위를 소스코드로 상정하고 기의의 단위를 입력형태로 분류하였다. 먼저 레벨 0의 ‘변별적 특징’은 레벨 1의 ‘int32/float32’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같은 API(Application Programm Interfac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숫자체계로서, 모든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32비트의 정수 체계와 32비트의 실수 체계를 의미한다. 이어지는 ‘Vocabulary index’는 실제 입력될 단어에 임의로 할당된 값을 말한다. 이 값은 사실 상 레벨 0의 ‘의소’에 속해 있는 레벨 1의 빈도수(Frequency)와 원핫인코딩 그리고 워드 임베딩을 모두 아우른다. 또한 이들 모두는 딥러닝 신경망에 입력된다. 의소에 포함된 레벨 1의 모든

항목이 ‘input dimension’으로 향하고 있는 점선은 ‘입력’을 의미한다.

한편 ‘의소’에서 비롯되는 레벨 1의 빈도수는 ‘Bag of Words’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수를 사용하여 의미 강도를 측정했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레벨 1의 빈도수는 곧 원핫인코딩에서 워드 임베딩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모두 ‘의소’의 영역에 할당될 만큼 가장 최소의 단위들이기도 하다.

레벨 2는 RNN 신경망을 의미한다. RNN Cell은 RNN의 요소이다. 하지만 이 Cell은 같은 신경망 구조에 속해 있지만 특성이 다른 Softmax와 Optimzier와 다르다.(그림 1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RNN을 RNN Cell들과 Softmax 전부를 통칭하는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셀 안에 가중치(Weight)와 편향 값(Bias)⁶⁶⁾이 자리하고 있는데, RNN 신경망은 이 과정을 거쳐 ‘예측 값’(Prediction)을 계산하게 된다.

2) 메타볼 유형으로 바라본 자연어 처리기술

다음의 (표 7)은 메타볼 유형에 적용해 본 자연어 처리 기술의 분류표이다. (표 7)은 전체적인 자연어처리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OPERATION	A. Metaplasms		B. Metataxes		C. Metasemes		D. Metalogisms				
	Bag of Words	N-gram	Word2vec	GloVe	TF-IDF	LSA	RNN	LSTM	TRANSFORMER	BERT	GPT series
1. Suppression-Addition											
1.1 Count based words	+	+	-	-	+	-	+	+	+	+	+
1.2 Document Similarity	-	-	+	+	-	+	-	-	-	-	-
1.3 Topic Modeling	-	-	+	+	-	+	-	-	-	-	-
2. Permutation											
2.1 Statistical Language model	+	+	+	+	+	+	-	-	-	-	-
2.2 Artificial Neural Network	-	-	-	-	-	-	+	+	+	+	+

[표 7] 메타볼 유형과 자연어처리 기술

66) 가중치와 편향치는 앞서 언급한 선형회귀와 관련된 일차방정식의 변수로서 딥러닝 신경망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선형회귀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본 논문의 ‘각주 68’을 참조할 것.

실제로 『일반수사학』에서 구분해 놓은 어형변환(Metaplasms)과 구성 변환(Metataxes), 어의변환(Metaseemes), 논리변환(Metalogism)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연산집합의 구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해 놓으면 저기에 맞게 자연어처리 기술을 특징별로 분류해 넣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산집합에 놓인 압축과 첨가는 원핫인코딩의 특징과 워드 임베딩의 특징에 이미 ‘부분’과 ‘전체’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카운트 기반 단어’(Count Based Words)와 ‘유사도’(Document Similarity) 그리고 ‘주제모델링’(Topic Modeling)이라는 카테고리 분류했다. ‘수열’(Permutation)의 경우, 자연어처리의 네트워크 망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로 치환하여 각각 ‘통계학적 언어모델’과 ‘인공신경망 모델’로 구분하였다. 이 표는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연어처리 기술과 현재 자연어처리 기술의 변화와 그 양태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3) 수사학적 공간과 선형회귀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자연어처리와 『일반수사학』의 내용을 비교하여 교차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다뤄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교차를 가장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학적 공간’ 그래프와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와의 외관적 유사성은 (그림 7)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유사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방정식⁶⁷⁾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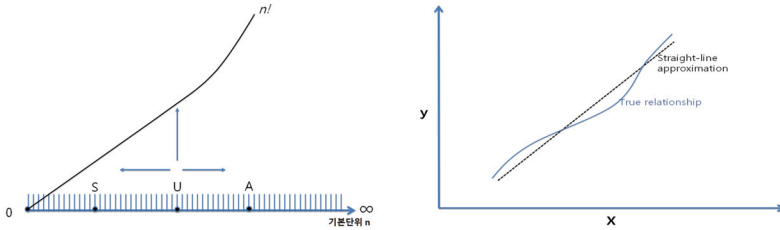
67)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위한 cost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H(x) = Wx + b$$

여기에서 ‘W’는 가중치(Weight)라고 하고 ‘b’는 편향값(bias)이라고 한다. 선형회귀는 이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W와 b의 값을 찾는다. 이 때 W와 b의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이 ‘학습’(train)이다. 이 두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cost}(W, b) = \frac{1}{m} \sum_{i=1}^m (H(x^{(i)}) - y^{(i)})^2$$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수사학의 순열그래프(좌)와 선형회귀 그래프(우)⁶⁸⁾

방정식의 통합가능성은 억압(S)과 침가(A)로 구할 수 있는 면적의 적분 값을 ‘표준 수사학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학적 공간의 표준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i)} = \frac{1}{l} \sum_{w=1}^l \int_{S_w}^{A_w} n! \, dn \quad (S_s \cup sA) \quad 69)$$

이 수식에서 ‘ l ’은 어떤 한 사람이 사용한 각각 다른 시학적 수사학적 단어 혹은 문장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이론 상, 한 개인에서부터 한 집단의 수사학적 표현의 평균분포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선형회귀 공식에 적용할 경우 평균분포와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게도 해준다.

하지만 이 함수는 수학적 개념을 표기하기위한 것이지 실제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tensorflow와 같은 API로 작성한 후 실행시킨다. 다시 말해 위의 함수는 아래와 같은 소스코드로 실행시킬 수 있다.

cost = tf.reduce_mean(tf.square(hypothesis - y_train))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Montgomery, C. Douglas, et.al.,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John Wiley & Sons, 2012, p.252.

68) *ibid.*, p.3.

69) **y = tf.reduce_mean(integral_factorial)**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API(예.,tensorflow 등)의 함수 정의(def)를 통하여 ‘integral_factorial’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때, 팩토리얼 적분 식을 사용)

여기에서 ‘ $y^{(i)}$ ’는 이를 의도하여 선형회귀 공식에 표준 수사학 공간 함수를 대입시키기 위해 부여한 인덱스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 수사학적 공간의 ‘ $y^{(i)}$ ’ 방정식은 선형회귀 공식의 ‘ $y^{(i)}$ ’로 상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점선 원 참조)

$$\textcircled{y^{(i)}} = \frac{1}{t} \sum_{n=1}^t \int_{S_{in}}^{S_{out}} n! \, dn \quad (S \leq U \leq A), \quad \text{cost}(W, b) = \frac{1}{m} \sum_{i=1}^m (H(x^{(i)}) - \textcircled{y^{(i)}})^2$$

이런 방식으로 표준 수사학적 공간 방정식을 선형회귀 방정식에 상속시키면 딥러닝 영역에서 수사학적 공간을 하나의 함수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 관계의 가능성은 ‘수사학’, ‘시학’의 수사학적 공간 방정식이 딥러닝 언어모델 속에서 계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 결론: 응용을 위한 종합

본 논문에서 다룬 아이디어는 시학, 수사학 언어의 수학적 재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두될 수 있는 상용화의 문제는 분명 다른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어를 향한 수학적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던 그룹 류의 이 시도는 딥러닝 기술을 위한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적 태도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써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일반수사학』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현재 자연어처리기술과 비교적 정교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룹 류가 설명하고자 한 ‘수사학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꽤 엄밀한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수사학적 공간’을 딥러닝 모델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논자는 설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수사학적 공간 방정식이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작동하

려면 S와 A 그리고 U를 결정지를 ‘기본단위 n’의 값을 엄밀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이는 소위 ‘데이터’ 라벨링, 소위 데이터 셋(Dataset)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GPT-3의 의미심장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딥러닝 연산능력에 더해, 방대하면서도 정교하게 구축된 데이터 셋이 있기에 가능⁷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일반수사학』에서도 일부 제시⁷¹⁾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에 의한 합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행된다면 세부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만하다. 예를 들면, 하나의 작문 속에 들어있는 수사학적 표현 역량을 시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수사학적 문장이나 설명문 등을 식별 할 수 있는 A.I.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사학적 글쓰기의 기초학습을 위한 표준 지표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어처리를 위한 빅데이터의 전 처리를 효율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BERT나 GPT-3의 어마어마한 자연어 처리능력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막강하다. 하지만 수사학적 공간의 응용 차원에서 보면, 자연어처리 데이터의 자동 분류에서부터 교육적 활용 그리고 문서 아카이브화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은 그런 정교한 차원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룹 뮤가 전해주는 교훈은 바로 융합적 맥락 하에서 발휘될 수 있는 세밀하면서도 정교한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70) GPT-3의 성능은 3천억 개의 토큰데이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데이터셋은 중복데이터 비율을 현저히 낮춘 데이터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언어구축 데이터셋의 규모와 데이터의 정교함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rown, B. Tom, *et. al., op. cit.*, p.9.

71) Dubois, J., *et. al., op. cit.*, pp.109~111.

참고문헌

토도르프, T., 『상징이론』, 이기우 역, 한국문화사, 1995.

Benveniste, E.,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M. Meek, University of Miami Press, 1971.

Ciaburro, Giuseppe, Venkateswaran, Balaji, *Neural Networks with R: Smart models using CNN, RNN, deep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Packt Publishing Ltd, 2017.

Deshpande, Anand, Kumar, Manis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ig Data: Complete guide to automating Big Data solu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Packt Publishing Ltd, 2018.

Douglas, C. Montgomery, et. al.,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John Wiley & Sons, 2012.

Dubois, J., Edeline, F., Klinkenberg, J.-M., Minguet, P., Pire, F., Trignon, H., *a General Rhetoric*, trans. Burrell Paul B., Slotkin Edgar M., The Johns Hopkins Press, 1981.

Hinton, Geoffrey, *Unsupervised Learning: Foundations of Neural Computation A Bradford Book Computational neuroscience*, MIT Press, 1999.

Logan, Robert, *What is Information?: Propagating Organization in the Biosphere, Symbolosphere, Technosphere and Econosphere*, Demo Publishing, 2014.

McTear, Michael, Callejas, Zoraida, Griol, David, *The Conversational Interface: Talking to Smart Devices*, Springer, 2016.

Mitchell, T. M., *Machine Learning*, McGraw-Hill, 1997.

Trott, M. Adriel, *Aristotle on the Nature of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Brown, B. Tom,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2020, Johns Hopkins University, OpenAI, (<https://arxiv.org/abs/2005.14165>)

Cavnar, B. William, and John, M. Trenkle, “N-gram-based text categorization.” Proceedings of SDAIR-94, 3rd annual symposium on document analysis and information retrieval. Vol. 161175. 1994.

Devlin, Jacob, et al.,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2018).

- Leung, H., Haykin, S., “The complex backpropagation algorithm”,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 Volume: 39, Issue: 9, 1991, pp.2102~2104
- Ling, Wang, et al., “Two/too simple adaptations of word2vec for syntax problems.” Proceedings of the 2015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2015.
- Liu, Donghai, Xiaohong, Chen, and Dan, Peng, “Some cosine similarity measures and distance measures between q-rung orthopair fuzzy se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Systems 34.7, 2019, pp.1572~1587.
- Pennington, Jeffrey, Richard, Socher, and Christopher, D. Manning, “Glove: 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Proceedings of the 201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014.
- Prakash, M. Nadkarni, Lucila, Ohno-Machado, Wendy, W. chapm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ume 18, issue 5, 2011, pp.544~551.
- Ramos, Juan,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Vol. 242. 2003.

Convergence Analysis of Deep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and General Rhetoric:
Focusing on Groupe μ 's 『A General Rhetoric』

Chi, Seung-Hak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analyze the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the semantic structure of poetry and rhetorical language on which Groupe μ is focusing and the RNN language model.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was concentrated on the type of ‘metaboles’ that categorizes the functions of poetry and rhetorical language. This type and its insight are considerably useful not only in connection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but also a application field. In particular, the approach for the idea of ‘rhetorical space’ can be substantially an important concept in terms of connection with deep learning technology of NLP. In addition, this approach shows the fact that it is the paramount importance to prepare a precise language data set which has ‘Degree Zero’ and ‘Subunits’ of the linguistic code. Ultimately, through this convergence analysis, we realize that the trans-disciplinary attitude of the humanities and engineering is inevitably important.

Keywords : general rhetoric, rhetorical spac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data set, RNN language model, deep learning, the type of metaboles, Groupe μ , subunits, GPT-3

투고일: 2020. 08. 21./ 심사일: 2020. 09. 08./ 심사완료일: 2020. 09. 09.

프랑수와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의 관점에서 본 사르트르의 『닫힌 방』의 의미론적 구조*

최용호**

【 차 례 】

- I. 텍스트의미론과 해석의 문제
- II. 시간적과 의미구성부
- III. 지옥의 의미론
- IV. 지옥의 변증법
- V. 지옥의 우주론
- VI. 결론

국문초록

텍스트의미론은 텍스트언어학의 여러 이론들 가운데 텍스트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텍스트의미론이 제안하는 해석은 주제적이거나 정신분석학적이거나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것이다. 요컨대 텍스트의미론은 언어학적 읽기를 제안한다. 텍스트의미론에서는 텍스트성을 네 개의 의미구성부, 즉 주제부, 변증부, 변론부, 전략부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언어학적 읽기는 의미구성부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라스티에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이 모든 해석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문학 텍스트분석을 통해 언어학적 읽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다. 이 작품에서 지옥은 사물존재는 본질을 부정당하고 인간존재는 실존을 부정당하는 닫힌 방으로 형상화된다.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yhchoi@hufs.ac.kr

여기서 친화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적대적 기능으로 침투되고 욕망의 순환고리가 중요
의 순환고리와 엉켜 악무한을 형성한다. 이러한 언어학적 읽기는 다양한 해석으로 나
아가는 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조건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열쇠어 : 텍스트의미론, 닫힌 방, 의소분석, 의미그래프, 실존, 본질

I. 텍스트의미론과 해석의 문제

『의미와 텍스트성*Sens et textualité*』(1989)에서 프랑수와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는 2년 전, 그러니까 1987년에 출간된 『해석의미론*Sémantique interprétative*』에서 그가 도출한 해석모델을 네 개의 의미구성부*composantes sémantiques*로 세분하고 이들 각각이 텍스트 분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예증하기 위해 문학작품에 주목한다.¹⁾ 담화분석이나 텍스트문법 혹은 텍스트언어학 등에서 문학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주로 서사적 시퀀스의 특징을 다른 시퀀스들, 예를 들어 기술적(記述的) 시퀀스나 논증적 시퀀스 등과의 대조를 통해 밝혀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²⁾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학작품이라는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텍스트성이다. 문학작품이나 연설문, 신문기사 등을 다룰 때 담화분석이나 텍스트문법이 겨냥하는 것은 이들이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들이 직조되는 방식인 것이다. 문법연구에서

1) 이후 『의미론과 인지연구*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1991), 『분석을 위한 의미론*Sémantique pour l'analyse*』(1994), 『문화과학 입문*Une introduction aux sciences de la culture*』(2002), 『텍스트 예술과 과학*Arts et Sciences du texte*』(2002) 등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텍스트의미론은 한편으로 의미 기술에 자동언어처리의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고자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식론적인 쟁점에 적극 개입하여 인지주의에 맞서 인문주의를 옹호한다.

2) 예를 들어 김휘택은 「이야기와 기술의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2017)에서 기욤 뮈소의 『종이여자』의 한 부분을 발췌하여 서사에서 기술적 시퀀스가 서사적 시퀀스를 보조하는 부수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모든 전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서사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활용어미나 조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연구에서 담화표지 혹은 텍스트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러한 표지들이 텍스트의 직조되는 구조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미하일 바흐진은 한편으로 언어와 다른 한편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말을 구분한다.³⁾ 생생한 말이 생생한 까닭은 그것 안에 “의견”이나 “입장”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그것은 언어와 구분된다.⁴⁾ 담화문법이나 텍스트문법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의견이 담긴 생생한 말이라기 보다는 언어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언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은 텍스트의 문법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의미에, 작품의 해석에, 바흐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텍스트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해석학과의 단절된 전통을 복원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미론은 담화분석, 텍스트문법, 텍스트언어학 등 다양한 텍스트연구 분야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⁵⁾

3) 바흐진에 따르면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말, 즉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체 속에서의 언어이지 구체적인 말들의 몇몇 측면들을 도외시하는 것을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간주할 때 나타나는 언어학의 대상상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다. 언어학이 도외시하는 바로 그 말의 생명이라는 측면들이 우리의 연구목거에 있어서 일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는 엄격한 말의 의미에서 언어학적인 것은 아니다.”(미하일 바흐진 1988: 19) 바흐진의 언어와 말의 구분은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의 구분을 상기시킨다. 다만 바흐진은 소쉬르와 다르게 언어학적 연구대상인 언어 곧 랑그가 아니라 파롤에, 다시 말해 말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진정한 가치란 살아있는 생생한 특성을 말하며 이는 다름 아닌 대화적 특성을 뜻한다.

4) 이와 관련된 바흐진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대화적 관계들은 말의 형상을 가져야 언명들이 될 수 있고, 언명들 간에 대화적인 관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들 속에 표현되어 있는 상이한 인간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미하일 바흐진 1988: 22) “우리는 언어를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범주들의 체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총족된 언어로서, 세계관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의견으로서 보자는 것이다.”(같은 책, 110쪽) “말은 자기 자신 밖에서, 대상으로서의 생기 있는 지향 속에서 산다. 우리가 이러한 지향을 간과할 때, 생명을 잃은 말이 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회적 상황이나 그때그때 말의 운명에 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없다. 밖으로의 말의 지향을 고찰하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 말을 탐구하는 것은 그것이 겨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규정되는 동일한 실제 바깥에서 물리적인 체험을 탐구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다.”(같은 책, 134쪽)

『의미와 텍스트성』에서 라스티에가 문학작품 분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은 문학작품이 가장 복잡한 의미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이다.⁶⁾ 소쉬르의 랑그의 언어학이 기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은 여전히 단어가 언어분석의 모델을 제공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촘스키의 생성 문법이 문장에서 출발한 것은 이와 다르게 문장을 언어분석의 모델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은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이를 모델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구조까지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요컨대 텍스트가 언어분석의 모델로 작용하는 것이다.⁷⁾ 이런 까닭에 문학작품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텍스트에서 하나의 모델을 추출하려고 할 때 가장 복잡한 의미망을 지닌 문학작품을 하나의 본보기로 상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다. 텍스트의미론에서도 텍스트성이 직조되는 방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그것이 무엇보다 텍스트의 의미와, 다시 말해 작품의 해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텍스트성은 텍스트 속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과정 속에서 (재)구축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텍스트의미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의미구성

5) 예를 들어 1998년에 출간한 『해석학: 텍스트, 과학 *Herméneutique : textes, sciences*』에서 라스티에는 ‘디지털 문헌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학적 전통 속에서 언어연구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시도한다.

6) 라스티에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이 책은 문학 텍스트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의거하는 이론은 좀 더 광범위한 타성을 표방할지라도 말이다. 문학 텍스트가 연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외에 이 텍스트의 복잡성이 활용된 기술적 수단들에 엄정한 시험을 가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문학 텍스트를 선택한 것은 편리한 해법이 아닌가? 문학 텍스트의 응집성이 사회학자를 안내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의 예인들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자유 인터뷰보다 말라르메의 소네트를 연구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게다가 수사학, 시학, 나아가 해석학에서조차 우리의 텍스트 연구 전통의 중핵이 문학 텍스트 연구를 통해 형성됐음을 기억해야 한다.”(Rastier 198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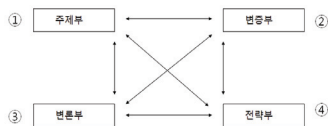
7)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텍스트로 정의한 최초의 언어학자는 엘름슬레우 Hyelmslev라고 할 수 있다. 엘름슬레우는 텍스트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어로 정의한다. 바르트 Barthes, 그레마스 Greimas, 라스티에는 바로 이러한 텍스트 개념에 기초해서 언어 분석의 모델을 세우고자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Badir(2000) 참조.

부, 즉 주제부thématique, 변증부dialectique, 변론부dialogique, 전략부tactique는 예를 들어 샤롤Charolles⁸⁾이 제시한 페리오드période, 연쇄chaîne, 범위portée, 시퀀스séquence 등과 같이 텍스트에 고유한 단위들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활동에 고유한 네 가지 차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네 개의 의미구성부는 이를테면 음소에서 형태소로, 형태소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페리오드나 연쇄 나아가 시퀀스로 통합되는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 자율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⁹⁾ 바로 이런 관계가 텍스트의미론에서 말하는 텍스트성을 규정한다.

텍스트의미론이 산출하는 해석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나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혹은 바슐라르 식의 상상력에 기초한 주제적 해석과는 다른, 우리가 ‘언어학적’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하나의 ‘읽기’다. 라스티에에 따르면 “텍스트의미론은 모든 해석학의 내부에 머물러 있다. 텍스트의미론이 해석의 언어학적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다”¹⁰⁾ 특정한 이론은 그 이론에 적합한 특정한 대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와 다르게 해석의 조건으로서 이른바 ‘언어학적 읽기lecture linguistique’는 특정 텍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달힌 방』을 분석하고자 하는 특

8) 이 문제와 관련해 M. Charolles(1988)과 김휘택(2014) 참조. 이 논문에서 김휘택은 샤롤를 참조해서 전통언어학에서 다루는 단위와 텍스트언어학에서 다루는 단위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 분석한다.

9) 『의미와 텍스트성』 1부 8장 「의미구성부들의 상호작용」에서 라스티에는 의미구성부들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으로 예시한다.



10) 『의미와 텍스트성』에 등장하는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La sémantique textuelle en deça de toute herméneutique. Elle définit les conditions linguistiques de l’interprétation.” (Rastier, 1989: 18)

별한 이유, 다시 말해 텍스트의미론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시도하고자 하는 해석은 철학적이거나 주제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것이다. “해석의 언어학적 조건”으로서 언어학적 읽기는 무엇보다 언어라는 하나의 체계¹¹⁾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함축한다. 즉, 프랑스어 원전을 분석할 때와 한국어 번역본으로 분석할 때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비평 작업의 경우 번역본만으로 작업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우며 해석의 결과는 항상 원전과의 대조를 통해 추후 교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라스티에가 제시한 언어학적 읽기는 이러한 원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해석 방법론이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지영래가 2013년에 옮긴 한국어 번역본이다.¹²⁾ 벤야민이 지적했듯이 번역의 문제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번역의 오류나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아니라 원전의 언어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원전의 정신적 내용이 다른 언어와 만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지점이다.¹³⁾ 텍스트의미론은 번역본을 번역본 그대로 존중하는 해석 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른 비평의 방법론과는 차별화된다. 텍스트의미론의 방법론에 따라 작품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i) 시간격(時間隔)과 의미구성부 ii) 지옥의 의미론 iii) 지옥의 변증법 iv) 지옥의 우주론. 이러한 순서는 주제부에서 시

11) 라스티에는 소쉬르의 체계라는 개념을 엘름슬레우의 도식schéma, 규범norme, 사용usage이라는 삼분법을 참조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언어의 체계는 방언dialecte, 사회어sociolecte, 개인어idiolecte로 삼분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언어학적 읽기’란 바로 이러한 언어의 삼원적 체계에 기초한 읽기를 가리킨다.

12) 원전과 번역본에 대한 텍스트의미론적 분석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은 번역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 혹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은 나중에 미루고 일단 먼저 번역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13) 예를 들어 「번역자의 과제」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는 인용해보자. “번역 가능성이 특정 작품들에는 본질적으로 속한다. 이 말은 그 작품들의 번역이 그 작품들 자체에 본질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작들에 내재하는 어떤 일정한 의미가 그 원작들의 번역 가능성 속에서 표출된다는 것이다.”(벤야민 2008: 124).

작해서 변증부를 거쳐 변론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석 과정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의미구성부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서를 거슬러 분석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텍스트의미론이 작품 해석에 개입하는 방식을 예시하는 데 있다.¹⁴⁾ 텍스트의미론에서 사용되는 도구적 개념들은 앞으로 전개될 작품 해석과 함께 소개될 것이다. 물론 이 개념들을 여러 논쟁적인 맥락으로 끌고 와 별도로 비판하는 이론적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다름 아닌 해석과정 속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개념들이 고안됐으며 따라서 텍스트와의 부딪힘 속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속에서 이러한 비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II. 시간격과 의미구성부

‘시간격^{écart temporel}’(이후 T)은 텍스트의미론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분할단위를 가리킨다. 텍스트의미론에서는 텍스트문법이나 텍스트언어학에서처럼 텍스트표지라는 ‘형태’에서 출발하기보다 ‘내용’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의 단위들을 분할한다.¹⁵⁾ 형태와 다르게 내용의 관점은 텍스트

14) 『의미와 텍스트성』에서 라스티에가 분석한 문학작품은 조델Jodelle의 “Lune, Diane, Hécate”, 줄라Jola의 *Assommoir*, 모파상Maupassant의 *Toine*, 말라르메Mallarmé의 “Salut”, 아폴리네르Apollinaire의 “Zone” 등 시와 소설이다. 소설은 일부 발췌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시는 작품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희곡을 선정한 배경 중의 하나는 라스티에의 분석 사례 중에 희곡 작품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15) 의미론의 연구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언어가 형태와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형태에서 출발해서 의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노선의 연구를 ‘sémasiologie(어의론)’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휘론lexicologie이나 사전학lexicographie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노선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형태에 이르는 방식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onomasiologie(개념론)’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용어론terminologi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담화분석, 텍스트문법, 텍스트언어학은 담화 표지나 텍스트 표지에 착목하고 이들이 텍스트성을 구성하

에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활동에 내재적이다. 따라서 해석의 지향점에 따라 시간격도 얼마든지 다르게 (재)배치될 수 있다. 『달힌 방』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7개의 시간격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이후 『달힌 방』의 인용문들은 본문에서 쪽수 표시만을 제시한다)

① T1(1장~4장): 입실

T1에서는 급사의 안내로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 등 세 명의 망자 혹은 “부재자”(p.28)가 명부에 들어서는 입실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지옥은 이들의 상상과는 다르게 옥(獄)이 아닌 실(室)의 모양을 하고 있다. 가르생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의외라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생겼군요.”(p.11)

② T2(5장 26쪽~36쪽): 질문

T2의 중핵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방에 모인 망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우리들을 같이 모아 댔을까요?”(p.30) 이들은 곧바로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바로 우리들 각자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인인 거죠.”(p.36) 이후에 펼쳐질 내용은 이 대답의 의미를 깨닫는 긴 과정과 다름 아니다.

③ T3(5장 36쪽~38쪽): 침묵의 계약

T3의 핵심 내용은 계약의 체결이다. 가르생은 한 방에서 모두가 잘 지낼 수 있기 위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침묵의 계약을 제안한다. “그러고는 침묵하는 겁니다.”(p.36) 모두 이 계약에 동의한다.

④ T4(5장 38쪽~46쪽): 계약의 파기

T4에서는 계약의 파기 과정이 그려진다. 에스텔은 거울이 없는 방에서 이네스의 도움으로 화장을 한다. 이네스는 에스텔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를 태우지만 에스텔은 가르생 쪽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저 사람

는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sémasiologie’의 연구 노선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은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해석학의 공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onomasiologie’의 입장으로 선회한다. 하지만 해석과정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서 시작해서 내용으로, 그리고 다시 내용에서 시작해서 형태로 전개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노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론적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노선의 차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도 날 쳐다보면 좋겠어.”(p.43). 이네스, 에스텔, 가르생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곧 침묵의 계약은 깨진다.

⑤ T5(5장 46쪽~55쪽): 새로운 계약

T5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계약의 제안과 수용이다. 침묵의 계약은 깨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다. 각자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고백하자는 것이다. “자 여기 왜 왔지?”(p.46) 세 명의 망자는 돌아가며 이승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⑥ T6(5장 55쪽~74쪽): 구원의 (불)가능성

T6은 구원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p.55)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 삼각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구원의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진다.

⑦ T7(5장 74쪽~83쪽): 지옥의 의미

T7에서는 지옥의 실체가 드러난다. 가르생은 이네스를 욕망하고 이네스는 에스텔을 욕망하고 에스텔은 가르생을 욕망한다. 이와 더불어 가르생은 에스텔을 증오하고 에스텔은 이네스를 증오하고 이네스는 가르생을 증오한다. 이처럼 욕망의 사슬이 증오의 사슬과 뒤엉키면서 지옥의 실체가 드러난다. 가르생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p.82)

텍스트의미론에서 작품 해석은 앞서 지적했듯이 네 개의 의미구성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¹⁶⁾ 주제부, 변증부, 변론부, 전략부가 그것이다. 주제부는 텍스트의 주제를 다루는 의미구성부다. 텍스트의미론에서 말하는 주제는 원형적이거나 정치사회적이거나 정신분석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제는 ‘의소sème’로 표현된다. 의소는 최소의미단위로 대립적 관계에 놓인 내용적 요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왜/는 /불왜/와 대립적 관계에 놓인 최소의미단위로 의소에 해당한다. 구조의미론에서 사용하는 의소분석의 방법론을 텍스트에 적용한 것이 주제부 분석이다. 전형적으로 ‘지옥’이 /불왜/의 장소라면 『달힌 방』

16) 라스티에의 텍스트의미론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최용호(2004, 2006) 참조.

의 ‘방’은 앞으로 주제부 분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쾌/도 /불쾌/도 아닌 모호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변증부는 사건을 다루는 의미구성부다. 모든 텍스트가 주제부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텍스트가 변증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언어학에서 ‘서사적 시퀀스séquence narrative’라고 부르고, 기호학에서 ‘서사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이라고 부르며, 서사학에서 ‘담화discours’와 구별하기 위해 ‘스토리histoire’라고 명명한 층위가 다른 아닌 변증부에 상응한다. 텍스트의미론에서 사건은 행위자 *acteur*, 역할*rôle*, 기능*fonction* 등으로 구성되며 의미그래프*graphe sémantique*로 표상된다. 의미그래프는 능력, 대격, 속격, 처소격, 도구격 등 격 관계에 기초해 작성된다. 서사학이나 기호학에서 다루어지는 사건과 다르게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이처럼 격 관계로 사건의 구조를 기술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언어학적 성격이 유지된다. 예컨대 의미그래프는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도식과는 인식론적 지위가 다르다. 개념도식이 심리학적이려면 의미그래프는 언어학적이다. 변론부는 텍스트 차원에서 명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의미구성부다. 행위자는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발화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텍스트 차원의 명제분석은 행위자의 믿음, 다시 말해 행위자의 우주*univers*와 세계*monde*에 대한 분석으로 전개된다. 각각의 행위자는 믿음 세계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들의 집합이 곧 우주인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며 우주는 실재세계 *monde factuel*, 반(反)실재세계*monde contre-factuel*, 가능세계*monde possible* 등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명제의 진리 값은 가르생의 우주를 구성하는 세계들, 다시 말해 실재세계, 반실재세계, 가능세계에서 각기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네스의 우주와 에스텔의 우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략부는 상술한 의미구성부들의 텍스트 상에서의 선적 배치를 다루는 의미구성부다. 주제부 전략은 시간격에 따라 주제가 전개되는 고유한 ‘리듬*rythme thématique*’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격에 따른 고유한 ‘변증적 리듬rythme dialectique’과 ‘변론적 리듬rythme dialogique’이 존재하며 이들을 기술하는 것이 전략부의 역할인 것이다. 『의미와 텍스트성』에서 라스티에가 꼼꼼하게 전략부 분석을 전개한 것은 주로 시 텍스트에 한정된다. 희곡이나 소설과 같이 규모가 큰 텍스트의 경우에도 분석 층위에 따라 얼마든지 세밀한 전략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변증부의 전략, 다시 말해 변증적 리듬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략부 분석을 대신하고자 한다.

Ⅲ. 지옥의 의미론

『달힌 방』의 주제부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한편으로 ‘지옥’과 다른 한편으로 망자 곧 ‘부재자’¹⁷⁾다. 이 두 주제는 가르생의 유명한 대사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p.82)에서 착안한 것이다. 사실 ‘지옥’이라는 주제에 이미 ‘부재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부재자’를 별도로 다루고자 한 것은 4장 이후 ‘지옥’에 대한 기술보다는 ‘부재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옥’과 ‘부재자’라는 두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달힌 방』에 숨겨진 지옥의 의미론적 구조가 드러날 것이다.

1. 지옥

지옥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후의 장에서는 지옥에 대한 묘사보다는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1장에서 4장까지 예를 들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묘사된 그야말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지옥에 대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

17) 가르생이 자신을 사망자로 소개하자 에스텔은 이 용어 대신에 부재자라는 새로운 용어 사용을 제안한다. “꼭 이런 상태에다가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면, 우리를 부재자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당신은 부재하신 지 오래됐나요?” (p.28)

른 『달힌 방』의 고유한 지옥도가 펼쳐진다. 따라서 시간적 T1을 중심으로 주제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에 앞서 몇몇 기술적(技術的)인 용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텍스트의미론에서 의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¹⁸⁾ 하나는 ‘유적 의소sème générique’이고 다른 하나는 ‘종차의소sème spécifique’이다. 이 두 의소는 의미소sémème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의미소는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된 기호의 내용면만을 지칭하는 의미론적 단위다. 예를 들어 형태소가 형태와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만을 따로 떼어낸 것이 바로 의미소인 것이다.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의미소를 한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컨대 ‘쇠꼬챙이’, ‘석쇠’, ‘가죽갈때기’ 등은 표현과 내용을 모두 지닌 기호들이 아니라 기호의 내용면만을 가리키는 의미소들인 것이다. 유적 의소는 이러한 의미소들 간의 공통점을 표시하는 의미론적 단위로서 이중 슬래시로 표기된다. 이를테면 이들은 모두 지옥에서 사용되는 //고문도구//에 해당한다. 종차의소는 이들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의미론적 단위며 슬래시로 표기된다. ‘쇠꼬챙이’와 ‘가죽갈때기’의 차이는 예를 들어 /광물성/과 /동물성/이라는 두 종차의소의 대립으로 기술될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의소들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정 작업이 텍스트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석 작업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실천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석 결과로부터 경제적인 해석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요컨대 텍스트의미론에서 의미론적 기술은 텍스트적이고 실천적이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주제부 분석은 먼저 유적 의소를 정하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유적 의

18) 텍스트의미론에서 의소는 크게 네 가지로 세분된다. 한편으로 유적의소와 종차의소의 구분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적의소sème inhérent와 외적의소sème afférent의 구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Rastier(1987)과 최용호(2004, 2006) 참조.

소가 정해지면 이 의소에 속한 의미소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이어서 의미소들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종차의속 분석이 뒤따른다. 『단한 방』에서 지옥의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소들’과 이들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유적 의소//의 목록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⁹⁾

//고문도구//: { ‘쇠꼬챙이’, ‘석쇠’, ‘가죽갈때기’}

//고문기술자//: { ‘사형집행인’}

//망자//: {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

//문지기//: { ‘집사’}

//가구//: { ‘장의자’, ‘침대’, ‘창문’, ‘거울’}

//세면도구//: { ‘칫솔’}

//전기제품//: { ‘초인종’, ‘전등’}

//장식품//: { ‘청동상’, ‘벽난로’}

//문방구//: { ‘종이칼’, ‘책’}

물론 위의 목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의 목록에서 ‘꿈’이라는 의미소는 빠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해석의 경제성을 위해 분석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단한 방』에서 묘사된 지옥, 다시 말해 단한 방에는 위의 의미소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은 존재하고 어떤 것은 부재한다. “쇠꼬챙이들은 어디 있어요?”(p.13)라고 묻는 가르생의 질문에 급사는 의아한 듯 “뭐요?”라고 반문한다. ‘쇠꼬챙이’가 없다는 사실에 가르생은 안도하지만 ‘칫솔’도 없다는 사실에는 발끈한다. “그런데 내 칫솔은 왜 빼앗은 거요?”(p.13) 다시 말해 위에서 제

19) 유적 의소는 다시 분류소taxème, 영역domaine, 차원dimension으로 세분된다. 분류소는 의미소들의 최소 집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세면도구//는 ‘비누’, ‘칫솔’, 치약 ‘등을 포함하는 분류소다. 영역은 분류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위생//은 //세면도구//를 분류소로 포함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차원은 가장 광범위한 범주로 //동물성//과 //식물성//, //인간//과 //기계// 등이 이에 속한다. 위에서 제시한 유적 의소는 //지옥//이라는 영역에 포함된 //분류소//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용호(2004) 참조.

시한 유적 의소들의 목록은 다시 //부재absence//와 //현존présence//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 속한 두 유적 의소들로 재배치될 수 있다.

1) //부재//의 목록

닫힌 방에는 //고문도구//에 해당하는 모든 의미소들이 부재한다. ‘사형 집행인’도 없다. 고문도구와 사형집행인 등은 모두 /육체적/인 고통, 즉 /불쾌/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이들의 부재는 지옥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칫솔’은 /위생/용품으로 /쾌/의 감정과 관련된다. ‘침대’나 ‘거울’, ‘창문’, ‘책’ 등도 /쾌/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칫솔은 없군요. 침대도 물론 없고. 왜냐하면 자는 일도 없을 테니까, 당연히?”(p.14) 가르생의 질문에 급사는 간단히 대답한다. “그럼요”(p.14) 다시 말해 지옥은 /불쾌/의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쾌/의 공간도 아닌 것이다. 지옥은 ‘거울’로 자기를 살피거나 ‘꿈’이나 ‘책’ 속으로, 다시 말해 자기만의 /개별적/인 사적 공간으로 도피할 수도 없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이다. 요컨대 닫힌 방은 내부적이지만 결코 사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은 모호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부재//에 속한 의미소들에 대한 종차의소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재//의 종차의소 분석

	/쾌/	/불쾌/	/개별적/	/위생적/	/육체적/	/외부적/
//고문도구//		+			+	
‘사형집행인’		+			+	
‘칫솔’	+			+	+	
‘침대’	(+)		+		+	
‘거울’	(+)		+	(+)	+	
‘창문’	(+)					+
‘책’	(+)		(+)			(+)

위의 목록에서 알 수 있는 듯이 『담힌 방』에서 지옥은 /육체적/인 /쾌/와 /불쾌/가 모두 부재하는 공간이다. 이는 지옥이 의외로 육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임을 암시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고통은 심리적인 것이다. ‘부재자들’은 비록 방이지만 이곳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외부/와도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또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할 수도 없다. 이는 『담힌 방』이 묘사하는 지옥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자기soi의 존재 양식과 깊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다.

2) //현존//의 목록

지옥은 하나의 ‘방’으로 존재한다. 담힌 방은 /폐쇄적/²⁰⁾이고 /투명/²¹⁾하다. 이 방에는 ‘부재자’, ‘장의자’, ‘청동상’, ‘벽난로’, ‘초인종’, ‘종이칼’, ‘전등’, ‘문’ 등이 존재한다. 방이 있는 건물에 ‘급사’도 살고 있다. 이 방에 ‘장의자’가 있어 물론 다행이기는 하지만 결코 ‘침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²²⁾ 다시 말해 ‘장의자’는 /불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락함이 초래하는 /쾌/의 감정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청동상’²³⁾과 ‘벽난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비(非)쾌/라는 모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초인종’이 있기는 하지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급사의 말에 따르면 “기계 장치 속 뭔가가 잘 작동을 안 해요.”(p.18) ‘전등’은 켜있지만 하지 꺼지지 않는다. ‘문’도 있지만 열리지 않고 ‘종이칼’도 있

20) 예를 들어 『담힌 방』 2장에서는 방의 폐쇄성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자 문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p.19)

21) 전기를 차단할 수 없다는 급사의 말에 가르생은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똥 눈으로. 영원히. 내 눈 속은 항상 대낮이겠군. 내 머릿속도.”(p.17)

22) 가르생은 다음과 같이 생각에 잠긴다. “소파에 드러누우면 바로 획 답이 달아나는데.”(p.15) 그리고는 다음과 반문한다. “그런데 그게 왜 고통스럽지? 왜 그게 꼭 고통스럽다는 것지? 알겠다, 그러니까 단절 없는 생활이라는 거군요.” ‘장의자’의 /비쾌/라는 의미자질은 이러한 문맥을 통해 결정된다.

23) 가르생은 방에 제2제정풍의 청동상을 보고 급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그럼 나눈요? 난 이것들 가지고 뭘하라는 겁니까?”(p.12)

지만 벨 ‘책’이 없다. 요컨대 이들은 기능적으로,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모두 /무용한/ 것들이다. 가르생은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그럼 이걸 어디에 씀니까?”(p.19) 사물들이 이처럼 용도를 결여하고 있다면 급사나 망자 등 사람들은 아무런 연유도 없이 이곳에 모인 것처럼 보인다. 에스텔은 묻는다. “아니 왜, 왜 우리들을 같이 모아 났을까요?”(p.30) 급사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 이들의 공존의 이유는 모두 /무연적/이다. //현존//의 종차의소 분석은 다음과 같다.

//현존//의 종차의소 분석

	/비쾌/	/무연성/	/무용성/	/폐쇄성/	/투명성/
‘방’	+	+	+	+	+
‘부재자’		+			
‘급사’		+			
‘장의자’	+		+		
‘청동상’	+		+		
‘벽난로’	+		+		
‘초인종’			+		
‘전등’	+		(+)		+
‘종이칼’			+		
‘문’			+	(+)	

『닫힌 방』에서 지옥은 //현존//의 관점에서는 /투명/하며 /무연적/이고 /무용/하며 /폐쇄적/인 공간으로 나타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재//의 관점에서는 /비위생적/이고 /비개인적/이며 /비육체적/이고 /비외부적/인, 그리고 /비쾌/와 /비불쾌/의 감정이 교차하는 모호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는 /육체적/이고 /폐쇄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적 지옥과 『닫힌 방』의 지옥이 공유하는 의소는 오직 /폐쇄성/뿐이다. 닫힌 방에서 느껴지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모호한 분위기는 위의 의소들이 빚어낸 효과와 다름 아니다.

지영래에 따르면 “달힌 방은 사르트르 철학의 연극적 표현이다.”²⁴⁾ 주지하다시피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은 본질과 실존, 사물존재와 인간존재의 구분에 토대를 두고 있다.²⁵⁾ 본질은 사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고 실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실존의 이러한 미결정성은 사후 결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결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무한한 책임의 윤리가 비롯된다.²⁶⁾ 왜냐하면 자유로운 자만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사물은 본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이를테면 문은 열려야 하고 초인종은 울려야 하며 종이칼은 뿔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불은 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달힌 방』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달힌 방』의 사물존재들은 본질을 상실한 채 청동상처럼 그냥 저기에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사물과 다르게 인간존재는 의식적 존재로서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달힌 방』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하다. 저승은 이승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승인 것이다. 저승에서 망자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변경하기 위해 이승에 개입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다르게 말해 이들의 실존은 고착되어 있다. 요

24) 『달힌 방』 「작품해설」 p.339.

25) 「작품해설」에서 지영래는 지영래는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실존철학은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핵심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에 잘 드러난다. 사전에서 ‘본질’이라는 말은 ‘실존’이라는 말과 대비되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으로 정의된다.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사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본질’이 그것의 ‘실체 존재함’보다 선행하겠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반대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가구점에 진열된 의자를 예로 들자면, 그 의자는 본질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용도에 맞게 미리 재질, 모양, 크기, 색상, 비용 등을 모두 정한 뒤에 제작되고, 그 후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엔 자신이 살아 보기도 전에 미리 정해진 본질 같은 게 있을 수 없다.”(pp.339-340)

26) 「작품해설」에 등장하는 지영래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모든 것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홀로 그 선택의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하는 것이다.”(p.340)

컨대 사물존재는 본질을 부정당하고 인간존재는 실존을 부정당하는 곳이 지옥 곧 ‘닫힌 방’인 것이다.

2. 부재자의 의미론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은 망자 곧 부재자들이다. 역설적으로 부재자가 현존하는 곳이 닫힌 방이다. 텍스트의미론적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행위자들이다. 행위자는 ‘의소분자molécule sémique’와 ‘역할’이 투자된 의미론적 단위다. 텍스트의미론에서 의소분자는 종차의소들의 묶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로 인물의 성격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역할은 사건에서 행위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격 관계로 표상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변증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²⁷⁾ 여기서는 T2에서 T7까지 세 행위자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가르생의 의소분자

가르생은 남성이다. 이네스가 동성애자로 에스텔을 원하는 반면 에스텔은 이성애자로 가르생을 원한다. /남성/이라는 의소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활성화된다. 이승에서 가르생은 낮에는 군 복무를 하고 밤에는 반전운동 신문을 주간했다. 그는 /감성적/이라기보다 /지성적/이다.²⁸⁾ 그는 결혼했으나 아내를 배반했다. 신문사에서는 동료들을 배반하고 도주하려고 시도했다. 한 마디로 그는 /배반자/다. 배반자가 그의 변증적 역할인 것이다. 닫힌 방에서 그는 이러한 그의 삶의 결과를 수정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미 배반자로서의 낙인이 찍혀있다. 말하자면 그의 실존이 이미

27) 의소분자는 행위자의 성격과 역할을 의소들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주제부와 변증부는 상호 교차한다. 라스티에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네 개의 의미구성부는 이처럼 상호작용하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28) 가르생의 /지성적/이라는 의소는 단순히 그가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텔의 감각적 태도와 대립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이러한 의소를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외래의소sème afférent’이라고 부른다.

결정된 것이다. “가르생은 비겁한 놈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 내린 결정이야. 그들, 내 친구들이 말이야.”(p.70)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야, 가르생, 비겁자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하니까.”(p.79) 한편, 가르생은 욕망, 즉 /결핍/의 존재다. 배반자로 낙인찍힌 그에게 결핍은 타인의 신뢰 곧 믿음이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욕구한다. “네가 날 믿어줄까?”(p.67) 상술한 가르생의 의소분자는 다음과 같다. /배반자/+남성/+지성적/+결핍(믿음)/

2) 이네스의 의소분자

이네스는 /여성/이고 /동성애/자다. 이승에서 그녀는 자기 사촌의 아내인 플로랑스를 유혹한다. 그녀는 플로랑스로 하여금 자기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 다시 말해 그녀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한다. 말하자면 이네스의 변증적 역할은 /조종자/인 것이다. 『달힌 방』에서 그녀가 에스텔을 욕망하는 것은 에스텔을 조종하여 그녀의 눈으로 에스텔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조종자/는 /감성적/이라기보다 /지성적/이다. 이러한 이네스도 /결핍/의 존재다. 그녀에게 결핍된 것은 연인이고 이 연인은 /동성/이어야 한다. “에스텔! 나의 소중한 샘플, 나의 수정.”(p.63) 이네스의 의소분자는 다음과 같다. /조종자/+여성/+동성애/+지성적/+결핍(연인)/.

3) 에스텔의 의소분자

에스텔은 /여성/이고 /이성애/자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연인 앞에서 호숫가에 던져 살해 한다. 그녀의 변증적 역할은 /살해자/다. 그녀는 또한 /결핍/의 존재다. 그녀에게 결핍된 것은 연인이고 이 연인은 /이성/이어야 한다. 그녀가 가르생을 욕망하는 것은 그가 /남성/이고 남성만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 마세요! 당신도 남자예요? 날 좀 쳐다보라고요, 눈 돌리지 말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p.62) 가르생과 이네스가 /지성적/인 것에 비해 그녀는 /감각적/이다. 에스텔의

의소분자는 다음과 같다. /살해자/+/여성/+/이성애/+/감각적/+/결핍(연인)/.

상술한 세 행위자들의 의소분석을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행위자의 의소분자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
/남성/	+		
/여성/		+	+
/감각/			+
/지성/	+	+	
/이성애/	+		+
/동성애/		+	
/결핍/	+(믿음)	+(연인)	+(연인)
/배반자/	+		
/조종자/		+	
/살해자/			+

위의 표에서 제시한 행위자들의 의소분자와 변증적 역할은 왜 이들이 방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갇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결핍/의 존재들이다. /동성애자/인 이네스는 에스텔을 욕망하지만 /이성애자/인 에스텔은 가르생을 욕망한다. 이네스와 에스텔 모두 결핍의 대상은 연인이지만 이네스가 욕망하는 연인은 /동성/이어야 하고 에스텔이 욕망하는 연인은 /이성/이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이 두 연인의 비극이 시작된다. 가르생의 결핍은 연인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지성/이다. 가르생이 에스텔을 육체적으로는 원한지만 그녀가 결코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의 구원자는 /지성적/인 이네스여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그녀는 가르생을 끝까지 거부한다. 이처럼 결핍의 존재로서 이들은 부단히 욕망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

위의 도표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승에서 이미 결정된 이들의 자질들이 모종의 본질로서 저승에서도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승에서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실존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V. 지옥의 변증법

주제부에서 의소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변증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텍스트의미론에서 사건은 행위자와 역할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기능이 추가된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하나는 친화적인*irénique*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인*polémique* 것이다. 문화인류학의 성과에 기대 도입된 이 두 기능은 사건 층위를 거시적으로 조감하는 분석도구로 활용된다. 행위자와 역할은 의미그래프로 표상된다. 의미그래프는 의미소나 의소로 구성되는 ‘결절noeud’과 격으로 표시되는 ‘관계lien’로 이루어져 있다. 행위자는 결절로 표기되고 역할은 격 관계로 표기된다. 텍스트의미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격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능력, 대격, 목적격, 결과격, 속격, 처소격, 도구격이 그것이다. 이는 폴 리코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야기의 ‘전형상화*préfiguration*’²⁹⁾에 해당하는 과정, 즉 어느(속격) 누가(능력) 무엇을(대격) 어떤 목적으로(목적격) 어디서(처소격) 어떤 방식으로(도구격) 행했으며 그 결과(결과격)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격이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와 계약하다.”에서 ‘~와’는 동반격으로 표현된다. 의미그래프에서 결절은 꺾 괄호로, 관계는 원 괄호로, 이 둘의 관계는 화살표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힌 방’의 속성이 /폐쇄적/이라고 할 때 의미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달힌 방’] -> (속격) -> [/폐쇄적/]. 이 그래프는 “달힌 방의 속성(=속격)은 폐쇄적이다.”라고 읽는다. “가르생은 아내를 배반한다.”라는 문장의 의미

29) Ricoeur(1983) 참조.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가르생’] <-(능격) <- [‘배반하다’] -> (대격) -> [‘아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즉, ‘배반하다’라는 행위의 ‘주체(=능격)’는 ‘가르생’이고 ‘대상(=대격)’은 ‘아내’다.

이러한 의미그래프는 내용의 관점에서 텍스트로부터 사건을 추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서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쌍 중의 하나는 주지하다 시피 담화와 스토리다. 서사분석은 담화에서 스토리를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의미그래프가 수행한다. 의미그래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격 관계에 기초한 의미그래프는 사건의 언어학적 구조를 드러낸다. 둘째, 의미그래프는 텍스트의미론에서 형태의 관점이 아니라 내용의 관점에 따라 구축되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 층위뿐만 아니라 텍스트 층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을 추상화하는 작업은 여러 단계들을 거쳐 전개된다.³⁰⁾ 이 작업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자의적인 요소들은 텍스트와의 마주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셋째, 의미그래프는 이질적인 사건들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서로 비교 가능한 것들로 재가공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달힌 방』에서 사건은 크게 세 세계 속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저승 곧 달힌 방이다. 이곳에서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 함께 머물러 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저승에 오기 전에 살았던 이승, 즉 과거의 이승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들이 달힌 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재의 이승이다. 과거의 이승은 이들 각자가 번갈아 가며 고백하는 삶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현재의 이승은 이들 각자가 목도하고 전달하는 증언 혹은 방백 속에 등장한다. 이 세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의미그래프로 표상

30) 라스티에는 크게 세 가지 층위를 구분한다. 사건적 층위, 투기적 층위, 원형변증적 층위가 그것이다. 사건적 층위에서는 행위자와 역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투기적 층위에서는 투자와 시퀀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원형변증적 층위에서는 원형 주제적 층위에 의해 정의되는 가치 공간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Rastier 1989: 7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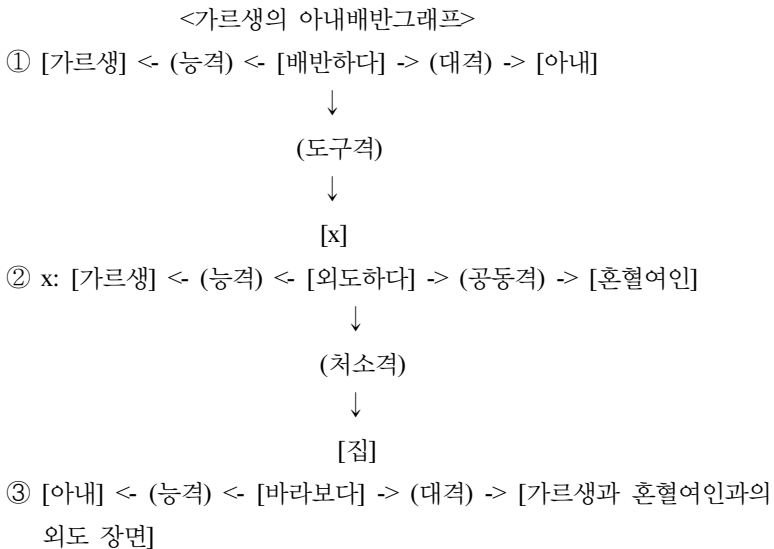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의미론적 구조, 다시 말해 지옥의 변증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이승

과거의 이승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르생의 과거 이승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르생은 배반자다. 그는 아내를 배반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혼혈여인과 동거했던 것이다. 아내는 동거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요컨대 가르생의 변증적³¹⁾ 역할은 배반자다. 이를 의미그래프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31) 텍스트의미론에서 ‘변증적’이라는 표현은 ‘사건적’이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배반의 주체는 가르생이고 배반의 대상은 아내이며 배반의 방식은 x이다. 방식 x는 다음과 같다. 외도의 주체는 가르생이고 외도의 동반자는 혼혈여인이며 외도의 장소는 집이다. 시선의 주체는 아내이고 시선의 대상은 가르생과 혼혈여인의 동거 장면이다” 가르생은 아내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선이다. “나를 잡아먹는 이 모든 시선들을.”(p.82) 그는 이처럼 아내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문사 동료들을 배반했다. 그는 군 복무하면서 저녁에 반전운동 신문을 발간하다가 탈영하여 도주하던 도중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던 것이다.

<가르생의 동료배반그래프>

④ [가르생] <- (능력) <- [배반하다] -> (대격) -> [동료들]



(도구격)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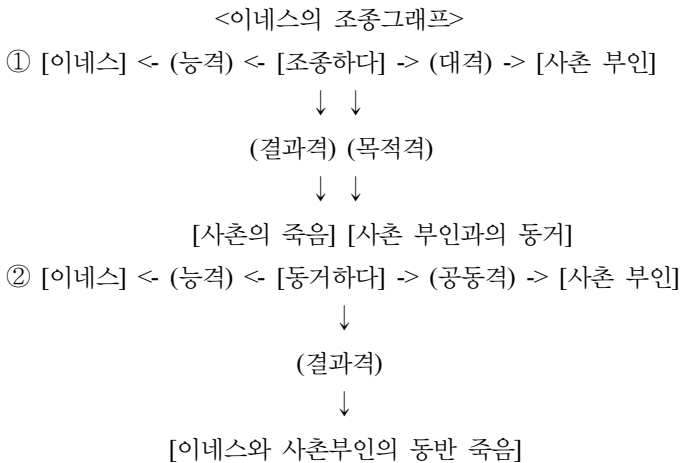
⑤ x: [가르생] <- (능력) <- [탈영하다] -> (결과격) -> [사형]

아내배반그래프(①, ②, ③)와 동료배반그래프(④, ⑤)는 상동적이다. ‘외도’와 ‘탈영’은 동일한 움직임, 다시 말해 배반의 계열에 속한 움직임으로 전개된다. 아내배반그래프에서 아내의 시선에 상응하는 부분이 동료배반그래프에는 빠져 있지만 이러한 부재는 가르생의 현재의 이승에서 보충된다.

2) 이네스의 과거 이승

앞서 지적했듯이 이네스는 조종자다. 그는 자신의 사춘 부인을 조종해서 사춘을 배반하도록 유도한다. 조종의 목적은 사춘부인 플로랑스와 동거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사춘은 사고로 죽게 된다. 이네스는 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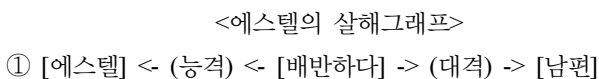
랑스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지만 플로랑스가 이네스 몰래 가스 밸브를 열어 결국 둘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이를 의미그래프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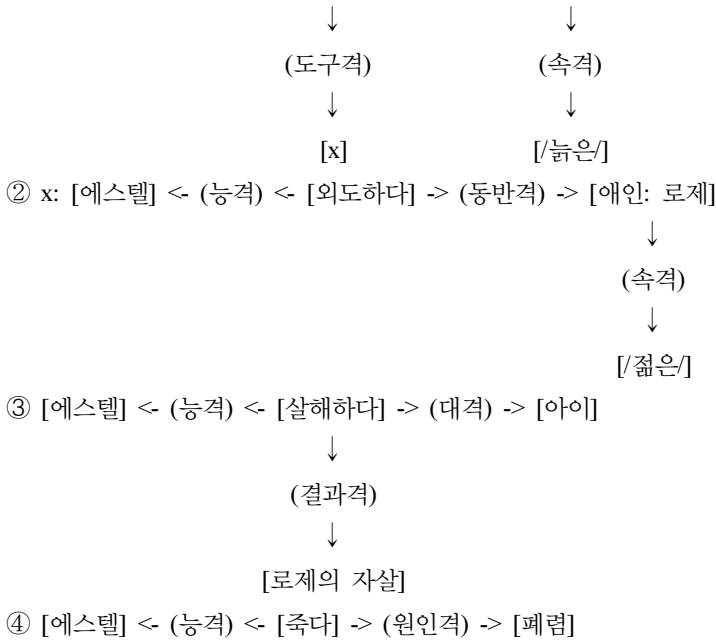


이네스는 과거 이승에서 조종에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역할을 저승에서도 반복하지만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3) 에스텔의 과거 이승

에스텔은 살인자다. 그녀는 나이 든 남편 몰래 젊은 애인을 만나 바람을 피우다가 애인의 아이를 갖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호수에 던져 살해한다. 이를 목격한 그의 애인은 권총으로 자살한다. 그 뒤 그녀는 폐렴으로 사망한다.





에스텔의 의미그래프에서 핵심은 배반이 아니라 살해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젊은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그녀의 애인은 그녀가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단순히 배반자가 아니라 살해자인 것이다.

2. 현재의 이승

저승에서 세 명의 망자들은 자신들과 관련하여 이승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목도한다. 이들은 이에 개입하여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승과의 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경험을 한다.

1) 가르생의 현재 이승

가르생은 아내가 자신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병영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저승에서 바라본다. 이후 그는 아내가 그가 사형 당할 때 입던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내는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무표정하다. 아내의 모호한 시선에 무심했던 그는 동료들의 평가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가르생은 비겁한 놈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 내린 결정이야. 그들, 내 친구들이 말이야.”(p.70) 이를 계기로 그와 이승과의 인연의 사슬이 완전히 끊긴다. 앞서 살펴본 가르생의 동료 배반그래프를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가르생의 절연그래프>

⑥ [동료] <- (능력) <- [판단하다] -> (대격) -> [x]



(결과격)



[y]

⑦ x: [가르생] -> (속격) -> [비겁한]

⑧ y: [가르생] <- (능력) <- [끊다] -> (대격) -> [이승과의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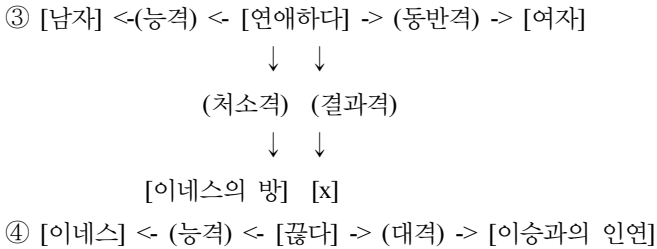
가르생의 의미그래프 ③에서 모호했던 시선의 의미가 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가르생이 비겁하다는 것이다. 닫힌 방에서 그가 에스텔과 입 맞추려고 할 때 이를 지켜보는 이네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사실 저 여자가 문제야.”(p.66) 아내에게서 모해했던 시선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선은 판단을 포함하고 있고 항상 이 판단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2) 이네스의 현재 이승

이네스는 플로랑스와 함께 살았던 방에 한 남자가 세 들어 한 여인과 자신의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드디어 나하고 이승하고는 끝인가 봐요. 더 이상 알리바이가 없

어. (그녀는 몸서리친다.) 뭔가 텅 비어 버린 느낌이에요. 이제 난 완전히 죽은 거네.”(p.56)

<이네스의 절연그래프>



이네스는 동성애를 욕망하는 만큼 이성애를 증오한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바라보고 절망한다. 이러한 절망은 닫힌 방에서도 되풀이 된다. 닫힌 방에서 가르생이 에스텔을 포옹하려 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당신들이 이겼으니까.”(p.66)

3) 에스텔의 현재 이승

에스텔은 생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올가가 자기를 쫓아다녔던 연하의 청년 피에르를 유혹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애인을 빼앗긴 것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올가가 피에르에게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다. “안 돼! 안 돼! 그에게 말하지 마! (.....) 저 여자가 그 애한테 끝내 다 말해 버렸어요, 가르생. 로제 이야기며 스위스 여행, 야기, 전부 다 얘기해 버렸어요.”(p.61) 이승에서 자기에게 나의 샘플이라고 불러줬던 피에르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에스텔의 절연그래프>

⑤ [올가] <- (능격) <- [폭로하다] -> (여격) -> [피에르]

↓ ↓

(대격) (결과격)

↓ ↓

[x] [y]

⑥ x: [에스텔] <- (능격) <- [살해하다] -> (대격) -> [영아]

⑦ y: [에스텔] <- (능격) <- [끓다] -> (대격) -> [이승과의 인연]

이승의 과거에 에스텔은 살해자였고 이승의 현재에서 그 사실이 그녀가 유일하게 사랑의 밀어를 고대하고³²⁾ 있는 피에르에게 폭로된다. 이승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3. 저승

T1에서 함께 방에 모인 세 명의 망자들은 T2에서 함께 모인 이유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아니 왜, 왜 우리들을 같이 모아 뵈을까요?” (p.30) 이후의 과정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는 지옥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과 다름 아니다. 이 과정을 한편으로는 변증부적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론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후자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변증부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두 기능에 흥미로운 변곡점이 발생한다. 텍스트의미론에서 다루는 친화적 기능과 적대적 기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³³⁾

32) 피에르는 에스텔에게 “자기의 샘플”(p.59)이라고 불렀다. 에스텔은 피에르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네가 ‘나의 샘플, 나의 소중한 샘플’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여기에 반만 와 있는 거야, 난 반만 죄가 있는 거고, 난 네 곁에 거기 샘플로 있는 거야.”(p.60)

33) Rastier(1989:75)

친화적 통합체	친화적 기능	적대적 기능	적대적 통합체
계약	제안	도전	대결
	수용	응전	
교환	전달	공격	결투
	전달	반격	
결과	재분배	승인	결과

닫힌 방에서 세 명의 행위자들 사이에 먼저 친화적 기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친화적 기능은 제안과 수용이라는 계약 관계에서 시작하여 상호전달로 이어지는 호혜적 관계로 전개된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친화적 기능의 문법이다. T3에서 가르생은 지옥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서로 침묵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이 수용되고 이들은 서로의 침묵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승에서 플로랑스를 조종하여 그녀의 시선을 얻는 데 성공한 이네스가 에스텔을 조종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닫힌 방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에스텔은 이네스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에 가르생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이네스는 소리친다. “아하! 저쪽은 남자니까. (가르생에게) 당신이 이겼군. (가르생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 이 여자 좀 쳐다봐 줘요! (가르생은 대답하지 않는다.) 연극 좀 그만하시지. 우리가 하는 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았으면서.”(p.43) 이는 친화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도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오히려 적대적 기능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다. 가르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전’한다. “난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랐어, 평화롭게 그냥 침묵만 좀 지켜 달라고 했잖아.”(p.46) 침묵의 계약은 결국 파기된다. 계약의 파기는 친화적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동시에 적대적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2차적 계약이 다시 체결됨으로써 적대적 기능은 다시 유예된다.

T5에서는 침묵을 깨고 서로의 삶을 고백하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다. 첫 번째 계약을 제안한 가르생이 두 번째 계약도 제안한다. “저들이 왜 우리를 여기에 처넣었는지 각자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요.”(p.46) 친화적 기능을 a, 적대적 기능을 b로 표기하면 변증부의 리듬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ab a'b'. 이는 친화적 기능이 적대적 기능으로 회절되면서 변주를 일으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두 차례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친화적 기능이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두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전자는 후자로 전환되는데 이를 통해 지옥의 진정한 의미, 요컨대 “지옥은 바로 타자들이다”라는 테제의 의미가 드러난다.

침묵의 계약은 서로의 불투명성을 관용하자는 것이다. 전등이 꺼지지 않는 오직 낮뿐인 방에서 모든 것은 투명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계약의 파기는 상징적으로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새롭게 체결된 계약의 요점은 서로의 투명성을 관용하자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별레처럼 알몸이네요. 그래서 더 분명한 게 있나요?”(p.55) 고백을 통해 더 분명한 것은 각자 바라는 구원의 내용이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함께 난관을 벗어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요.”(p.55) 가르생이 바라는 구원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가르생의 구원그래프>

⑨ [가르생] <- (능력) <- [바라다] -> (대격) -> [구원: x]

⑩ x: [이네스] <- (능력) <- [믿다] -> [대격] -> [가르생]

가르생은 배반자다. 배반자에게 구원은 믿음이다. 가르생은 바라는 구

원은 이네스가 자신의 가치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동성애자인 이네스에게 구원은 다음과 같이 에스텔이 자신의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네스의 구원그래프>

⑤ [이네스] <- (능력) <- [바라다] -> (대격) -> [구원: y]

⑥ y: [에스텔] <- (능력) <- [듣다] -> [대격] -> [이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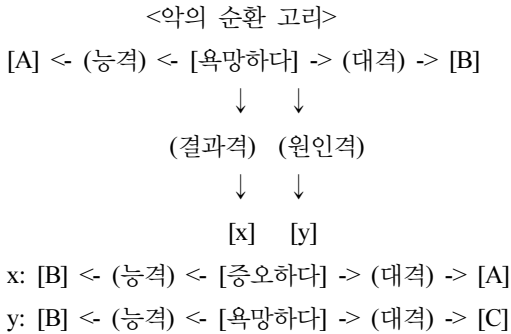
이성애자인 에스텔의 구원은 가르생이 자신의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에스텔의 구원그래프>

⑧ [에스텔] <- (능력) <- [바라다] -> (대격) -> [구원: z]

⑨ z: [가르생] <- (능력) <- [원하다] -> [대격] -> [에스텔]

친화적 기능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르생은 이네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은 나를 돕는 거지. 힘든 일은 거의 없을 거요. 그냥 돕겠다는 선의만 있으면 될 테니까.”(p.56) 가령 이네스가 가르생의 요청에 응답했다라면 친화적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됐을 것이다. 이네스는 가르생의 도움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다. “선의라..... 그걸 어디서 찾죠? 난 썩었어요.”(p.56)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교환관계는 깨어지고 서서히 적대적 관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르생은 이네스를 욕망하지만 이네스는 에스텔을 욕망하는 만큼 그를 증오한다. 이네스와 에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네스는 에스텔을 욕망하지만 에스텔은 가르생을 욕망하는 만큼 그녀를 증오한다. 에스텔은 가르생을 욕망하지만 가르생은 이네스를 욕망하는 만큼 그녀를 증오한다. 욕망의 사슬은 이처럼 증오의 사슬과 맞물려 끊임없이 순환한다. 닫힌 방에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욕망은 폐쇄적인 악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이들은 여기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A, B, C의 자리에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 각각 돌아가며 차지한다. 이들 사이에 친화적 기능이 중단되고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는 적대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 지옥의 변증법은 이처럼 이중의 순환 고리가 뒤엉키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형태로 전개된다.

V. 지옥의 우주론

변론부는 텍스트 차원에서 명제분석이 이루어지는 의미구성부다. 텍스트의미론에서는 텍스트 차원에서의 명제 분석을 전개하기 위해 논리의 미론에서 사용하는 ‘우주’와 ‘세계’라는 개념이 차용된다. 우주는 행위자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을 일컫는다. 세계는 이러한 우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실재세계, 반실재세계, 가능세계로 세분된다. 논리의미론에서와는 달리 텍스트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우주와 세계에 대한 분석이 오직 텍스트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진리 값은 텍스트적 진리 값인 것이다.

앞에서 구분한 세 세계, 즉 과거의 이승, 현재의 이승, 저승을 텍스트의미론에서 제시한 세 세계, 즉 실재세계, 반실재세계, 가능세계에 대입해보자. 과거 이승과 현재의 이승은 모두 실재세계에 속한다. 저승은 먼저 이승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반실재세계로 드러난다. 과거의 이

승을 부정하려고 할 때는 조건법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이승을 부정하려고 할 때는 조건법 현재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승과의 관계가 끊긴 저승은 가르생의 마지막 대사, 즉 “좋아, 계속하지”(p.83)라는 대사에서도 잘 드러나듯 구원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저승의 가능세계는 역설적으로 폐쇄적이다. 변론부 분석에서 우리가 다룬 명제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T2에서 제기된 “왜 우리들을 같이 모아 뵈을까요?”(p.30)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이다. 가르생에 따르면 여기에 세 명이 함께 모인 이유는 우연이고 이네스에 따르면 필연이고 에스텔에 따르면 실수다. 다른 하나는 후반부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르생은 비겁한 놈이다!”라는 명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명제는 이 작품의 핵심 테제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명제다.

1.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세 명 모두 다르다. 각자 내놓은 대답으로 명제 분석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연이다.”

가르생의 우주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 가르생은 이승의 삶과 저승의 삶이 필연적 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실재세계가 실재세계의 진리 값을 뒤집어 보는 조건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명제의 진리 값이 거짓으로 상정될 수도 있지만 가르생은 이러한 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반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부정되지 않고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가능세계에서는, 다시 말해 저승에서는 이 명제가 거짓으로 판명난다. “당신들에게 말하지만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p.82) 이네스의 우주를 구성하는 실재세계

와 가능세계에서 명제의 진리 값은 거짓이다. 반실재세계에서는 미결정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스텔의 우주에서는 세 세계에서 이 명제의 진리 값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 그녀가 주장하는 실수라는 명제는 우연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	세계	진리치
가르생	실재 세계	V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F
이네스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F
에스텔	실재 세계	ID
	반실재 세계	ID
	가능세계	ID

(V: 참; F: 거짓; ID: 미결정)

②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필연이다.”

가르생의 우주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의 진리 값은 거짓이며 반실재 세계에서는 미결정적이다. 가능세계에서는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승인된다. 이네스의 경우 실재세계와 가능세계에서 이 명제는 참이고 반실재세계에서는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에스텔은 이 명제를 실재세계에서도 가능세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지 실수에 지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실재세계에서는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주	세계	진리치
가르생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V
이네스	실재 세계	V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V
에스텔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ID
	가능세계	F

③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실수다.”

가르생의 우주의 실재세계와 반실재세계에서 이 명제의 진리 값은 미결정적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실수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으로 결정된다. 이네스의 경우 이 명제는 실재세계와 가능세계에서 모두 거짓이다. 다만 반실재세계에서는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에스텔의 경우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 반실재세계와 가능세계에서는 미결정적이다. 이상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	세계	진리치t1
가르생	실재 세계	ID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F
이네스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F
에스텔	실재 세계	V
	반실재 세계	ID
	가능세계	ID

이상의 우주 분석에서 보여주듯 태도 변화를 보인 행위자는 가르생이다. 가르생은 닫힌 방에 모인 이유를 처음에는 우연으로 보았다가 나중에는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이네스의 경우 입장이 시종일관 동일하다. 반면에 에스텔은 더욱 더 미결정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이는 에스텔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는 감성적 인물에 불과함을 잘 보여준다.

2. “가르생은 비겁자다”

가르생의 우주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의 진리 값은 참으로 결정되어 있다. “가르생은 비겁한 놈이다!”(p.70)라는 동료의 판단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가르생의 반실재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진리 값이 부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이 타당성을 입증 받으려면 타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타인의 승인은 가능세계에 속하며 여기서 진리 값은 미결정적이다. 이네스의 우주와 에스텔의 우주에서는 진리 값이 이와는 다르게 결정된다. 이네스의 우주의 실재세계와 반실재세계는 이 명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진리 값은 미결정적이다. 반면에 가능세계에서는, 다시 말해 저승에서는 참으로

〈가르생은 배반자다.〉

우주	세계	진리치
가르생	실재 세계	V
	반실재 세계	F
	가능 세계	ID
이네스	실재 세계	ID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V
에스텔	실재 세계	ID
	반실재 세계	ID
	가능세계	F

결정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가르생의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에스텔의 우주의 실재세계와 반실재세계에서도 이네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명제의 진리 값은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에스텔의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에스텔의 승인은 가르생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위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여기서 문제된 것은 “잡아먹은” 시선이다.³⁴⁾ 이 명제는 가르생에게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p.82) 가르생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미결정 상태에 있다. 아내의 표정도 모호하고 동료들의 판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실재세계에서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친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가능세계에서, 다시 말해 저승에서 이 명제는 참으로 공표된다. 이네스의 우주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인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반실재세계에서는 미결정적이다. 하지만 저승에서 에스텔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좌절한다. 가능세계에서 이 명제는 가르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결정된다. 어떤 점에서 그녀는 이러한 진리 값을 가장 먼저 예견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들 각자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인”(p.36)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했기 때문이다. 에스텔의 우주의 실재세계에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그녀는 남자들의 구애를 받을

34) 가르생의 대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들에게 말하지만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 그들은 내가 이 벽난로 앞에서 손으로 이 청동상을 쥐고서 모든 시선을 받고서 있을 걸 예견했던 거야. 나를 잡아먹은 이 모든 시선들..... (그가 갑자기 뒤돌아선다.) 이런! 당신들 돌밖에 안 돼? 난 당신들이 훨씬 많은 줄 알았지 뭐야? (그가 웃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행불, 장작불, 석회 아! 정말 웃기는군. 석회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p.82)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실재세계에서는 참으로 인정된다. 올가가 그녀의 애인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가능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르생과의 결합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명제의 진리 값은 미결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	세계	진리치
가르생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ID
	가능 세계	V
이네스	실재 세계	V
	반실재 세계	F
	가능 세계	ID
에스텔	실재 세계	F
	반실재 세계	V
	가능세계	ID

IV. 결론

“타인은 지옥이다”가 뜻하는 바는 실존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의 관계는 변증부 분석에 드러나듯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원은 악무한을 형성한다. 『단한 방』에서 그들의 관계는 결정되어 있다. 지옥은 실존이 본질로 퇴화된 상태와 다르지 않다.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은 마치 사물처럼 이미 결정된 대로 행동할 뿐이다. 주제부 분석이 보여주듯 사물들은 자신의 본질을 상실했고 이후의 변증부와 변론부 분석이 보여주듯 인간들은 자신의 실존을 상실했다. 사물은 쓸모없고 사람은 사물화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의미구성부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은 언어학

적이라고 볼릴 수 있는 하나의 읽기다. 라스티에에 따르면 이러한 읽기가 해석의 조건을 구성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읽기에 해석을 덧붙여 보자.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에서 타인의 시선은 대자를 즉자화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단한 방』에서 타인은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구원의 가능성은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미결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가르생이 비겁하다는 사실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온 순간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이 타자의 응답이다. 타인이 지옥인 이유는 즉자화하는 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응답의 부재 때문이다. 타자는 응답하지 않는다. 가르생은 에스텔을 바라보지만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에스텔은 이네스를 바라보지만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네스는 가르생을 바라보지만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즉자와 대자라는 이원적 관계에 기초해있다. 타자가 문제되는 이유는 주체를 대상으로, 다시 말해 대자를 즉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한 방>에서 타자는 이러한 이원적 관계를 벗어날 때 더욱 위협적이 된다. 여기서 타자는 즉자화하는 심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자화하는 심급이다. 대자화한다는 것은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이네스는 가르생을 욕망의 주체로 대자화할 수 있는 결정 심급이다. 마찬가지로 에스텔은 이네스를 욕망의 주체로 대자화할 수 있는 결정 심급이고 가르생은 에스텔을 욕망의 주체로 대자화할 수 있는 결정 심급이다. 그런데 타자는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주체를 좌절에 빠뜨린다. 바로 이러한 좌절 속에서 욕망의 주체는 즉자화된다. 타자는 침묵하는 존재다. 지옥이 타자인 이유는 타자의 눈이 폭력적이라기보다 그의 응답의 부재가, 그의 침묵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T3에서 체결된 침묵의 계약은 T4에서 파기됐지만 정작 타자의 침묵은 지속됐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휘택, 「전통 텍스트 분석 단위에 대한 일고찰」, 『유럽사회문화』, 제12호, 2014.
_____, 「이야기와 기술의 결합관계에 대한 연구」, 『유럽사회문화』, 제19호, 2017.
미하일 바흐친, 『바흐친의 소설미학』, 이득재 역, 열린책들, 1988.
장폴 사르트르, 『담힌방 · 악마와 선택 신』, 지영래 역, 민음사, 2013.
최용호, 『텍스트의미론강의』, 인간사랑, 2004.
_____, 『의미와 설화성』, 인간사랑, 2006.
- Adam, J.-M., 1990, *Elements de linguistique textuelle: théorie et pratique de l'analyse textuelle*, Liège, Mardaga.
- Badir, S., 2000, *Hjelmslev*, Paris: Les belles lettres.
- Charolles, M., 1988, “Les plans d’organisation textuelle: périodes, chaînes, portées et séquences”, *Pratiques* n°57.
- Rastier, F., 1987,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aris: PUF.
- _____, 1989, *Sens et textualité*, Paris: Hachette.
- _____, 1991,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aris, PUF, coll. « Formes sémiotiques »
- _____, 1998, *Herméneutique : textes, sciences*, Paris: PUF.
- _____, 2002, *Arts et Sciences du texte*, Paris: PUF.
- _____, 2002, *Une introduction aux sciences de la culture*, Paris: PUF.
- _____, M. Cavazza, M. and A. Abeillé, A., 1994, *Sémantique pour l'analyse*, Paris: Masson.
- Ricoeur, P., 1981, *Temps et récit*, tome1, Paris: Edition de Seuil.

The Semantic Structure of *No Exit* by Sartre from the Perspective of Text Semantics by François Rastier

Choi, Yong-Ho

Text Semantics by François Rastier is distinguished among many theories of Text Linguistics as far as it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proposed by Text Semantics is not thematic one, nor psychoanalytic nor marxist but linguistic one. Text Semantics comes up with linguistic readings. It defines textuality as interaction between four semantic components, i.e., thematic, dialectic, dialogic and tactic. According to Rastier, linguistic reading is a condition of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o analyse a work by Sartre intitled *No Exit* in order to show how concretely these semantic components are applied to a text analysis. In this work, the hell is figured as a studio where the essence of things are denied and the existence of humans are reified. This kind of linguistic reading can provide an argument for other interpretative strategy.

Keywords : Text Semantics, seme analysis, semantic graph, existence, essence

투고일: 2020. 08. 26./ 심사일: 2020. 09. 08./ 심사완료일: 2020. 09. 09.

퍼스 포함구조 기반 의미생산과 도시장소 시험적용*

황영삼**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기초 고찰
- III. 복합기호작용의 유형
- IV. 도시장소에서의 시험적용
- V. 나오면서

국문초록

퍼스 기호학은 삼원 기호 요소들간 관계가 현상학적 및 존재론적 포함관계를 통하여 관계가 형성된 수학적 구조이다. 그것은 기호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폭넓은 기호작용들이 단일 기호에 압축되어 있다. 기호유형론에서는 10개 기호 유형들이 3개 기호군과 1개 속성기호로 이루어진 포함구조로 재구성될 수 있다. 기호포함구조는 포함관계에 의한 기호유형들의 관계구조로,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호유형 간 상호작용은 이 포함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퍼스의 삼원 기호모델의 기반을 이루는 포함관계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결정성이 퍼스 기호학의 백미라고 보고, 그것이 기호포함구조 기반 의미작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호포함구조에서 의미생산과 비결정성이 삼중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기호군별로 이루어지는 3개 기호들의 상호작용에서는 표상체의 공유를 통해 기호군별로 생산하는 의미들 간에 동질성을 지향하는 비결정성이 나타났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hwang03@inu.ac.kr

또 이원적 포함구조, 즉 (상징)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 포함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기호 간 상호작용에서는 비결정성에서 일반성과 개별성 간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삼원적 포함구조에서는 기호군별 세 기호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삼원 기호작용에서는 체현으로 형성되는 포함관계를 기반으로 고도의 비결정성이 나타났다. 연구 후반부에는 기호포함구조를 서울 광화문광장에 적용한 안을 작성하고, 그 내에서 비결정성이 포함관계를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열쇠어 : 퍼스 기호학, 비결정성, 세미오시스, 포함관계, 기호작용, 도시기호

I. 들어가며

대상의 의미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해석은 기호를 통한 번역으로 해석자에게 끼치는 ‘적절하고 의미있는 효과’를 생산하는 과정(즉 기호작용 자체의 과정)의 결과이다.¹⁾ 일반 과학기술에서는 사전에 정해져있는 공식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해석체를 직접 탐구하는 인과론적 해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²⁾ 이에 비해 퍼스 기호학의 해석 방식은 사전 정의된 위상학적 관계구조의 틀 내에 대상, 기호, 해석체를 위치시키고 기호의 매개체와 한정자 역할을 통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삼원적 해석 방식이다. 삼원적 기호에서는 기호요소들의 협력을 통하여 목적지향적, 합목적적 의미생산에 적합한 해석체를 생산하도록 대상을 재현하고 해석체를 한정한다.

본 연구는 기호작용의 기반을 이루는 포함관계의 구조와 유형 간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유형론을 구성하는 10개 기호 유형들을 포함관계에 의한 연속적 구조로부터 복합포함구조의 유형을 찾아내고, 각 유형별 복합기호작용에서 포함관계가 어떤 기반 역할을 하는지 탐구한다.

1) Liszka,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1996,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2013, 78쪽.

2) 강신익 외 18인,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주)창비, 2014, 34-51쪽.

II. 기초 고찰

1. 기호의 두 얼굴

기호는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재현으로부터 번역물로서의 해석체가 생산되도록 중개하는 매개체이다. 동시에 기호는 특정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상에 대한 해석이 주어진 목적에 의미를 가진 효과를 생산하도록 제약 또는 조정하는 한정자로 작용한다. 즉 기호의 역할은 대상과 해석체 간 매개자 역할과 행동자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위상학적 관계구조에서의 존재론적 위상(표상체)은 동일하지만 기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기호작용이 이차적 존재로서의 대상의 특징 가운데 선택된 일차적 존재로서의 기호의 매개를 통하여 대상이 삼차적 존재로서의 해석체로 번역되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이 때 기호는 대상의 재현과 해석체 생산을 매개한다. 대상은 기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석체를 한정하는데, 이 해석체는 대상이 재해석에 의해 재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작용은 대상 자신의 한정 하에 자신을 재해석하는 재생산적(reproductive) 기호작용이다. 이에 비해 후자, 즉 기호의 또다른 역할인 행동자 역할에서는 목적은 제약 또는 조정하는 한정자 역할을 하고, 기호는 이에 대한 행동자의 역할을 하면서 해석체가 목적 기여 효과를 얻도록 한정한다. 이 경우의 기호작용은 목적지향적(goal-oriented) 기호작용이다. 요약하면 매개체로서의 기호에 의한 기호작용은 재생산적이고 행동자로서의 기호에 의한 기호작용은 목적지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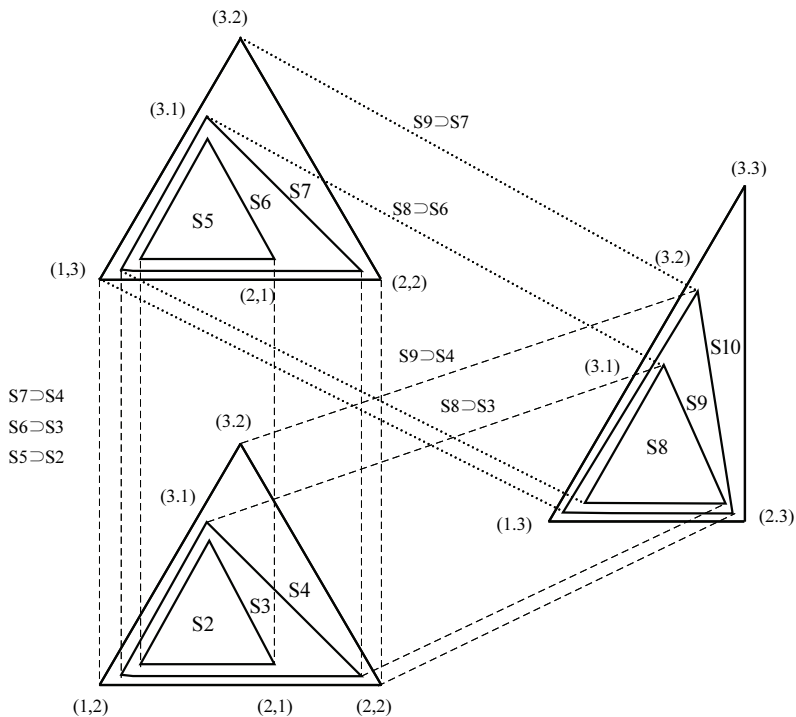
재생산적 기호와 행동자적 기호는 기호의 두 얼굴로 상호협력한다. 기호는 양 방향, 즉 대상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방향별로 달라지는 한정자에 다르게 대응하면서 의미있는 효과를 가진 해석체 생산에 도달하도록

협력한다. 이 협력은 재현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매개자 기호는 선택된 대상의 일부 특성의 해석에 의해 대상이 확장적으로 해석되도록 재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행동자 기호는 이러한 재생산적 기호작용에서 재현이 목적 기여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약 또는 조정한다.

2. 의미의 무정형성과 비결정성

매개자 기호는 일차적 존재로 이차적 존재로서의 대상에 나타나거나 잠재한 일차성을 지시한다. 그 일차성 영역은 가능성의 세계 또는 잠재성의 세계로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상상력이 허용되는 장이다. 그것은 무형식적 세계를 포함하고 그 영역에 속하는 일차적 기호 역시 무형식적이다. 이러한 일차적 기호를 매개로 생산되는 해석체 역시 해석체 자체로는 무형식적이다. 또한 일차성 기호의 매개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비결정적이다. 이것이 형식을 갖추는 것은 이차적 존재인 대상의 한정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형식적, 비결정적임과 동시에 창의적이다. 형식주의의 한 양식으로서의 해체주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성이 그 예이다.

존재성은 일차성에 속하는 대상의 속성이다. 모든 대상의 기저에는 대상의 존재성이 깔려 있다. 실세계에서 존재성 없는 대상은 생각할 수 없다. 존재성은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되어 존재한다. 기호를 통한다면 대상에 포함된 존재는 재현될 수 있고 해석될 수도 있다. 포함구조는 이러한 실세계에서 인지되지 않는 존재의 무정형성과 비결정성에 대한 형식적 체계이다. 대상의 존재성은 기호의 일차성에 의해 재현되고, 일차성의 매개에 의해 무정형적, 비결정적 해석체로 해석된다. 비결정성은 건축 양식의 다원성과 도시공간 형태의 다원성을 설명하는 주요 원리 중 하나이다. 해체주의 건축, 디



[그림 1] 재구성된 기호포함구조

지탈 건축 등 상상력이 요구되는 현대건축에서는 유연성에 의한 비결정성이 형태를 결정하는 양식적 요소로 작용한다.³⁾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비결정성은 그러한 특정 건축양식에 국한된 형태적 비결정성이 아니고 모든 건축 양식과 도시공간 형태의 다양성을 낳는 근본적 요인으로서의 존재론적 비결정성이다. 이 문제는 형태적 비결정성이 아닌 존재론적 비결정성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것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 형태적 비결정성이 나타나는 원리를 포함구조에서 찾아본다. 표상체로서의 기호가 포함관계를 기반으로 타 기호와 협력하여 형태의 의미론적 다

3) 김원갑, 『램 쿨하스의 건축』, 시공문화사, 2009, 115~116쪽.

4) 길성호, 『현대건축의 재발견』, 시공문화사, 2013, 25~26쪽.

양성을 생산한다는 것을 광화문광장의 실제 사례에서 시험적용한다.

Ⅲ. 복합기호작용의 유형

1. 중간유형론의 재구성

퍼스의 삼원 모델은 실제 세계와 추상 세계를 기호를 매개로 의미론적으로 결합한 상대적 위상구조이다. 그것은 삼원 기호요소들 간 삼원 관계에 관한 형식적 틀로서, 삼원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삼원 기호요소도 함께 변화하는 방식이 단일 모델로 압축된 것이다. 삼원 관계의 변화에는 포함관계의 즉 기호, 대상, 해석체가 각각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의 위상을 가지고, 삼차성은 이차성을 포함하고, 이차성은 일차성을 포함하는 포함관계를 압축하고 있다.⁵⁾ 이들 기호 간 포함관계는 전개되기 전 압축된 단위 모델에서는 구별되기 어렵다.

단일 기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원적 의미생산은 기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때 의미생산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은 유사하다. 의미생산을 위한 기호 간 상호작용은 복수 기호들 간 협력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협력은 포함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호 간 포함관계가 무엇이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낳는가 하는 것은 중간유형론에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중간유형론의 포함구조를 살펴본다.

[그림 1]은 중간유형론을 구성하는 전개된 10개 기호유형들을 포함관계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⁶⁾ 중간유형론을 구성하는 포함관계는 기호 유형 간 현상학적 및 존재론적 관계이고, 재구성된 중간유형론은 위상학적 구조이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기호 유형 간 관계가 단일 기호로 압축되어 있던 것이 10개 유형의 연속체로 전개(unfolding)된 것이다. 그것

5) Jappy, Tony, *Introduction to Peircean visual semiotics*, 2013, pp.73~75.

6) [그림1]은 관련 논문의 그림을 발전시킨 것임.(황영삼 외, 「퍼스 기호 유형론의 건축 디자인 적용 연구」, 『기호학 연구』54, 2018, 205~224쪽. 참조)

은 현실 세계와 추상 세계의 의미론적 연속체이다.⁷⁾

전개된 기호포함구조는 3개의 기호군과 1개의 속성기호로 재구조화된 다. 개별기호군은 S2, S3, S4 등 세 개 기호로 구성되고, 법칙기호군은 S5, S6, S7 등 세 개 기호로 구성되며, 상징법칙기호군은 S8, S9, S10 등 세 개 기호로 구성된다. 이들은 ‘S’로 시작하는 기호의 일련번호로 표기되어 있다. 각 유형은 세 개 기호요소들의 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위상은 (m,n)으로 표시된다.⁸⁾ 기호군별 3개의 기호들은 단일 표상체를 공유한다.

2. 복합기호의 유형

3개의 기호군들 간에는 각 기호군별 표상체들 사이의 포함관계, 즉 법칙기호군, 개별기호군, 상징법칙기호군 각각이 공유하는 세 개의 표상체들 간 포함관계를 축으로 하고, 여기에 속성기호가 9개 기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방식의 포함관계가 나타난다. 이들은 대상에 대한 기호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복합기호작용이 표상체 간 포함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복합기호작용은 기호군 간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서 단위적 포함구조, 이원적 포함구조, 삼원적 포함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위적 포함구조

단위적 포함구조는 단일 기호군 내 기호들 간 포함관계를 말한다. 기호군별 세 개씩의 기호들 간 상호작용은 표상체를 공유하는 포함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상체는 기호작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표상체를 공유한다면 의도와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질적

7) Sheriff, J., *The Fate of Meaning*, Princeton Univ. Press, 1989, pp.74~75.

8) 기호요소별 위상의 표기 (m,n)은 (존재론적 위상, 현상학적 위상)이다.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표상체를 공유한다는 것은 비결정성에 대한 한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호군별 단위적 포함구조에서는 비결정성이 동질성을 지향하면서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이 가진 표상체 ‘한국의 상징장소’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기호들, 예를 들어 ‘세종대왕상’, ‘경복궁’, ‘상징가로’ 등의 공간기호들에게 의미의 동질성을 부여하여 통합 효과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2) 이원적 포함구조

이원적 포함구조는 법칙기호군과 개별기호군 간 포함관계와 상징법칙기호군과 개별기호군 간 포함관계가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 보면, 법칙기호의 타입별 일반성은 개별기호에서 현실 세계에서서의 구체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양 기호의 표상체 간 포함관계는 추론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반을 제공하며, 이원적 포함구조는 그 기반 위에서 복합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그 복합 의미 생산은 표상체 간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 기호의 일반성과 개별성 간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적 가치, 즉 정보의 폭과 넓이가 풍부해진 해석체가 생산된다는 것이다.⁹⁾

복합 의미 생산을 위한 표상체 간 상호작용은 법칙기호의 삼원성과 개별기호의 삼원성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그 과정은 법칙기호의 일차성과 개별기호의 일차성의 상호작용이고 보편적 비결정성과 개별적 비결정성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양 비결정성 간 상호작용은 한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¹⁰⁾ 이것은 각 기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한정이 기호 내 기호요소들 간 한정임에 비해, 양 비결정성 간 상호

9) Liszka,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1996,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83~85쪽.
 10) 비결정성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성과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목표지향성과 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의적 비결정성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작용을 통하여 기호군별 한정 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결정성의 한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동시에 비결정성 속에 내재된 창의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포함구조는 ($S5 \supset S2$), ($S6 \supset S3$), ($S7 \supset S4$) 등 세 개의 조합이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대상으로서의 광화문광장을 타입으로서의 일반 광장의 체현으로서 보는 경우의 이원적 포함관계에 따른 기호작용을 생각해보자. 대상으로서의 광장에 대하여 법칙기호($S5$) ‘광장 = 공공 공간’은 표상체 ‘공공성’을 가질 수 있고, 개별기호($S2$) ‘광화문광장 = 도심교통광장’은 표상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양 기호는 추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원적 포함구조 ($S5 \supset S2$)로 결합되어 한정성과 창의성 효과에 의한 다양한 복합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양 표상체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도심의 심장’과 같은 복합 표상체가 대상의 여러 본질적 성격을 담고 있어서 ‘도심집회장소’, ‘시민옥외문화공간’, ‘집회문화의 중심장소’ 등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원적 포함구조는 상징법칙기호군과 개별기호군 간 포함관계이다. 상징법칙기호는 법칙기호이지만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타사물 또는 기호로부터 재현체를 얻는다. 이것은 상징법칙기호가 생산하는 의미가 추상성이 높아 그것에 필요한 재현 과정 역시 기호 주체의 고도의 이해력과 고도의 표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고도의 재현을 위해서 상징법칙기호에서는 유사한 재현성을 얻을 수 있는 타사물 또는 개별기호를 찾아 자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재현을 수행한다. 여기서 유사한 재현성이 얻어지는 것은 대체 역할을 하는 타사물 또는 개별기호와 상징법칙기호가 일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온순한 형상과 동작을 가진 동물이고 그것이 대상 ‘평화’의 속성 ‘어울려 사는 삶’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둘기=평

11) Nöth, W., “The Semiotics of Models”, in Sign Systems Studies 46(1), 2018, pp.7~43.

화’라는 상징법칙기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상징은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기호작용과 의미 생산이 문화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징법칙기호에서 일어나는 기호작용은 매번 재현과 해석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에 종속된 것일수록 일정하게 고정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개별기호는 상징법칙기호의 복제물(replica)이다. 복제물에서는 삼원 기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 기호의 표상체 간 추론의 빈도가 낮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상징법칙기호와 개별기호 간 이원적 포함관계를 따라 일어나는 기호작용은 비결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상징법칙기호와 개별기호의 포함구조로는 ($S8 \supset S3$), ($S9 \supset S4$) 등 두 개의 조합이 있다. 다시 앞의 광화문광장을 예로 들면 그 특정 광장이 가진 상징성은 한국문화권 내 한국인들만이 공유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일정 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은 한국인들에게는 자연언어만큼이나 강력한 공간언어이고 의사소통 매개체이다.

3) 삼원적 포함구조

삼원적 포함구조는 [그림 1]에서 세 기호군 간 삼원적 포함관계를 통한 기호작용을 말한다. 대상으로서의 법칙기호는 표상체로서의 개별기호의 중재를 통해서 상징법칙기호로 해석되게 된다. 체현을 통해서 존재를 획득한 개별기호는 법칙기호의 실세계에서의 재현이고 상징법칙기호는 개별기호의 중재를 통해 생성된 법칙기호에 대한 해석체이다. 이것은 개별기호가 체현을 통해서 부여받은 실세계에서의 구체적 성격이 그 성격과 포함관계로 맺어져 있는 법칙기호와 상징법칙기호에게도 존재를 획득하는 근거(ground)가 되기 때문이다. 즉 체현은 개별기호 내에서 기호요소들이 관계맺기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호군 간 삼원 관계의 근거까지 제공한다. 체현으로 생성된 개별기호의 표상체는 10개 기호들

로 이루어지는 관계구조체의 중심이다.

삼원적 포함구조는 고도의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상이한 이해 방식이 있다. 먼저 삼원적 포함구조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기호 작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삼원적 포함구조가 나타내는 것은 상징 법칙기호란 개별기호를 재현체로 가지는 법칙기호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중간유형론 포함구조 전체를 거대한 단일 구조로 보는 방식으로 이원적 포함구조를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효한 것이되 비결정적 삼원 기호작용과 무관한 구조이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삼원적 포함구조는 이와 달리 10개 유형들에서 기호작용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방식으로, 10개 유형들의 기호작용이 3개 기호군 간 기호작용으로 재구성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결정성이 이들 간 삼원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¹²⁾

법칙기호를 대상화하여 개별기호의 중재를 통해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것은 추상성이 높은 법칙기호를 기호작용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또는 목표에 유용한 정보량이 확대되도록 변환한다는 뜻이다. 이 때 추상성이 높은 법칙기호를 직접 변환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높은 개별기호의 중재를 통하여 변환하는 것이 목표지향성에 더 부합하게 된다. 이 때 이원적 포함구조에서의 포함관계는 체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독립된 일반 기호 간 포함관계인 것에 비해, 삼원적 포함구조에서는 포함관계가 체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경우 개별기호는 태생적으로 법칙기호와 불가분 관계를 포함한 사례기호이다.

이것이 체현이 퍼스 기호학에서 필요한 이유이다. 체현은 대상으로서의 법칙기호에 대한 기호로서의 개별기호 생성 과정이다. 체현에 의해

12) 이원적 포함구조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양 표상체 간에 일어나는 것에 비해, 삼원적 포함구조에서는 세 기호가 생산하는 의미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개별기호의 표상체 역할도 개별기호 전체에서 생산되는 의미가 수행하는 것인지 표상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생성된 개별기호는 태생적으로 법칙기호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칙기호와 근본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별기호는 법칙기호에 대한 넓은 의미해석의 지평으로 이끌 수 있다. 그 지평은 포함관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상징법칙기호의 영역이지만 비결정적 기호작용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 비결정성은 표상체로서의 개별기호가 법칙기호의 어떤 특성을 재현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비결정적이다. 그러나 한편 비결정적 기호작용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삼원적 조합은 법칙기호-개별기호-상징법칙기호 순으로 6번-3번-8번, 그리고 7번-4번-9번 등 두 개가 발견된다. 이들 두 개 조합은 상호 포함관계를 이룬다. 즉 7번-4번-9번 조합이 6번-3번-8번 조합을 포함한다. 비결정적 기호작용이기 때문에 다시 앞의 광화문 광장의 예로 돌아가면 법칙기호(S5) ‘광장 = 공공공간’에 대한 의미해석은 그것의 체현으로서의 개별기호(S2) ‘광화문광장 = 서울 도심 공공공간’의 중재를 통하여 ‘광화문광장 = 서울 역사문화광장’, ‘광화문광장 = 한국의 상징공간’ 등과 같이 상징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광화문광장 = 낭만과 함성이 교차하는 현대사 공간’, ‘광화문광장 = 인왕산과 남산 사이 풍수터’ 등 더 넓게 해석될 수도 있다.

3. 비결정성의 삼중 구조

단일 기호에서 기호요소들의 협력으로 삼원 기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원리, 곧 기호의 근거(ground) 위에서 일어나는 재현과 해석이 선택과 확장을 위한 협력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기호포함구조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기호 간 상호작용의 원리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호 간 포함관계는 기호 내 기호요소 간 포함관계의 연장에 의해 얻어진 연속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간유형론의 재구성은 10개 기호유형들을 연속성 관계에 의해 전개한 것이다. 이것은 퍼스 삼원 모델을 전개한 것으로 재압축한다면 당초 삼원 모델로 복원된다.

단원적 포함구조에서는 표상체를 공유함으로써 따르는 한정 하에서의 기호군 내 비결정성으로 나타나고, 이원적 포함구조에서는 법칙기호의 일반적 비결정성과 개별기호의 개별적 비결정성이 한정성을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삼원적 포함구조에서는 세 기호들의 협력에 의하여 삼원 기호작용이 일어날 때 체현으로 형성되는 포함관계를 기반으로 고도의 비결정성이 나타난다. 단일 대상에 대한 기호작용은 이들 세 유형의 복합포함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의미의 비결정성은 이들 복합포함관계의 삼중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기호포함구조는 위상체계이기 때문에 대상별 기호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다원적이다. 그것은 단위 기호들이 연결된 연속체일 수도 있고, 기호군별 공유 표상체를 원점으로 생산될 수도 있다. 전자는 포함구조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보는 방식이고 후자는 하향식(top-down)으로 보는 방식이다. 전자는 단위 기호들의 기호작용을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포함구조를 탐구해나가는 방식이고, 후자는 표상체가 알려진 경우에 포함구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¹³⁾

IV. 도시 장소에의 시험적용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 대형 광장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회문화적 의미들과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장소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되 그 다양성에 대한 시험적용으로, 기호포함구조를 구성하고 의미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시

13) 외국인은 타국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호생성 과정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포함구조를 생산, 운용하는 방법이 이와 달라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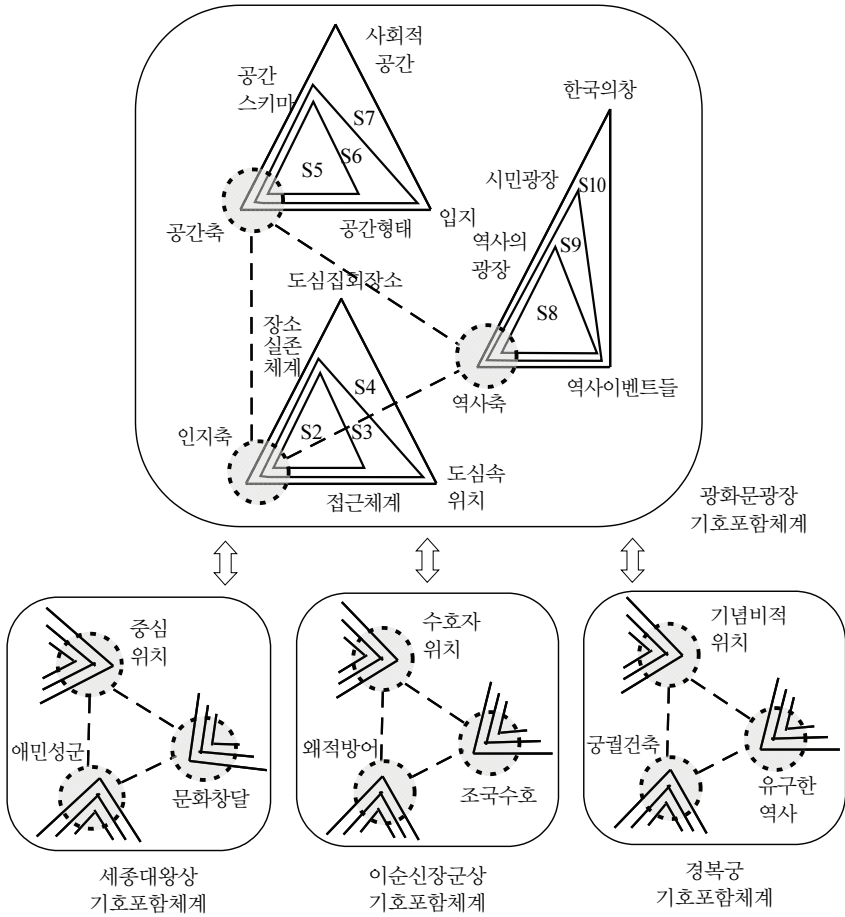
험해본다. [그림 2]는 광화문광장의 포함체계가 광장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한 세종대왕상, 이순신장군상, 경복궁의 포함체계와 연결된 총 4개 포함구조들로 구성된 기호관계구조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 관계구조는 앞에서 논의된 단원적 포함구조, 이원적 포함구조, 삼원적 포함구조의 관계망이다.

네 개 포함구조에 대한 세 개 표상체 각각은 세 개 기호군별 위상체계의 원점이고 동시에 네 개 포함구조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다. 각 기호군에서는 표상체를 공유하면서 기호유형별 재현체의 위상에 따라 해석체의 위상이 얻어진다.

먼저 광화문광장을 보면 공간축, 인지축, 역사축 등 세 개의 축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법칙기호군, 개별기호군, 상징법칙기호군별 공유 표상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축은 일반 공간 기호의 표상체로 공간적 법칙에 의해 의미해석이 일어난다.¹⁴⁾ 사례로서의 광화문광장의 고유 특성은 동일성, 중심성, 장소성 등 인지적 의미를 생산하는데 그 의미는 인지축으로 표상된다.¹⁵⁾ 역사축은 인지축에 의한 사례 특성에 대하여 공간축 해석체의 일반 법칙을 적용하여 역사성을 해석해내는 관계구조를 제공한다. 이들 세 표상체의 삼원 관계는 세 기호군을 긴결시키는 긴장된 고무줄로 의도와 상황에 따라 위상관계가 함수적으로 변한다.

14) Mitsue Inoue, *Kenchikubi Ron No Ayumi*, 1991,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공역, 도서출판국제, 1994, 284~288쪽.

15) Schulz, C. Norberg-,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30~55쪽.



[그림 2] 광화문광장과 주변에 대한 복합기호포함구조

기호는 목적과 대상의 한정에 의하여 동질적인 것들 간 상호 수렴이 일어난다. 세종대왕상, 이순신장군상, 경복궁의 포함구조 내 표상체들 간 삼원 관계는 본 시험적용의 주된 관심사인 광화문광장 포함구조의 삼원 관계로 수렴된다. 그들 각각의 공간적 위치가 강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광장의 공간축에 수렴된다.¹⁶⁾ 그 공간적 위치는 장소 인

지적 의미(애민성군, 왜적방어, 궁궐건축)를 생산하고 광장의 인지축에 수렴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상징적 의미는 광장의 상징축에 수렴된다.

복합포함구조에서 일어나는 추론 간에도 수렴이 일어난다. 네 개 포함구조 각각에서 형성되는 단위적 포함구조, 이원적 포함구조, 삼원적 포함구조타 세 개 포함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동질 추론을 동질적인 것들 간 상호 수렴한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추론이라면 타 포함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을 수렴하고 세종대왕상에 대한 추론이라면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타 세 개 포함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동질 추론을 수렴한다.

광화문광장의 의미의 비결정성은 표상체 중심 복합포함관계의 삼중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법칙기호군에서 생산되는 일반적 의미(개방감 등)는 개별기호군에서 생산되는 개별적 의미(장소성 등)와 이원적 포함관계를 이룬다. 만일 개별적 의미가 법칙기호의 체현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면 이들은 상징법칙기호군에서 생산되는 의미(한국성 등)와 삼원적 포함관계를 이룬다. 이 때 각 의미는 표상체로서의 기호의 일차성의 매개에 의해 생산되는 비결정적 의미이다.

시험적용 결과 퍼스 기호학의 포함구조는 의미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괄적 수준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란 표상체의 포함구조를 중심으로 복합 의미생산이 일어나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검토가 실용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들이 뒤따라야 한다.

V. 나오면서

본 연구는 퍼스 기호학에서 의미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비결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이를 위하여 중간유

16) 세종대왕상은 세종문화회관에 인접한 중심 위치이고, 이순신장군상은 국방을 의미하는 위치이며, 경복궁은 과거 궁궐의 권위적 위치가 오늘날 기념비적 위치를 의미한다.

형론을 구성하는 10개 기호유형들을 연속적 관계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기호포함구조에서 의미생산과 비결정성이 삼중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서의 시험적용을 통해서 그러한 비결정적 의미생산을 형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결정성은 퍼스 기호학의 백미로 추론적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효과이며 기호포함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비결정성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내는 원리에 대한 형식적 결정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퍼스 삼원 모델이 갖춘 비결정성은 퍼스 모델이 구조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비판의 여지를 극복하는 길을 열어준다. 상대적 위상관계체계로서의 유연성과 일차성 요소인 기호의 매개자의 역할과 행동자의 역할을 통해 얻는 비결정성은 구조주의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 인간 사고의 무한한 확장성과 창의성에 대한 모델링의 기반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신익 외 18인,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창비, 2014.
- 길성호, 『현대건축의 재발견』, 시공문화사, 2013.
- 김원갑, 『렘 쿨하스의 건축』, 시공문화사, 2009.
- 황영삼·박미진·김영희, 「퍼스 기호 유형론의 건축 디자인 적용 연구」, 『기호학 연구』 54, 한국기호학회, 2018.
- Jappy, Tony, *Introduction to Peircean visual semiotics*, Bloomsbury, 2013.
- Liszka, J., *A Gena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
- ,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 Mitsue Inoue, *Kenchikubi Ron No Ayumi*, Kajima Institute Pub., 1991.
- ,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역, 도서출판국제, 1994.
- Nöth, Winfried, “The Semiotics of Models”, in *Sign Systems Studies* 46(1), 2018.
- Sheriff, J., *The Fate of Meaning*, Princeton Univ. Press, 1989.
- Schulz, C. Norberg-,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1971.
- ,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Signification Based on Inclusion Relations in Peirce's Semiotics and Its Application in Urban Place

Hwang, Young-Sam

Peirce's semiotics is a mathematical structure for structuring triadic ontological and phenomenological inclusion relations. Those relations are formulated in the unit model, and the triadic model can be understood as a compact model where those wide range of interaction between model components are modeled in. The interim model is composed of 3 sign clusters where 3 sign classes are included in and 1 attribute class. Those 10 sign classes interact in inferences for seeking meanings.

This research is a study on sign inclusion structure of Peirce's semiotics. Indeterminance is considered as a main key issue in semiotics, and investigated in its way of working in the Semiotics.

The inclusion structure is adopted in demonstration work in Kwanghwa-mun place to find out how inclusion relations work in meaning seeking.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n inclusion in the Semiotics are generally invalidated. It is emphasized that more works are to be conducted for future practical uses.

Keywords : Peirce's semiotics, Indeterminacy, Semiosis, Urban Semiotics

투고일: 2020. 08. 29./ 심사일: 2020. 09. 08./ 심사완료일: 2020. 09. 09.

한국기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기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기호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발간
- 2) 연구 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 4) 국제 기호학회와의 교류
- 5) 연구 문헌 수집
-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기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기호학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하고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 4)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요구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6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회칙 개정
- 3) 예산·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0명 이내
- 4) 감사 1명

제12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중에서 총무·섭외·편집·학술·재무·정보이사를 둔다.

제15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섭외이사는 언론홍보를 포함한 본 회의 대내외 교류 관계는 물론 학술발표자의 섭외와 학회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진흥재단 지원신청 업무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정보이사는 본 회의 웹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1조 국제이사는 외국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담당한다.

제22조 연구이사는 각종 학술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한국기호학회 학술총서의 기획을 담당한다.

제23조 교육이사는 기호학 관련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사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3) 연구발표회(연례발표회·월례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기호학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 5) 외국과의 학술 교류
- 6)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섭외이사·편집이사로 구성된다.

제7장 학회지

제29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기호학 연구』라 칭한다.

제30조 본 학회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묶어 『기호학 연구』를 발간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1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7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4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제35조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9장 연구 분과

제37조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 1) 문학 기호학 8) 종교 기호학
- 2) 언어 기호학 9) 철학 기호학
- 3) 연극 기호학 10) 신화 기호학
- 4) 음악 기호학 11) 문화 기호학
- 5) 시각 기호학 12) 커뮤니케이션 기호학
- 6) 건축 기호학 13) 영화기호학
- 7) 광고 기호학 14) 기타

제38조 각 분과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그의 주도 하에 주례발표회 · 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활동을 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조성비

4) 사업 수익금

제4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4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 1) 본 회칙은 2001년 1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5) 본 회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편집위원회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 편집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호학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기호학 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제4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진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회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이사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제9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기호학 연구』를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1)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2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함)

3.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제13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6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는가
- 2) 논문 제목은 내용과 부합하는가
- 3) 초록은 적절한가
- 4) 연구 목적과 방법,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가
- 5) 연구 자료 및 인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 6) 논문은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7) 내용 분석이나 해석에 응용된 방법론이 참신하거나 타당성이 있는가
- 8) 연구 내용은 독창성이 있는가
- 9) 연구 결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10)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제17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학회의 소정 양식(별첨 1)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부분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59점 이하

제18조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수정 논문에 대한 교정지 제출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사항 확인)를 거쳐 당호의 『기호학 연구』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때 다음호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편집 과정상의 필요한 절차대로 진행 후 다시 투고한다. 끝으로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4. 편집회의

제20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1조 편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기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제23조
- 1) 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5)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6)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7)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8) 본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9) 본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1) 투고는 한국기호학회 회원에 한한다.
- 2) 한국기호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필자는 투고 가능하다. 단, 학회원의 자격인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혹은 전문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 3)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기호학과 관련된 분야로 이전에 다른 학술지, 저서 등에 발표된 적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게재 조건

- 1)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 2) 다른 논문집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재수록은 허용치 않는다.
- 3) 2회 이상 연속 게재는 불허한다(2회까지는 허용). 단,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를 의뢰했거나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원고 규격

다음 사항들은 명시된 통일안에 따라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1) 편집구성

- ① 제목, 필자명, 국문초록(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주제어), 기타 외국어초록(기타 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구성한다.
- ②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150매를 넘지 못한다. 150매를 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용지 크기: A4(210×297)
- ④ 용지 여백: 위 20, 머리말 15, 왼쪽오른쪽 20, 제본 0, 아래쪽 15, 꼬리말 15
- ⑤ 글자 모양: 바탕체, 장평 100, 자간 0
- ⑥ 글자 크기: 제목 15, 장 제목 12, 절 제목 11, 본문 10, 각주인용 9
- ⑦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첫줄 보통, 본문 줄 간격 160, 각주인용 줄 간격 130, 문단 위아래 0
- ⑧ 주석은 각주로, K. L. Turabian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및 인용 논저의 제시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기호학 연구』 25, 한국기호학회, 2009, 69쪽.
 - 이어령,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2007, 109~110쪽.
 - 움베르트 에코,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2009, 23~24쪽.
 -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153.
 - Maire-Laure Ryan, “Possible Worlds and Accessibility Relations: A Semantic Typology of Fiction”, *Poetics Today* 12:3, 1991, p.555.
 -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ed.,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2,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7~12.

- 바로 앞 주와 동일한 논저일 경우, 같은 책(저서일 경우) 혹은 같은 글(논문일 경우), 외국 논저인 경우 Ibid.로 쓴다.
 - 이미 인용한 논저 사이에 다른 논저가 있을 경우, 앞의 책(저서), 앞의 글(논문), 외국 논저인 경우 Op. cit.로 쓴다.
- ⑨ 참고문헌에는 국내논저, 국외논저, 기타(각종 자료나 웹사이트 출처) 순으로 한다.
- ⑩ 참고문헌에는 간행물에 실린 논문일 경우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밝힌다.
- ⑪ 논문의 본문에서 소제목에 붙이는 번호 표시는 I, 1, 1), (1)의 순서로 한다.
- ⑫ 국문초록과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문초록은 글자 수(띄어쓰기 포함) 800~1,500자, 영문초록(기타 외국어초록)은 200~5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 ⑬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필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기타 외국어 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초록 검수 및 분량은 영문초록 작성 방식을 따른다.
- ⑭ 논문의 첫 번째 각주에는 투고자의 역할(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이름, 소속(학교 및 학과, 단 학교 소속이 아닐 경우 단체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박사 후 연구원 구체적인 직위 등을 기록한다. 만약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기록한다), 이메일을 기록한다.

2) 기타

- ① 논문 투고는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에 마감하며, 학회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간행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제1저자와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통상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일 앞에 명기한 저자가 제1저자로 간주됨)
- ③ 기타 모든 체제는 최근호에 준하고, 기타 편집상의 사안은 편집이사 또는 담당 편집위원에게 문의한다.
- ④ 게재가 확정되면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영문 초록에 대해 원어민 감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추가 편집비가 부여될 수 있다.
- ⑤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 될 수 있다.

4. 원고제출

- 1) 논문 게재 희망자는 투고 마감일 전까지 제출한다.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스(윈도용)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후 메일로 송부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년도 및 직전년도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투고와 동시에 다음 계좌로 심사비 6만원을 송금한다.

송금계좌: 황인순 (하나은행 215-910533-83307)

- 4) 마감일자: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
- 5) 발일행자: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6) 제출처: <https://semiosis.jams.or.kr>

편집이사 : 윤인선 (가톨릭대) storyforwish@gmail.com

편집위원회 : koreasemiotic@hanmail.net

한국기호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기호학회는 우리의 삶과 문화, 우리가 만든 예술 텍스트들은 물론 사회현상과 자연의 대상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분석하여 그 질서와 구조를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소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학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호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호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기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기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윤리 및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들이 연구 논문의 작성과 학술지의 편집에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전직 회장이 상임위원은 전·현직 총무이사과 편집이사가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구성원은 직책 임기를 따르고, 임시 위촉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종결 후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4)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론, 모델, 연구 결과 등을 원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그 중 일부 문장이나 단어를 변조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 1)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논문에 표기되는 저자의 역할은 실제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역할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연구와 무관한 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수행한 역할과 다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 3) 저자의 역할과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 4) 연구 및 논문 기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여가 없거나 낮은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나 서문 등에서 내용을 밝힌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나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

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기호학회 임원

고 문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명예회장 : 김치수(이화여대), 김현자(이화여대), 전성기(고려대),
신현숙(덕성여대), 송효섭(서강대), 박인철(연세대),
송기정(이화여대), 김성도(고려대), 박여성(제주대),
이도흙 (한양대)

회 장 : 오장근(목포대)

부 회 장 : 홍정표(한국외대), 이윤희(한국외대)

감 사 : 최용호(한국외대)

편집위원장 : 송치만(건국대)

총무이사 : 전형연(건국대)

분과 상임이사

섭외이사 : 오세정(충북대)

편집이사 : 윤인선(가톨릭대)

학술이사 : 이수진(인하대)

재무이사 : 황인순(인천대)

정보이사 : 태지호(안동대)

국제이사 : 김수환(한국외대)

연구이사 : 심지영(방통대)

교육이사 : 김민형(한국외대)

비상임 이사 : 조운경(이화여대), 이선화(영남대), 박수진(전남대),
김상원(인하대)

편집위원 : 고경란(한국외대), 김민형(한국외대), 김남시(이화여대),
김수환(한국외대), 김운찬(대가대), 박여성(제주대),
백승주(전남대), 오세정(충북대), 윤인선(가톨릭대),
이수진(인하대), 이윤희(한국외대), 김정희(선문대)

해외편집위원

Lenone Massimo (이탈리아 토리노대학),
Anne Henault (프랑스 소르본대학),
Paul Cobley (영국 미들섹스 대학, 세계기호학회회장),
Hamid Reza Shairi (이란 테헤란 국립대학),
Jose Enrique Finol (베네주엘라 줄리아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이도흠(한양대)
상임위원 : 오세정(충북대), 김민형(한국외대),
전형연(건국대), 윤인선(가톨릭대)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Honorary Advisor>

Lee, O-Young (The Joongand Ilbo Daily)

<Honorary President>

Kim, Chie-Sou (Ewha Women's U)

Kim, Hyeon-Ja (Ewha Women's U)

Jeon, Seong-Gi (Korea U)

Shin, Hyun-Sook (Duksung Women's U)

Song, Hyo-Sup (Sogang U)

Park, In-Chul (Yonsei U)

Song, Gi-Jeong (Ewha Women's U)

Kim, Sung-Do (Korea 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Lee, Do-Heum (Hanyang U)

<President>

Oh, Jang-Geun (Mokpo U)

<Vice-President>

Hong, Jeong-Py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Internal Auditor>

Choi, Yong-Ho (Hankuk U of Foreign Studies)

<Chair of Editorial Board>

Song, Chi-Man (Konkuk U)

<Secretary General>

Jeon, Hyeong-Yeon (Konkuk U)

<Excutive Board>

– Public Relation

Oh, Se-Jeong (Chungbuk U)

– Journal Edition

Yoon, In-Sun (Catholic U)

– Research

Lee, Soo-Jin (Inha U)

– Treasurer

Hwang, In-Soon (Incheon National U)

– Information

Tae, Ji-Ho (Andong National U)

– Internal Affairs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 Investigation

Shim, Ji-Young (Inha U)

– Education

Kim, Minhyoung(Hankuk U of Foreign Studies)

<General Board>

Cho, Yun-Kyung (Ewha Women's U), Lee, Sun-Hwa(Yeungnam U),
Park, Su-Jin (Chonnam National U), Kim, Sang-Won(Inha U)

– Editor

Koh, Kyung-N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Nam-Si (Ewha Women's U),
Kim, Soo-Hwan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Woon-Chan
(Catholic U of Daegu), Park, Yo-Song (Jeju National U),
Baik, Seung-Joo (Chonnam National U), Oh, Se-Jeong (Chungbuk U),
Yoon, In-Sun (Catholic U), Lee, Soo-Jin (Inha U), Lee, Yun-Hee
(Hankuk U of Foreign Studies), Kim, Jeong-Hee(Sunmoon U)

– Editor Abroad

Massimo Lenone (Università degli Studi di Torino, Italy),
Anne Henault (Universite la Sorbonne, France),
Paul Cobley (Middlesex University, UK / IASS president),
Hamid Reza Shairi (National Univ. of Tehran, Iran),
Jose Enrique Finol (Universidad del Zulia, Venezuela)

– Research ethics committees

Chairman : Lee, Do-Heum (Hanyang U)
Standing member of committee : Oh, Se-Jeong (Chungbuk U),
Kim, Minhyoung (Hankuk U of Foreign Studies),
Jeon, Hyeong-Yeon (Konkuk U), Yoon, In-Sun (Catholic U)

기호학 연구 제64집

2020년 09월 30일 인쇄

2020년 0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오장근

발행처 / 한국기호학회

편집·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118)

<http://www.kstudy.com>

학회지 표지·로고 디자인 / 박영원

한국기호학회

5855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 061-450-2691

<http://semiotic.cafe24.com>

